매일 1회분씩 잘라서 풀 수 있는 회별 구성

2026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25회
생활과 윤리

베스트셀러 기출문제집

1.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문항 포함
2. 2020~2024 시행 5개년 수능 + 2021~2024 시행 4개년 모의평가
   + 2022~2024 시행 3개년 학력평가 기출문제 전 문항 25회 → 총 500문항
3. [특별 무료 제공]
   ① 선별 문항 문제 풀이 동영상 강의 →
   ② 실전용 OMR 카드
   ③ 시험장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수능 안내 방송 MP3 및 동영상 →
4. 단원별로 풀 수 있도록 단원별 문항 분류표 제공
5. 자가 진단을 위한 회별 등급컷 제공
6. 자세한 첨삭 해설

MOTHERTONGUE
마더텅출판사
since1999.4.1.

2026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25회
생활과 윤리

수능 안내 방송 MP3 및 동영상 이용 방법



동영상 스마트폰으로 좌측 QR 코드 스캔

MP3 ① 인터넷 주소창에 toptutor.co.kr 또는 포털에서 마더텅 검색
② 학습자료실 → 교재관련자료 → 고등, 빨간책, 과목, 교재 선택
③ 안내 방송 MP3 내려받기

MOTHERTONGUE
마더텅출판사
since1999.4.1.

등급컷

등급컷 활용법 등급컷은 자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지표 중 하나입니다.
등급컷을 토대로 본인의 등급을 예측해 보고, 앞으로의 공부 전략을 세우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제시한 원점수 등급컷은 평가원의 공식 자료가 아니라 여러 교육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의 평균 수치이므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1회	2022년	3월 학평 서울특별시 교육청 시행	• 사상가, 주제 모두 익숙한 유형이었지만, 낯선 선지가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 체감 난도가 높은 편이었음. • 자연과 윤리(5번), 분배적 정의(9번), 해외 원조(13번)에 관한 문제 등이 높은 배점으로 난도 높게 출제되었고, 오답률도 높았음. 특히 해외 원조 문제(13번)는 정답률이 22%로 매우 높은 난도로 출제되어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였을 것임. • 교정적 정의 문제(17번)는 각 사상가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비판하는 내용을 찾는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익숙한 유형의 문제임. 해당 문제의 경우 각 사상가의 기본 입장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전체 선택지의 내용이 헷갈렸을 것임.	41	37	32	27	21	15	11	7
2회	2023년	3월 학평 서울특별시 교육청 시행	• 새로운 시험 유형은 없었으며, 익숙한 사상가들로만 출제됨. 단, 킬러 단원 문항이 어렵게 출제되어 고3 학생들이 느끼는 난도가 높았음. •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맞힐 수 있는 해외 원조 문제(7번)의 경우 오답률이 높게 나타났음. • 가치의 범위를 숙지해야 맞힐 수 있는 환경 윤리(15번) 오답률이 높았음. 환경 윤리 개념을 여러 사상가에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는 학습 전략이 필요함.	39	33	28	23	18	13	10	7
3회	2024년	3월 학평 서울특별시 교육청 시행	• 과거 수능, 모의평가 선지를 응용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음. • 분배적 정의(15번) ㄴ 보기, 형벌과 교정적 정의(17번) ㄴ 보기가 대표적으로 과거 오답률이 높았던 선지로, 고3 첫 학력평가를 치루는 학생 입장에서는 기출 문제에 대한 숙지가 덜 된 상태라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됨. • 과거 기출 선지 중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하여 정답/오답인 이유를 꼼꼼하게 정리해야 연계 문항을 틀리지 않을 수 있음.	39	34	28	23	18	13	10	7
4회	2022년	4월 학평 경기도 교육청 시행	• 상위권 변별이 가능한 고난도 문제는 국제 평화(4번), 자연과 윤리(11번), 분배적 정의(15번)에 관한 문제였으며, 그 외에는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음. • 국제 평화 문제(4번)는 칸트의 영구 평화를 위한 조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보기 ㄷ을 정답으로 혼동하지 않았을 것임. • 자연과 윤리 문제(11번)가 정답률이 가장 낮게 집계됨. 레오폴드뿐 아니라 테일러도 인간을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로 본다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보기 ㄱ을 정답으로 고르지 않았을 것임.	45	41	35	31	23	14	10	7
5회	2023년	4월 학평 경기도 교육청 시행	• 새로운 시험 유형은 없었으며, 익숙한 사상가들로만 출제됨. 3월 학평에 비해 전반적인 난도는 낮음. • 추방형을 묻는 루소 사형제 문제(10번), 정형적 분배 원리를 비판하는 노직 문제(12번), 롤스 해외 원조에서 무법 국가를 묻는 문제(18번)에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해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됨. • 과거 평가원 모의평가, 수능 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학평이며, 기출 문제 분석으로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었음.	43	40	35	30	23	16	11	8
6회	2024년	4월 학평 경기도 교육청 시행	• 기존 고난도 단원 문항이 평이하게 출제됨. • 생활과 윤리 전체 출제 단원, 사상가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문항이 설계된 점이 특징임. • 시민 불복종(13번) 3번 선지, 자연과 윤리(10번) ㄹ 보기가 까다롭게 출제되었음.	47	42	38	33	26	18	12	9
7회	2022학년도	6월 모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	• 3월보다는 난도가 높지 않지만 사상가의 기본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다소 많이 출제되었음. • 분배적 정의관 문제(7번)는 수험생들이 혼동하지 않았을 쉬운 문제임에도 높은 오답률을 보임. 내용을 보다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시민 불복종 문제(16번)는 수험생들이 다소 까다롭게 생각하는 문제로 높은 오답률을 보이고 있음. 시민 불복종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을 잘 모르는 상태로 풀었을 경우 매력적인 오답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음. • 사형 제도 문제(19번)는 정답률이 22%로 매우 높은 난도로 출제됨. 특히 사회 계약론적 관점에서 사형 제도를 바라보는 루소와 베카리아의 공통점과 차이점, 더불어 이러한 관점과 칸트의 입장과의 차이점을 꼼꼼히 정리하지 않았을 경우 전체적으로 선지들의 내용이 헷갈렸을 것임.	44	41	35	29	23	16	10	6
8회	2023학년도	6월 모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	• 정답률이 90% 이상인 문항이 7개일 정도로 평이한 수준이며, 평가원 기출 문제 유형 분석을 잘 했다면, 고난도 문제를 제외하고는 헷갈릴만한 선지가 없는 난이도로 출제됨. • 시민 불복종 문제(12번)는 선택지 ①번이 높은 오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해당 문제는 롤스의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보기 ㄷ을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임. • 자연과 윤리 문제(19번)는 선택지 ④번이 높은 오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각 사상가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보기 ㄴ을 정답으로 고르지 않았을 것임.	47	46	40	35	29	22	15	10
9회	2024학년도	6월 모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	• 과거 과학탐구에서만 출제되었던 합답형 유형의 문제(6번)가 사회탐구에서도 등장함. 익숙한 사상가들로 출제되었으나, 낯선 선지들이 매우 많아 체감 난도가 매우 높음. • 불완전 절차적 정의와 시민 불복종의 목적을 이해해야 하는 시민 불복종 문제(5번), 주권자의 권한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홉스 문제(6번), 정형적 분배 원리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노직 문제(8번), 루소의 추방형과 칸트의 사회 계약 관점을 이해해야 하는 사형제 문제(9번), 환경 윤리(15번) 문제에서 오답률이 높게 나타났음. • 수능 연계 교재 속 새로운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눈에 띄며, 연계 교재 분석을 분석하는 학습 전략이 요구됨.	43	39	34	28	21	14	10	8
10회	2025학년도	6월 모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	• 새로운 개념, 새로운 선지없이 출제됨. 그러나 전체적인 문항 난도는 높게 출제됨. • 빈출되던 사회 계약론 내용이 미출제됨. • 학생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과학 기술과 윤리(5번), 성과 사랑의 관계(18번) 단원이 기존보다 까다롭게 출제됨. 꼼꼼한 제시문 독해가 필요함. • 그동안 미출제되던 소로가 재출제됨(14번). 과거 기출에 한 번이라도 등장했던 사상가는 개념 숙지가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함.	45	40	35	30	22	14	11	7
11회	2022년	7월 학평 인천광역시 교육청 시행	• 익숙한 주제와 유형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나, 다소 까다로운 선택지들이 문제마다 있어 체감 난도는 높은 편임. • 예술과 윤리 문제(16번)는 익숙한 유형으로 출제되었으나 ②번 선택지가 높은 오답률을 보이고 있음. 순자의 인간관이 성악설이라는 것을 알아야 음악을 통해 본성을 함양한다는 내용을 정답으로 고르지 않았을 것이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매력적인 오답에 빠질 수 있음. • 해외 원조(3번), 국가 권위와 정당성(5번), 분배적 정의(7번), 시민 불복종(14번)에 관한 문제가 낮은 정답률, 높은 오답률을 보이고 있음. 배점이 높고 난도가 높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각 사상가마다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함.	47	42	33	27	20	15	10	7
12회	2023년	7월 학평 인천광역시 교육청 시행	• 익숙한 사상가들로 출제되었고, 문제도 전반적으로 평이했으나 1~2문제가 까다로웠음. • 타고난 사회적 지위에 대한 소유 권리를 묻는 분배적 정의관 문제(10번), 시민 불복종 문제(12번), 생명권 양도를 묻는 홉스 사회 계약론 문제(18번)에서 오답률이 높게 나타났음. • 연계 교재 속 개념과 과거 평가원 기출 선지를 적절히 섞어 출제한 점이 눈에 띔. 6월 이후에는 개념 숙지 완료 후 연계 교재 분석과 기출 문제 분석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학습 전략이 필요함.	46	40	34	28	21	13	9	8
13회	2024년	7월 학평 인천광역시 교육청 시행	• 분배적 정의(15번)가 까다롭게 출제되었고, 그동안 출제되지 않던 왈처가 출제됨. • 토론 문항(4번)과 자연과 윤리(19번)가 까다로운 독해 추론 과정을 거치게 출제됨. • 연계 교재에 대한 학습이 중요하며, 선지 독해를 할 때에는 중요 개념에 표기를 하며 꼼꼼히 읽고 생각하는 학습 전략이 필요함.	44	39	32	25	19	14	8	6
14회	2022학년도	9월 모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	•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됨.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제시문과 선택지를 꼼꼼하게 읽고 문제를 푸는 연습이 필요함. • 환경 윤리(15번), 시민 불복종(17번) 등은 매번 빠지지 않고 다뤄지는 개념이지만 각 사상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비교했어야 정답을 맞힐 수 있었음. • 결혼에 대한 칸트 입장의 문제(18번)는 칸트의 입장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시문 또한 명확히 이해하며 읽을 필요가 있음.	50	47	42	35	27	18	12	8

물수능/물모평/물학평 평소보다 쉬운 난도

불수능/불모평/불학평 평소보다 어려운 난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15회	2023학년도	9월 모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	• 문제 유형과 내용 등 모두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으나, 6월 모의평가에 비해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어 체감 난도가 높은 편이었음. • 자연과 윤리 문제(10번)는 인간이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거나, 인간 이외의 생명체를 인간의 삶 유지를 위해 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매력적인 오답에 빠지지 않았을 것임. • 분배적 정의 문제(15번)는 보기 ㄱ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임. 해당 보기는 롤스의 순수 절차적 정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오답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임. • 짐멜의 유행에 관한 문제(13번)가 출제되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제시문만 잘 읽어도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음.	47	45	40	34	26	17	11	7
16회	2024학년도		• 과거에 출제된 대전제, 소전제 유형의 문제(5번)가 다시 등장함. 동양 윤리 사상가가 대거 출제됨. 기본 개념을 응용한 고난도 선지가 많아 체감 난도가 높았음. • 정치 체제, 민주 사회의 다수결 원칙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는 시민 불복종 문제(7번), 베카리아와 칸트의 사형제 문제(9번), 권리 양도와 자연법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로크 사회 계약론 문제(13번), 차등의 원칙과 재산 분배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 롤스 문제(15번)에서 오답률이 높게 나타났음. •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숙지해야 한다는 평가원 메시지가 드러난 시험이었음. 과거 평가원 모의평가, 수능 고난도 선지에 대한 정리가 요구됨.	44	38	36	31	24	16	10	8
17회	2025학년도		• 전통적인 고난도 단원인 자연과 윤리, 분배적 정의, 사회 계약론을 기존보다 난도를 낮추어 출제함. 기본 개념을 충실히 공부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게 구성함. • 시민 불복종(12번), 국제 평화와 윤리(18번), 해외 원조(19번)는 기존보다 까다롭게 출제함. 이는 전통적인 고난도 단원 외에도 꼼꼼하게 공부해야 함을 의미함. • 연계 교재와 과거 기출 문항을 바탕으로 꼼꼼히 공부하는 자세가 요구됨. • 오답률이 높은 선지의 경우 재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답/오답인 이유를 반드시 분석해야 함.	47	45	42	35	27	18	10	9
18회	2022년	10월 학평 서울특별시교육청 시행	•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나, 수험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해외 원조, 국가의 정당성, 시민 불족종 문제가 선택지의 내용도 까다롭게 구성되었고 배점도 높았음. • 해외 원조 문제(5번)는 싱어가 원조의 목적을 인류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했음. • 국가의 정당성 문제(12번)는 최근 들어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으며, 각 사상가의 입장에서 자연 상태의 특징, 사회 계약을 맺은 이유, 사회 계약을 맺고난 후의 사회 상황, 주권자의 역할에 대해 꼼꼼하게 비교하고 정리해야 함. • 이번 시험에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는 시민 불복종 문제(19번)는 롤스의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합당한 저항에 대한 보복적 억압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보복적 억압을 처벌 감수와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정답을 맞힐 수 있었을 것임. 특히 해당 보기(ㄴ)는 2020년 3월 12번 문제의 제시문 내용이 그대로 출제된 경우임. 이처럼 제시문을 선택지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기출의 내용들을 꼼꼼하게살 펴 볼 필요가 있음.	44	40	37	32	24	13	9	8
19회	2023년		• 9월 모의평가 문항 유형과는 다른 기조로 출제함. 익숙한 사상가들로만 출제됨. 특정 선지들이 어렵게 출제되어 쉬운 시험은 아니었음. • 사회 계약론(2번), 분배적 정의(5번),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성적 관계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성과 사랑의 윤리(8번), 테일러 입장에서 신의의 의무 대상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는 자연과 윤리(11번)의 경우 오답률이 높게 나타났음. • 대부분의 문항에서 기출 선지를 응용한 점이 돋보이며, 킬러 문항 중 선지 1~2개는 자체적으로 고난도로 출제함.	47	41	38	29	19	12	10	7
20회	2024년		• 과거 수능, 모의평가 선지를 바탕으로 평이하게 출제됨. • 그러나 자연과 윤리(10번), 형벌과 교정적 정의(11번)의 일부 선지는 매우 까다롭게 출제됨. • 칸트의 정언 명령 중 인격성의 정식과 베카리아의 형벌관에 대해 심도 있게 준비하는 학습 태도가 필요함.	48	43	38	28	17	11	8	6
21회	2021학년도	수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	•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내용이나 사상가를 다룬 문제보다는 출제 예상 가능 범위 내에서 출제되어 평이한 난도에 해당되는 편임. • 단순 암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정확한 사상적 이해가 바탕되어 있지 않으면 매력적인 오답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15번 문항은 배점은 낮지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과 내용이므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정답을 찾아야 함. 특히 이번 벤다이어그램 문제 유형은 보기에 대한 갑, 을, 병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음. 따라서 다양한 기출 문제 보기와 선택지를 활용하여 연습해보아야 함.	50	47	43	35	26	19	14	8
22회	2022학년도		•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나, 다소 까다로운 선택지의 내용을 구성한 문제들이 배점이 높았음. 단원별로 각 사상가의 입장을 꼼꼼하게 정리해 두어야 더 심화된 내용의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음. • 분배적 정의(10번)는 익숙한 유형으로 출제되었으나 롤스가 기본적 자유에 대해 절대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답을 맞힐 수 있었음. 배점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로 등급이 나뉘었을 것임. • 자연과 윤리(14번)는 자주 등장하는 유형인 벤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출제됨. 해당 문제의 경우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는 조건,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존재,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 등 선지의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한 각 사상가들의 입장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정리해 두어야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였음.	47	45	42	35	26	18	12	8
23회	2023학년도		• 수험생들이 까다롭게 생각하는 영역의 문제들의 선택지를 까다롭게 구성하여 어렵게 느껴졌을 것임. • 동양 사상(2번)과 분배적 정의(9번)에 관한 문제의 오답률이 높게 집계되었으며 정답률이 50% 이하인 문제가 6문제로 체감 난도가 높은 편이었음. 특히 2번 문제는 내용 자체는 평이한 편이나 갑 사상가를 혼동해 ②번 선택지의 오답률이 높게 나왔음. • 분배적 정의 문제(9번)는 보기 ㄱ에서 롤스가 차등의 원칙을 통해 호혜성의 원칙을 실현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어야 정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임. • 자연과 윤리 문제(10번)는 익숙한 유형인 벤다이어그램을 활용해 출제됨. 이 문제는 종이 다른 개체를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상가와 인간에 대한 의무의 근거로 동물에 대한 의무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는 사상가를 잘 알고 있어야 헷갈리지 않고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것임. • 로크와 홉스의 국가관의 문제(12번)는 자연 상태의 특징, 주권자, 사회 계약 체결의 이유 등에 대한 각 사상가들의 입장을 꼼꼼하게 비교해 정리해 두어야 정답을 맞힐 수 있었을 것임.	45	41	36	30	24	19	12	10
24회	2024학년도		• 과거 기출 문제에 등장했던 사상가들이 대거 나와(아리스토텔레스의 음식 문화, 한스 큉의 세계 윤리, 칸트의 미학) 익숙한 사상가로만 구성되지는 않았으나, 선지들이 쉽고 소거법으로 풀리는 게 많아 체감 난도는 낮았음. • 홉스 입장에서 국가의 성격과 자연 상태의 소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회 계약론 문제(7번), 법의 경계선과 법에 대한 충실성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 롤스 시민 불복종 문제(9번), 칸트의 미학 문제(10번), 롤스와 노직 입장에서 기본적 자유의 침해와 제한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에서 오답률이 높게 나타났음. • 킬러 문항 배제 기조에 따라 초고난도 선지는 보이지 않으며, 과거 평가원 기출 선지 및 연계 교재 분석을 분석하는 학습 전략이 요구됨.	50	47	43	37	29	22	15	10
25회	2025학년도		• 생활과 윤리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평할 수 있을만큼의 난도였음. • 거의 모든 문항 선지에 어려운 개념을 삽입하고 추가로 까다로운 독해 추론을 요구함. • 고난도 단원(9번, 14번, 15번, 18번)은 과거 기출 선지 기반으로 출제했으나, 선지들이 까다로운 추론을 거치게 설계되어 정답률이 매우 낮았음. • 빈출되는 비킬러 단원(4번, 16번)이더라도 선지에 새로운 개념을 추가해 난도를 높임. • 기존 모의평가, 수능에 출제되지 않은 주제(3번, 13번)가 출제되어 수험생을 당황시킴. • 키워드 암기 중심 생윤 공부로는 한계가 있는 시험이었음. 따라서 사상가의 논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연계 교재를 꼼꼼히 학습하여 지엽적인 내용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41	37	32	26	20	16	12	8



목차&학습계획표

회차		문제편	해설편	학습일	내 점수	등급컷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1	2022년 3월 고3 학력평가	5p	1p		등급 / 50점	41	37	32	27	21	15	11	7
2	2023년 3월 고3 학력평가	9p	5p		등급 / 50점	39	33	28	23	18	13	10	7
3	2024년 3월 고3 학력평가	13p	9p		등급 / 50점	39	34	28	23	18	13	10	7
4	2022년 4월 고3 학력평가	17p	13p		등급 / 50점	45	41	35	31	23	14	10	7
5	2023년 4월 고3 학력평가	21p	17p		등급 / 50점	43	40	35	30	23	16	11	8
6	2024년 4월 고3 학력평가	25p	21p		등급 / 50점	47	42	38	33	26	18	12	9
7	2022학년도 6월 고3 모의평가	29p	25p		등급 / 50점	44	41	35	29	23	16	10	6
8	2023학년도 6월 고3 모의평가	33p	29p		등급 / 50점	47	46	40	35	29	22	15	10
9	2024학년도 6월 고3 모의평가	37p	33p		등급 / 50점	43	39	34	28	21	14	10	8
10	2025학년도 6월 고3 모의평가	41p	37p		등급 / 50점	45	40	35	30	22	14	11	7
11	2022년 7월 고3 학력평가	45p	41p		등급 / 50점	47	42	33	27	20	15	10	7
12	2023년 7월 고3 학력평가	49p	45p		등급 / 50점	46	40	34	28	21	13	9	8
13	2024년 7월 고3 학력평가	53p	49p		등급 / 50점	44	39	32	25	19	14	8	6
14	2022학년도 9월 고3 모의평가	57p	53p		등급 / 50점	50	47	42	35	27	18	12	8
15	2023학년도 9월 고3 모의평가	61p	57p		등급 / 50점	47	45	40	34	26	17	11	7
16	2024학년도 9월 고3 모의평가	65p	61p		등급 / 50점	44	38	36	31	24	16	10	8
17	2025학년도 9월 고3 모의평가	69p	65p		등급 / 50점	47	45	42	35	27	18	10	9
18	2022년 10월 고3 학력평가	73p	69p		등급 / 50점	44	40	37	32	24	13	9	8
19	2023년 10월 고3 학력평가	77p	73p		등급 / 50점	47	41	38	29	19	12	10	7
20	2024년 10월 고3 학력평가	81p	77p		등급 / 50점	48	43	38	28	17	11	8	6
2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85p	81p		등급 / 50점	50	47	43	35	26	19	14	8
22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89p	85p		등급 / 50점	47	45	42	35	26	18	12	8
23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3p	89p		등급 / 50점	45	41	36	30	24	19	12	10
24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7p	93p		등급 / 50점	50	47	43	37	29	22	15	10
25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1p	97p		등급 / 50점	41	37	32	26	20	16	12	8

등급컷	문제편 2p, 3p
OMR 카드	정답과 해설편 101p
단원별 문항 분류표	뒤표지 앞

등급컷 활용법 등급컷은 자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지표 중 하나입니다. 등급컷을 토대로 본인의 등급을 예측해보고, 앞으로의 공부 전략을 세우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제시한 원점수 등급컷은 공식 자료가 아니라 여러 교육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의 평균 수치이므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회차별 동영상 강의



26re-1

1회	
시험 시간	30분
날짜	월 일
시작 시각	:
종료 시각	:

제 4 교시 | 성명 | 수험번호 -

1 회 2022 3월 학력평가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나는 윤리학이 '옳은 행위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이 '옳다'와 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 이들은 윤리학이 [㉠]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① 도덕적 탐구가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가를 검토해야 한다
② 도덕규범을 당위가 아닌 사실의 형식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도덕 현상의 가치 중립적 기술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④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⑤ 도덕적 추론의 형식적 타당성 검증을 주된 과제로 삼아야 한다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세상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조차도 제한 없이 선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선의지뿐이다. 이성의 최고의 실천적 사명은 선의지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 을 : 덕은 하나의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서, 그것의 소유와 실행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실천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준다.

① 갑 : 공동체가 추구하는 선을 따르려는 의지만이 도덕적이다.
② 갑 : 행위의 준칙은 보편적으로 따라야 할 법칙이 될 수 있다.
③ 을 : 도덕적 선악은 공동체의 역사와 무관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④ 을 : 덕은 관행에 내재한 선을 성취하게 하는 타고난 성품이다.
⑤ 갑, 을 : 맥락적 사고가 아닌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

3.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에게
> 사랑에 대해 고민이 많은 너에게 조언을 해 주고 싶구나. 요즘 사람들은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 같구나. 하지만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 활동이란다. 사랑은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며, 착취 없이 존경하는 것이란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란다.

<보 기>

ㄱ. 사랑은 상대방의 요구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이다.
ㄴ. 사랑은 보호와 존경을 기본적 요소로 내포하고 있다.
ㄷ. 사랑은 자신의 의지대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활동이다.
ㄹ. 사랑은 주는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그리고 전쟁 수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가 공화 정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을 : 평화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폭력에 대해 알아야 한다. 폭력에는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 그리고 이 두 가지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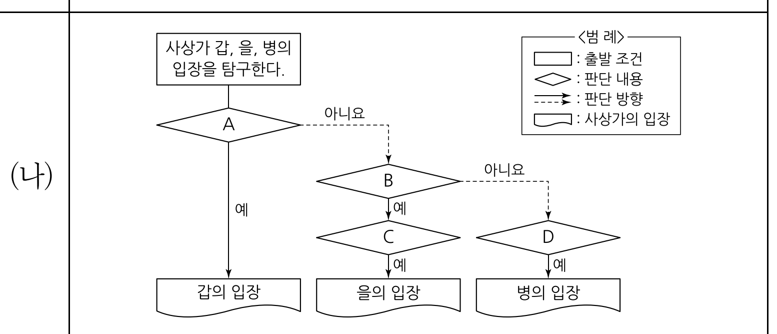
① 갑 : 개별 국가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 연맹이 필요하다.
② 갑 : 다른 국가의 체제 변화를 위한 강제력 사용은 허용된다.
③ 을 :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은 문화적 폭력에 국한된다.
④ 을 :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갑, 을 : 평화 조약의 체결은 영원한 평화의 실현을 보장한다.

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 갑 :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피조물인 동물을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대립한다.
> 을 : 유기체는 고유의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어떤 종을 다른 종보다 선호하는 편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병 : 동물이 인간과 다른 종에 속한다고 해서 그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종 차별주의이며, 종 차별주의는 인종 차별과 다를 바 없이 부도덕하다.

(나)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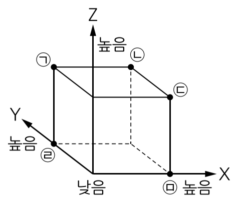
ㄱ. A : 동물에 대한 폭력적 행위는 인간의 의무에 어긋나는가?
ㄴ. B : 생명체는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ㄷ. C : 생명체 고유의 선을 보호하기 위한 간섭이 허용될 수 있는가?
ㄹ. D : 인간과 동물의 동일한 양의 고통은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해설편 1~2쪽

6.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 갑 : 원자 폭탄을 전쟁에 이용한 사람은 정치인들이므로 과학적 연구의 결과 활용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한다. 과학자는 연구로 발견한 진리를 공표할 책임만 지닌다.
> 을 : 핵무기 개발이 가져올 희망보다 공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과학자는 과학 기술이 가져올 결과의 모호성과 가늠할 수 없는 파급력이 초래할 위험에 주목해야 한다.
>
> 
>
>
> • X : 과학 기술의 활용 결과를 과학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정도
> • Y : 과학 기술 연구와 관련된 과학자의 책임을 축소해야 한다고 보는 정도
> • Z : 과학자가 과학 기술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성찰해야 한다고 보는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문화 산업의 독점하에서 대중문화는 획일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대중문화의 조종자들은 독점을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독점의 힘이 강화될수록 그 힘의 행사도 점점 노골화된다. 영화나 라디오는 더 이상 예술인 척할 필요가 없다. 대중 매체는 그들이 고의로 만들어 낸 것들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되며, 대중은 문화 산업의 객체가 된다. 대중에게 다양한 질의 대량 생산물이 제공되지만 그것은 이윤 창출을 위한 문화 산업 체계의 일부일 뿐이다.

① 문화 산업이 확산될수록 인간의 몰개성화 경향은 감소한다.
② 문화 산업은 예술을 상품화하려는 시도를 예방하고자 한다.
③ 문화 산업은 대중에게 규격화된 예술과 가치관을 전달한다.
④ 문화 산업의 목표는 예술의 심미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다.
⑤ 문화 산업은 대중이 각자 고유한 예술 체험을 하도록 장려한다.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연기(緣起)를 보는 자는 법(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문제 상황〉

> 기업가 A는 경영난이 지속되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장의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할지 고민하고 있다.

① 자연과 인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② 인간에 내재된 불성을 극복하려는 의지에 따라 결정하세요.
③ 자연의 모든 구성원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결정하세요.
④ 인간이 우월한 존재로서의 지위를 지킬 수 있도록 결정하세요.
⑤ 인간 외의 존재도 독립된 실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하세요.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 지능에 따른 분배 원리는 정형적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는 차별적인 소유 권리를 창출하는 과거의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역사적이다.
> 을 : 지능과 같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분포로 인한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이 필요하다.

<보 기>

> ㄱ. 갑 : 개인은 천부적 자산과 그것을 이용하여 얻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 ㄴ. 을 :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것은 부정의하다고 할 수 없다.
> ㄷ. 을 : 개인은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체제의 규칙에 따라 얻은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 ㄹ. 갑, 을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 원리가 정의의 원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통치자들이 되어야 한다. 상인이 전사 계층으로 옮기려 하거나 전사가 통치자 계층으로 옮기려고 하면 국가는 파멸할 것이다.
> 을 : 어질고 능력이 있으면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등용한다. 서인(庶人)의 자식도 학문에 힘쓰고 행실이 바르며 예(禮)를 쌓아 본성을 극복하면 관리가 될 수 있다.

① 갑 : 통치자들만 공동생활을 통해서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
② 갑 : 각자 자신의 성향에 맞는 한 가지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③ 을 : 직업에 충실하면 본성을 회복하고 인격을 닦을 수 있다.
④ 을 : 예에 정통한 사람은 모든 일을 이해하고 잘하는 사람이다.
⑤ 갑, 을 : 개인의 희망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

1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고도로 조직화된 산업사회에서는 재력이 없으면 평판도 얻을 수 없다. 재력을 과시하여 평판을 얻기 위한 수단은 여가와 재화의 과시적 소비이다. 사람들의 평판을 효과적으로 얻으려면 불필요한 사치품에 돈을 써야 한다. 오로지 필수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러한 과시적 소비는 하층계급에서도 나타난다.

① 과시적 소비는 하층계급에서 상층계급으로 확산되는가?
② 사회 전체의 부가 늘어날수록 과시적 소비는 감소하는가?
③ 모든 계층에서 평판을 높이려는 과시적 소비가 나타나는가?
④ 자기 보존 본능은 과시적 소비의 주된 경제적 동기가 되는가?
⑤ 필수품 소비는 유한계급이 재력을 과시하는 유용한 방법인가?



해설편 2~3쪽

12.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예술 작품은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예술 작품은 젊은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을 닮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을: 예술 작품에 도덕적인 작품, 비도덕적인 작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술은 예술 안에서 완벽함을 추구할 뿐, 예술 밖에서 완벽함을 찾지 않습니다. 예술이란 아름답고 섬세한 형태, 고상한 색채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는 것입니다.

① 갑 : 예술 작품은 인간의 품성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② 갑 : 예술 작품 검열은 예술의 도덕적 교화 기능을 약화시킨다.
③ 을 : 예술 작품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때 가치를 지닌다.
④ 을 : 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는 도덕에 근거해서 이뤄져야 한다.
⑤ 갑, 을 : 예술 작품은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13.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원조의 의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어떤 공동체에 속하느냐는 원조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을 : 원조의 의무는 합당하게 정의로운 자유적 만민과 적정 수준의 만민이 불리한 여건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사회에 대해 부담해야 할 의무이다.
(나)	갑 을 A B C 〈범 례〉 A : 갑만의 입장 B : 갑, 을의 공통 입장 C : 을만의 입장

<보 기>

ㄱ. A :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균등하게 원조해야 한다.
ㄴ. B : 원조할 때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ㄷ. B : 원조 주체는 원조 대상국에 강제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ㄹ. C : 질서 정연한 사회는 지구적 분배 정의의 원칙에 따라 원조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남북의 분단 비용 중 국방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남북은 모두 경제 규모 대비 적정 수준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국방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 을 :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통일 이전과 달리 세계적인 강대국들과 국경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국방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통일에 따른 국방비 증가는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할 것이다.

① 갑 : 통일 편익은 북한이 아닌 남한 지역에서만 발생할 것이다.
② 갑 : 통일 이후의 국방비 감소는 통일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③ 을 : 통일된 이후에도 분단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④ 을 : 통일 국가의 영토는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확장될 것이다.
⑤ 갑, 을 : 통일 이전 대비 통일 이후의 국방비는 증가할 것이다.

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갑 :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개인보다 앞서 있다. 국가는 전체이며, 개인은 그 부분으로서 혼자서는 자급자족하지 못한다. 국가에서 살 필요가 없는 자는 동물이거나 신이다.
> 을 : 국가는 사람들이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벗어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었다. 최고 권력인 입법권은 이러한 목적으로 신탁된 권력이다.

① 갑 : 국가는 행복을 실현하게 하는 가장 포괄적인 공동체이다.
② 갑 : 국가는 완전한 자급자족 단계에 도달한 최상의 공동체이다.
③ 을 : 국가는 공정한 재판관과 집행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④ 을 :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다루면 안 된다.
⑤ 갑, 을 : 국가 질서는 통치자가 절대 권력을 가져야 유지된다.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삶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죽음에 대해 알겠는가?
> 을 : 진인은 삶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죽음을 싫어할 줄도 모른다. 삶의 시작을 꺼리지도 않고 삶의 끝을 바라지도 않는다. 의연히 가고 의연히 올 따름이다.

<보 기>

ㄱ. 갑 : 도덕적 삶보다는 사후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ㄴ. 갑 :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는 예에 맞게 표현해야 한다.
ㄷ. 을 : 생사를 분별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도에 따라야 한다.
ㄹ. 갑, 을 : 내세의 행복을 위해 선한 행위를 반복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형벌의 남용은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엄격성을 지닌다. 을 : 형벌은 본질적으로 해악이다. 공리의 원리에 의할 때 형벌이 근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유익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 형벌은 부적합하다. 병 : 형벌은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도덕 법칙에 따라 의욕되는 바이다. 범죄와 보복은 동등해야 하며 형벌의 질과 양은 보복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갑, 을, 병 / A, B, C, D, E, F 〈범 례〉 →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 〈예 시〉 갑 —A→ 을 :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

<보 기>

ㄱ. A, F : 사형은 사회 계약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형벌임을 간과한다.
ㄴ. B, D :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해야 함을 간과한다.
ㄷ. C, E : 사형은 범죄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형벌임을 간과한다.
ㄹ. D, F :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작아야 함을 간과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8. (가)의 입장에 대해 (나)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뇌사가 죽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뇌사자는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활동을 할 수 없고, 뇌사자의 장기 이식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나) 뇌사가 죽음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뇌사자라도 심폐 기능이 유지되면 죽은 것이 아니다. 뇌사자를 죽은 사람으로 보고 장기 이식을 하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게 된다.

① 유용성 극대화를 위해서 뇌사의 인정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②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할 때 사회적 선이 실현됨을 간과한다.
③ 뇌 기능 상실이 죽음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임을 간과한다.
④ 심폐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장기 이식이 확대됨을 간과한다.
⑤ 뇌사를 죽음으로 보면 인간의 가치를 해칠 수 있음을 간과한다.

19.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 시민 불복종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법과 정책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그 행위가 보다 효과적인 호소가 되도록 적절하게 계획되는 것이 중요하다.
을 : 시민 불복종이 중단하려는 악의 크기와 불복종이 초래할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 가능성을 계산해야 한다. 한편 야생의 파괴를 가져올 댐 건설과 동물 학대 실험을 반대하는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다.

① 시민 불복종은 다수를 위협하고 강제하려는 위법 행위인가?
②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거부를 전제로 하는가?
③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의롭지 못한 법도 있는가?
④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 노력 실패 후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인가?
⑤ 시민 불복종의 목표에 동물의 이익 옹호가 포함될 수 있는가?

20.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개인의 인터넷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용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디지털 유산*의 상속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을 : 동의합니다. 유족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디지털 유산이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디지털 유산을 유족에게 상속해야 합니다.
갑 : 아닙니다. 모든 디지털 유산을 상속하는 것은 사망자의 사생활과 잊힐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사망자가 공개한 디지털 유산만 제한적으로 유족에게 상속해야 합니다.
을 : 그렇지 않습니다. 사생활 보호와 잊힐 권리는 살아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비공개 디지털 유산도 공개된 디지털 유산과 함께 유족에게 상속해야 합니다.

* 디지털 유산 : 사망한 사람이 남긴 디지털 콘텐츠, SNS 게시물,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 머니 등이 포함됨.

①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기인가?
② 온라인 공간에 공개된 디지털 유산은 상속될 수 있는가?
③ 디지털 유산 상속인의 자격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가?
④ 사망자의 모든 디지털 유산은 유족에게 상속되어야 하는가?
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잊힐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가?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회차별 동영상 강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				

2회	
시험 시간	30분
날짜	월 일
시작 시각	:
종료 시각	:

2회 2023 3월 학력평가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나는 윤리학이 환경, 생명, 정보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에 대해 실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판단의 논리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윤리학의 주요 과제가 [㉠]고 생각한다.

① 도덕적 논의의 인식론적 구조에 대한 분석임을 간과한다
② 도덕 추론의 정당성 검증을 위한 논리 분석임을 간과한다
③ 도덕 판단을 위한 보편적 도덕 법칙의 정립임을 강조한다
④ 도덕 현상에 대한 경험적 조사와 객관적 서술임을 강조한다
⑤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위 지침의 제시임을 간과한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한 이상적 담론은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참된 진술을 해야 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 또한 누구나 평등하게 담론에 참여하고, 어떤 주장이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해야 보편타당한 규범을 도출할 수 있다.

<보 기>

ㄱ. 담론 참여자는 다수가 지지하는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ㄴ. 담론 참여자 다수가 동의한 모든 규범은 타당성을 지닌다.
ㄷ.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호를 표현할 수 있다.
ㄹ. 담론 참여자는 합의한 결과로 인한 부작용도 수용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므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를 제대로 알게 되면 가사성(可死性)도 즐겁게 된다. 그러한 앎이 불멸에 대한 갈망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다.
> 을 :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윤회(輪廻)를 끝낼 수가 없다. 그들은 태어남과 죽음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겪는다.

① 갑 : 죽음은 고통이므로 죽음을 최고의 악으로 인식해야 한다.
② 갑 :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③ 을 :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고정불변의 자아를 확립해야 한다.
④ 을 : 윤회를 통해 모든 고통이 저절로 소멸됨을 깨달아야 한다.
⑤ 갑과 을 : 내세의 영원한 삶을 위해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

4.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 법은 강제 권한과 결합되어 있다. 오직 법정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을 : 법은 개개인의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양도할 자는 없다. 사형은 권리일 수 없다. 병 : 법은 일반 의지의 반영이다. 법이 규정한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악인은 모두 조국의 반역자가 되며, 그의 보존은 국가의 보존과 양립할 수 없다.
(나)	갑, 을, 병 / A, B (갑–을), E, F (갑–병), C, D (을–병) 〈범 례〉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 〈예 시〉 갑 —A→ 을 :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

① A, F :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② B : 범죄자는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원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임을 간과한다.
③ C : 사형은 사회 계약을 통해 성립될 수 없지만 정당한 형벌임을 간과한다.
④ D : 형벌의 지속도보다 강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임을 간과한다.
⑤ E : 형벌은 시민 사회의 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있음을 간과한다.

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갑 : 예술의 사명은 행복이 인간 상호 간의 결합에 있다는 진리를 이성에서 감정의 영역으로 옮겨 신(神)의 세계, 즉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을 : 예술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술은 예술 안에서 완벽함을 추구할 뿐 예술 밖에서 완벽함을 찾지 않습니다.

① 갑 : 예술은 공감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의 감정으로 결합한다.
② 갑 : 예술은 종교적 자각에 입각한 사랑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③ 을 : 예술은 인격 함양을 위한 삶의 본보기를 제공해야 한다.
④ 을 : 예술은 예술 자체의 아름다움을 자율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⑤ 갑과 을 : 예술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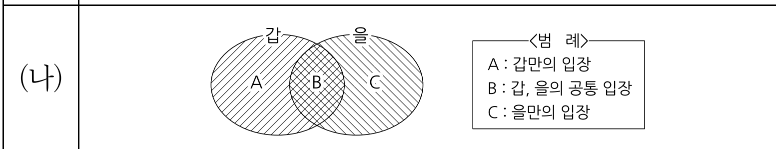
해설편 5쪽

6.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회생 불가능한 환자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환자가 요청한다면 연명 치료의 중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을 : 동의합니다. 연명 치료의 중단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뿐만 아니라 약물 주입과 같은 적극적 안락사로도 환자가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갑 : 아닙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도덕적인 행위이지만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를 살인하는 행위와 같으므로 비도덕적입니다.
> 을 :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고통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입니다. 적극적 안락사도 죽음을 앞당겨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행위입니다.

① 연명 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되는가?
② 적극적 안락사는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비도덕적 행위인가?
③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안락사 시행 방법이 존재하는가?
④ 회생 불가능한 환자는 연명 치료의 중단을 요청해야 하는가?
⑤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은 정당화 가능한가?

7.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원조의 의무는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원조를 해야 한다. 을 :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한다.
(나)	

〈보 기〉
ㄱ. A : 원조는 원조 대상뿐만 아니라 원조 주체의 이익도 증진해야 한다.
ㄴ. B : 자원 빈곤국을 모두 원조 대상국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ㄷ. B :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원조해야 한다.
ㄹ. C : 절대빈곤층의 처지 개선이 원조의 주된 목표는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성적 행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성적 행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 (나) 성적 행위는 인격 존중의 의무만 다한다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인격 존중의 의무는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와 해악 금지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이행된다.

① (가) : 성적 행위는 사적인 행위이므로 사회적 책임과 무관하다.
② (가) : 성적 행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③ (나) : 성적 행위가 합의로 이루어지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다.
④ (나) : 성적 행위에 대한 자유와 인격 존중의 의무는 상충한다.
⑤ (가)와 (나) : 성적 행위에서 인격 존중의 의무는 사랑이 동반된 관계에서만 요구된다.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 모든 사람은 취득과 이전, 교정의 원칙에 의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소유 권리는 과거의 상황이나 과거의 행위에 근거하므로 분배적 정의는 역사적 원리에 따라야 한다.
> 을 : 모든 사람은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재산과 소득의 분배가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보 기〉
ㄱ. 갑 :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는 분배적 정의에 위배된다.
ㄴ. 갑 : 취득과 이전의 원칙을 통해서만 재화가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ㄷ. 을 : 공정한 절차를 따르면 부의 균등한 분배가 보장된다.
ㄹ. 갑과 을 : 국가는 불의한 분배를 교정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이 자유 때문에 싸움을 피할 수 없다. 비참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로 계약을 맺음으로써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 을 :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최고 권력인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에 양도한다.

① 갑 : 공통 권력이 없는 곳에는 정의나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갑 : 군주는 사법권과 분쟁의 해결권을 갖지만 입법자는 아니다.
③ 을 : 개인의 재산 보존은 시민 사회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을 : 권력 분립에 의한 통치는 사회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갑과 을 :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는 정권 교체로 이어진다.



해설편 6~7쪽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1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쾌락의 산출과 고통의 회피는 개인은 물론이고 입법자가 살펴보아야 할 목적이다. 어떤 행위가 공동체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쾌락의 합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사 례>

> 국회의원 A는 딥페이크(deepfake)* 활용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딥페이크가 가짜 뉴스나 음란물 제작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다양한 창작 활동에 활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 * 딥페이크(deepfake) : 인공 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원본 이미지 위에 다른 이미지를 결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

① 도덕과 입법의 근거인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세요.
② 법안의 효용을 고려하기보다 의무 의식에 따라 결정하세요.
③ 기술이 가져올 해악이 아닌 이익만을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④ 기술의 활용 결과가 아닌 개발 동기를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⑤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사회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 훌륭한 목민관이 되려는 자는 어질어야 하고, 어질고 싶은 자는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고 싶은 자는 검소해야 하니 절용(節用)은 목민관의 첫 번째 의무이다.
> ○ 벼슬살이의 요체는 '두려워할 외(畏)' 한 자뿐이다. 의(義)를 두려워하고 법(法)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해야 한다. 마음에 두려움을 간직해야 방자하지 않게 된다.

① 공직자는 청렴이 본연의 덕이며 의무임을 알아야 한다.
② 공직자는 절용을 실천하기 위해 자기 절제에 힘써야 한다.
③ 공직자는 법을 지키며 백성을 편안하고 이롭게 해야 한다.
④ 공직자는 공무를 처리할 때 사욕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⑤ 공직자는 백성이 자신을 두려워하도록 위세를 앞세워야 한다.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영구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이어야 하며,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 을 : 진정한 평화는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는 상태이다.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은 물론이고,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① 갑 : 각 국가는 매매를 통해 다른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있다.
② 갑 : 어떤 경우에도 타국인을 적대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③ 을 : 직접적 폭력의 제거는 진정한 평화 실현의 전제 조건이다.
④ 을 : 물리적 폭력의 제거는 구조적 폭력이 제거되어야 실현된다.
⑤ 갑과 을 : 폭력이나 전쟁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14.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문화 산업의 위치가 확고해지면 확고해질수록 문화 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더욱더 능란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문화 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들어내고 조종하며 심지어는 소비자로부터 재미를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 산업의 생산물은 모든 사람을 일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휴식 시간에도 잡아 놓는 거대한 경제 체계의 일부입니다.

<보 기>

> ㄱ. 문화 산업은 소비자에게 능동적인 체험 활동을 보장한다.
> ㄴ. 문화 산업은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재생산하려 한다.
> ㄷ. 문화 산업의 대중매체는 소비자의 의식을 지배하려 한다.
> ㄹ. 문화 산업의 생산물은 대중이 활발하게 소비하도록 만든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우리는 동물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동물은 단지 수단일 뿐이다. 동물과 관련한 우리의 의무는 인간에 대한 간접적 의무에 불과하다. 을 :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종(種) 차별주의를 피하면서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을 도덕적 관심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병 : 우리는 유기체가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실현하려고 애쓰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 → A (예 → 갑의 입장 / 아니요 → B); B (예 → C / 아니요 → D); C (예 → 을의 입장); D (예 → 병의 입장) <범 례> 직사각형: 출발 조건, 마름모: 판단 내용, 화살표: 판단 방향, 물결 상자: 사상가의 입장

<보 기>

> ㄱ. A :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 ㄴ. B : 인간이 생명을 가진 존재를 차별하는 것은 잘못인가?
> ㄷ. C : 동물을 이용하는 인간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ㄹ. D : 개체가 고유의 선을 지녀야만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해설편 7쪽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품성적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본성에 반하여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습관을 통해 완성시킨다.
> 을 : 정언 명령은 어떤 행위를 그 자체로서, 다른 목적과 관계없이 필연적인 것으로 표상한다. 정언 명령만이 도덕 법칙으로서의 필연성을 가진다.

① 갑 : 덕에 따르는 삶을 위해 공동체의 전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② 갑 : 인간은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품성적 덕을 길러야 한다.
③ 을 : 의무에 맞는 모든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④ 을 : 이성적 존재는 스스로 도덕 법칙의 수립자가 되어야 한다.
⑤ 갑과 을 : 도덕적 행위를 하려면 자연적 경향성을 따라야 한다.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우리는 시민 불복종 행위를 통해서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신중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보 기>

ㄱ. 부정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법은 준수되어야 한다.
ㄴ. 시민 불복종은 비합법적인 정부에 대한 정당한 항거이다.
ㄷ.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준법의 의무와 부정의에 저항할 의무가 상충할 수 있다.
ㄹ.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의 시민들이 갖는 양심적인 신념들 간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들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예를 들면, 신의 현존에 의해서 정화된 장소나 사물에 머무르는 경우와 같이 직접 신들과 교류하는 신성성만의 것은 아니다. 신들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행했다. 그들은 세계와 우주적 현상의 구조 그 자체 안에서 다양한 성(聖)의 양태를 현현(顯現)한다.

① 성스러운 공간에는 성스러운 것의 출현이 결부되어 있다.
② 성스러움이 드러난 사물을 신 그 자체와 동일시해야 한다.
③ 성스러움을 가시적인 형태로 구현하는 것은 자연의 대상들이다.
④ 성스러운 세계에서만 종교적 인간은 참된 실존을 가질 수 있다.
⑤ 성스러운 세계와 세속은 분리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지 않다.

19. 다음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신문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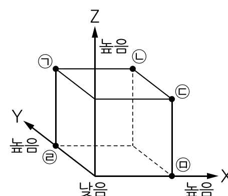
칼　럼

뉴 미디어 사회에서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근로자가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근무 시간 외 업무 연락으로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 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직장 동료 간의 원치 않는 온라인 친구 신청, 동의 없는 단체 대화방 초대 등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의 윤리 의식 함양과 함께 관련 법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①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직장에서의 의사소통 단절을 야기한다.
②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④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하다.
⑤ 고용주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 (가) 과학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면서 자신의 연구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야 한다.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므로 활용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 (나) 과학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면서도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활동이 인간 존엄성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 X : 과학자가 인류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
• Y : 과학자의 연구 활동이 사회적 책임과 무관함을 강조하는 정도
• Z : 과학 기술 활용에 대한 과학자의 윤리적 성찰을 강조하는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2024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회차별 동영상 강의



제 4 교시 | 성명 | 수험번호 -

3회	
시험 시간	30분
날짜	월 일
시작 시각	:
종료 시각	: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개인의 생활 및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의 인과 관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나) 윤리학은 타당한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생명, 정보,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도덕 문제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① (가) : 삶의 방향 정립을 위한 도덕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② (가) : 윤리학이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③ (나) : 도덕 명제를 구성하는 개념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④ (나) :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⑤ (가)와 (나) : 도덕 추론의 과정이 타당한지를 논증하는 것이다.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다.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이미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에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 을 : 중생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인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수행을 통해 삼독(三毒)을 끊어내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보 기>

ㄱ. 갑 :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ㄴ. 을 : 중생은 열반에 이르러야 다음 생의 행복을 보장받는다.
ㄷ. 을 : 불멸(不滅)을 갈망하는 인간에게는 생사가 반복된다.
ㄹ. 갑과 을 : 인간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국가는 국가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명령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한 국가를 다른 국가에 병합시킨다면, 그것은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국가의 지위를 파괴하는 것이며 국가를 물건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평화 연맹은 국가의 권력에 대한 어떤 지배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 연맹은 국가 자체의 자유를 지속시키고 보호하며,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다른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킬 뿐이다.

① 모든 국가는 이방인에 대한 환대권을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
② 국가 간 평화 조약으로 국제 사회의 영원한 평화가 보장된다.
③ 영구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전쟁도 허용되면 안 된다.
④ 국가 간 평화 보장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⑤ 국가의 주권은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 연맹에 양도되어야 한다.

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시민 불복종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한 형태이기에 은밀히 혹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 석상에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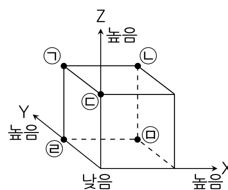
<보 기>

ㄱ. 시민 불복종은 항의의 대상이 되는 법을 위반할 때만 정당화된다.
ㄴ.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위해 시민 불복종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ㄷ. 정의의 원칙과 일치하는 종교적 신념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ㄹ. 시민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한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5.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 (가)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해소되어야 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경제적 이익의 증진이다. 분단으로 인한 전쟁 위험은 남북한 주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모적인 군사비 지출과 같은 문제가 분단의 더욱 큰 폐해다. 따라서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경제적 번영이다.
> (나)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해소되어야 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적극적 평화의 실현이다. 분단으로 인한 전쟁 위험은 남북한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한 주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구조적 폭력이 지속되는 것이 분단의 더욱 큰 폐해다. 따라서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내 모든 폭력의 제거다.



• X : 통일의 필요로 경제적 측면의 이익을 강조하는 정도
• Y : 통일의 이유로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는 정도
• Z : 통일의 최종 목표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강조하는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해설편 9쪽

6. 갑, 을 사상가들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옳음으로 말미암아 그릇됨이 있고, 그릇됨으로 말미암아 옳음이 있다. 성인(聖人)은 이쪽과 저쪽의 구분에 의거하지 않고 하늘[天]에 비추어 생각한다.
> 을 : 군자(君子)가 인(仁)을 떠나면 어찌 군자라는 이름을 이룰 수 있겠는가. 군자는 밥을 먹는 동안에도 인을 떠남이 없으니, 다급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인에 머문다.

① 마음의 수양을 통해 도(道)를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가?
②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무위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③ 차별 없는 사랑[兼愛]을 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가?
④ 시비선악을 분별하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가?
⑤ 성인이 제정한 예를 바탕으로 만물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는가?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르면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냐가 원조의 의무에 결정적인 차이점을 만들어 낸다는 견해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 을 :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원조의 목적이 달성되면, 정의로운 제도들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요구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보 기>

ㄱ. 갑 : 국내 부조가 해외 원조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ㄴ. 을 : 해외 원조의 목적 달성은 원조 대상국의 기근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ㄷ. 을 : 질서 정연한 사회를 규제하는 모든 정의 원칙을 해외 원조에 적용해야 한다.
ㄹ. 갑과 을 : 해외 원조는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담론 윤리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담론 과정에 적절하게 기여하는 한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참여자는 담론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는다. 또한, 의사소통은 외적 강제와 내적 강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① 담론을 거쳐 도출된 결론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허용될 수 없다.
② 담론의 과정에서 참여자는 사적인 욕구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
③ 담론 참여자는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 타당한 규범에 도달한다.
④ 담론을 통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만 강제력이 요청된다.
⑤ 담론 참여자는 상호 주관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9.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나는 성적 쾌락 추구 그 자체가 성적 관계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성숙한 성인(成人)들이 상호 동의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러한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으로 결합된 부부 사이에서 출산과 양육을 목적으로 한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고 생각한다.

① 쾌락을 위한 성적 관계는 도덕적 평가 대상이 아님을 간과한다
② 자발적 성적 관계에는 어떤 책임도 부과되지 않음을 간과한다
③ 생식적 가치 존중 없이 성적 관계 정당화가 가능함을 간과한다
④ 성적 관계의 정당화에 인격적 가치 존중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⑤ 사랑하는 사이의 성적 관계도 비도덕적일 수 있음을 간과한다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동물에 관한 한, 우리는 직접적 의무가 없다. 동물과 관련한 우리의 의무는 단지 인간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일 따름이다. 을 :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면 어떤 존재도 다른 존재보다 더 가치 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동식물의 선의 실현도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간주된다. 병 : 삶의 주체에는 단순히 의식을 갖는다는 것 이상이 포함된다. 삶의 주체는 동등한 본래적 가치를 지니며 존중의 태도로 처우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나)	갑, 을, 병 / A, B, C, D <범 례> A : 갑만의 입장 B :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C :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D :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보 기>

ㄱ. A :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라면 도덕 행위자로 간주해야 한다.
ㄴ. B :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C :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하여 가치를 지닌 존재의 이용은 해악보다 이익이 크다면 정당화된다.
ㄹ. D :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만이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해설편 10쪽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1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전통 윤리학의 모든 도덕적 명령은 행위의 직접적인 영역에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대 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의 규모와 대상 및 결과는 너무 새로운 것이기에 전통 윤리의 틀로는 더 이상 파악할 수 없다. 우리의 행위가 가지는 새로운 종류의 본성은 새로운 책임 윤리를 요청한다.

① 현세대는 인류가 미래에도 존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과학 기술에 대한 공포는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축소시킨다.
③ 현세대에게는 미래 세대에 대한 일방적인 윤리적 책임이 있다.
④ 인간이 책임져야 할 대상에는 비이성적 존재가 포함될 수 있다.
⑤ 인간의 책임질 수 있는 능력에서 책임져야 할 의무가 비롯된다.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성적인 존재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성적인 존재를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
>
> 〈문제 상황〉
>
> 고등학생 A는 세뱃돈으로 무선 이어폰을 동생에게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킬지, 평소 후원하는 단체로부터 받은 감사 편지에 감동하여 추가로 기부할지 고민 중이다.

①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를 동기로 삼아 행위하세요.
② 어떤 대안이 최선의 결과를 낳을지를 계산하여 행위하세요.
③ 자신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위하세요.
④ 지적인 덕과 품성적 덕을 갖춘 사람을 본받아서 행위하세요.
⑤ 자신의 선택에 따른 쾌락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행위하세요.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 : 우리 각자는 공동으로 자신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에 둔다. 그리고 우리는 단체로서 각 구성원을 전체의 분리 불가능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 을 : 자연 상태는 비교적 평화로우나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없는 상태다. 이 상태에서 각자가 모두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공동체에게 신탁하는 곳에서만 정치 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 보 기 >

ㄱ. 갑 : 일반 의지는 언제나 올바르며 공공의 선을 지향한다.
ㄴ. 을 : 재산에 대한 권리는 사회 계약에 의해서만 형성된다.
ㄷ. 갑과 을 : 계약 참여자들의 만장일치의 동의로 사회 계약이 성립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대인(大人)의 일이 있고 소인(小人)의 일이 있습니다. 남에게 다스려지는 자는 남을 먹여주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게 얻어 먹는 것이 천하의 공통된 의리[義]입니다.

을: 사람마다 국가 안에서 자신의 천성에 가장 어울리는 한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국가의 세 계층이 자신의 일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정의(正義)입니다.

① 갑 : 대인과 소인은 모두 생산을 위한 육체노동에 힘써야 한다.
② 갑 : 통치자와 백성의 직분은 구분이 되면서도 상호 보완적이다.
③ 을 :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수호자의 재산 축적을 허용해야 한다.
④ 을 : 계층 간 역할 교환을 바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⑤ 갑과 을 :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직무가 주어질 때 정의로운 국가가 완성된다.

15.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평등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증진시킨다. 이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을 : 소유권적 정의론에서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 이전, 시정의 원리에 의해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각 개인의 소유물이 정당하다면 소유물의 전체 집합도 정당하다.
(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A —(예)→ B —(예)→ 갑의 입장; A —(아니요)→ C —(예)→ 을의 입장 〈범 례〉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 보 기 >

ㄱ. A :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최우선의 분배 원칙이 되어야 하는가?
ㄴ. B :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은 타인의 복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ㄷ. B : 정의의 원칙을 채택할 때 공정한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가?
ㄹ. C : 자유롭게 이전받은 배타적 소유권도 제한될 수 있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좋은 리듬은 좋은 품성을 갖게 한다. 반면에 나쁜 리듬은 나쁜 성격을 닮게 한다. 쾌락을 담아낸 예술 작품 속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나쁜 것을 형성한다.
> 을 : 예술가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예술가는 윤리적 동정심을 갖지 않는다. 예술가에게 윤리적 동정심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매너리즘이다.

① 갑 : 미를 추구하는 예술 활동은 선의 추구를 지향해야 한다.
② 갑 : 예술가의 자유를 보장할수록 예술을 통해 선이 증진된다.
③ 을 : 도덕적 삶은 예술가가 다루는 소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④ 을 : 예술 활동에서의 도덕성 추구는 작품의 독창성을 저해한다.
⑤ 갑과 을 : 예술은 작품을 통해 도덕적 본보기를 제공해야 한다.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 사회 계약의 산물인 법은 오로지 '최대 다수가 공유하는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해야 한다. 사형은 잔혹한 형벌로 공공의 선에 유용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 을 : 사회 계약에 사형이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은 법의 왜곡이다. 살인했거나 살인에 참여했던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응보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정할 수 있다.

<보 기>

ㄱ. 갑 : 형벌의 목적은 시민의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ㄴ. 갑 : 종신 노역형은 시민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집행되어야 한다.
ㄷ. 을 : 사형은 살인범의 범죄 행위에 대해 보복하는 것이다.
ㄹ. 갑과 을 : 형벌로 인한 공익이 형벌의 해악보다 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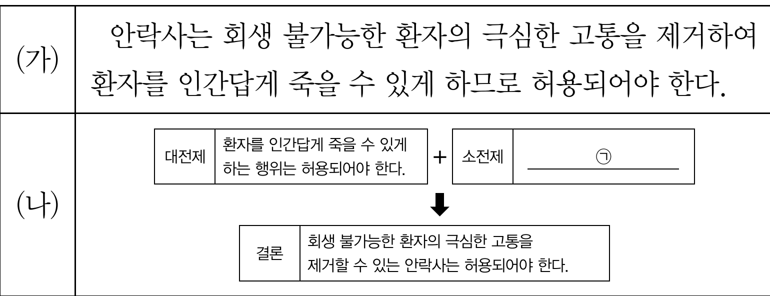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8.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여가는 문화 산업이 제공하는 획일적 생산물로 채워집니다. 소비자의 욕구는 문화 산업에 의해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문화 산업은 무미건조한 행복을 흥미있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며, 대중이 즐긴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소비자가 자신들에게 제공된 것을 받아들이도록 묶어 놓습니다. 오늘날 문화 산업은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재생산하려 듭니다.

① 문화 산업은 대중이 주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② 문화 산업은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 노력한다.
③ 문화 산업은 고유성을 지닌 상품 생산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④ 문화 산업은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의 욕구에 기반해 확산된다.
⑤ 문화 산업은 체제의 지배 이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19.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안락사는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제거하여 환자를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게 하므로 허용되어야 한다.
(나)	

① 안락사는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허용될 수 있다.
② 안락사는 환자가 지닌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행위이다.
③ 안락사는 환자의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④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⑤ 안락사는 환자가 가진 생명권을 침해하는 인위적 죽음이다.

20.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글쓰기 수행 평가를 채점하는 인공 지능 교사(AI 교사) 도입에 대해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자동화된 채점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을 : 효율성 차원에서는 AI 교사 도입을 찬성하지만, 채점의 공정성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알고리즘으로 채점하느냐에 따라 채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갑 : 아닙니다. AI 교사는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점 알고리즘을 채택해 적용하므로 채점의 공정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채점 알고리즘 적용으로 글쓰기가 다양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을 : AI 교사의 도입으로 평가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평가 기준 자체가 편향적이어서 공정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특정 알고리즘에 대비하다 보면 글쓰기가 정형화되면서 다양한 글쓰기가 위축됩니다.

① AI 교사는 일률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② AI 교사 도입은 채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③ AI 교사 도입은 학생들의 글쓰기에 영향을 끼치는가?
④ AI 교사 도입으로 수행 평가 채점 시간이 줄어드는가?
⑤ AI 교사 도입에 있어 효율성은 고려되어야 할 조건인가?

> ※ **확인 사항**
>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해설편 12쪽

2022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4회	
시험 시간	30분
날짜	월 일
시작 시각	:
종료 시각	:

회차별 동영상 강의



26re-4

제 4 교시 | 성명 | 수험번호 | – |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나는 윤리학이 도덕 판단의 기준과 도덕적 행위의 이론적 근거를 탐구하고 도덕규범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부 윤리학자들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탐구하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을 윤리학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주장은 윤리학이 [㉠]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① 도덕 판단의 논리적인 구조를 분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② 도덕적 명제의 진위에 대한 검증 가능성을 탐구해야 한다
③ 선악 판단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④ 도덕적 관습에 대한 인과적 서술을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
⑤ 도덕규범을 가치 판단이 배제된 경험적 사실로 간주해야 한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인간이 상대방의 성(性)을 향유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 주는 행위는 자신을 사물로 만드는 것이지만, 오직 혼인이라는 조건하에서 남녀는 서로의 인격성을 상실하지 않고 성을 향유할 수 있다. 혼인은 출산을 위한 것만은 아니며, 남녀가 쾌락을 전제로 성을 향유하고자 하더라도 반드시 혼인해야 한다.

① 사랑이 전제된 혼인 전의 성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② 부부 사이라도 성관계를 통해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③ 인격성을 훼손하지 않는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④ 성관계를 통한 생식적 가치의 추구는 혼인의 유일한 목적이다.
⑤ 모든 성관계는 상대방을 대상화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 ○○○○년 ○○월 ○○일
>
> **칼 럼**
>
> 최근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3차원적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Metaverse)가 각광받고 있다. 메타버스는 기존의 SNS 및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생태계를 대체하며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메타버스에서는 사이버 폭력, 사생활 침해와 같은 윤리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양심과 도덕성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메타버스를 윤리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들은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① 메타버스를 통해 얻게 될 경제적 효용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
② 메타버스에서는 현실과 달리 모든 개인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③ 메타버스의 등장은 기존 온라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메타버스에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⑤ 메타버스를 윤리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

4. 그림은 갑, 을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갑 : 외교 정책의 성패는 국익 증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ㄴ. 을 : 영구 평화의 확립을 인류의 보편적 의무로 수용해야 한다.
ㄷ. 을 : 국제 연맹은 주권적 권력을 지닌 세계 정부로 기능해야 한다.
ㄹ. 갑, 을 :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영구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도(道)의 입장에서 보면 사물에는 귀천(貴賤)의 구별이 없다. 그러나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면 귀천의 구별은 자기가 아니라 남에 의해 정해진다. 귀천을 구별해야겠다는 생각에 구속되지 말아야 하며, 만약 구속된다면 도에 크게 어긋나고 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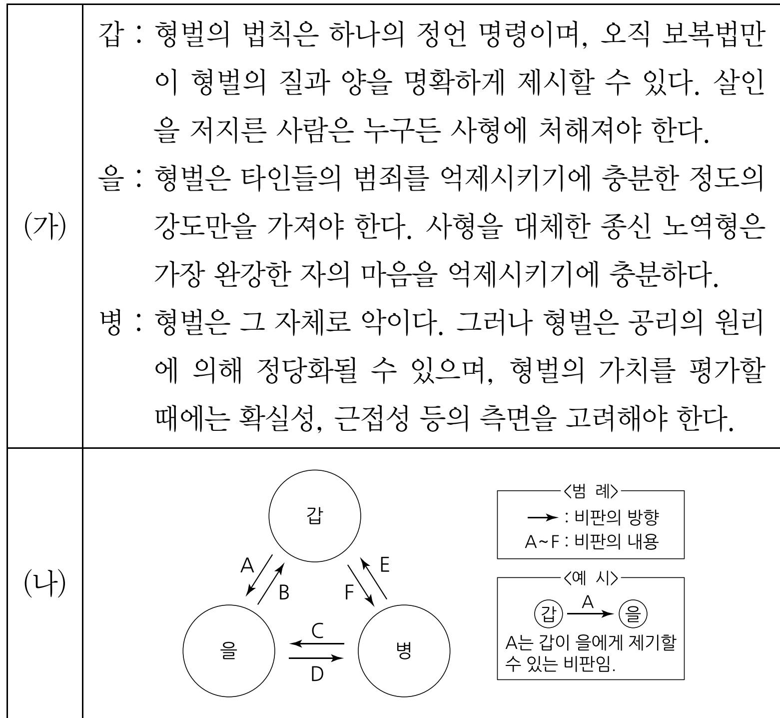
<사 례>

> 취업을 준비하는 A는 면접에서 여러 번 떨어지게 되었다. 취업하는 데 외모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A는 성형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①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美)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세요.
② 연기(緣起)의 깨달음을 통해 외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세요.
③ 외모를 가꾸기보다 인의(仁義)의 덕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세요.
④ 외모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자연의 순리에 부합함을 명심하세요.
⑤ 미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세요.

해설편 13쪽

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며,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을 :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은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하다. 병 :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다. 그러나 형벌은 공리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으며, 형벌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확실성, 근접성 등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나)	(그림)

① A : 형벌은 응보가 아닌 다른 선을 촉진하는 수단임을 간과한다.
② B, E : 인간은 자신의 생명권을 국가에게 양도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③ C :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에서 발생함을 간과한다.
④ D : 형벌의 크기는 범죄로 이끄는 유혹에 비례해야 함을 간과한다.
⑤ F : 모든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7.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달로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이 가능해졌습니다. 치료 목적의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을 통해 유전 질환을 치료하여 인류의 행복을 증진해야 합니다.
> 을 : 동의합니다. 다만 치료가 아닌 강화 목적의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은 미래 세대에게 부모가 원하는 유전 형질에 따라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야 합니다.
> 갑 : 아닙니다. 미래 세대는 살아가는 동안 강화된 유전 형질로 인해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 을 : 강화된 유전 형질로 미래 세대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라도 이러한 삶은 부모에 의해 계획된 삶일 뿐입니다. 이는 미래 세대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①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은 유전 형질의 변화를 초래하는가?
② 강화 목적의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③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하여 유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가?
④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가?
⑤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는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이 존재하는가?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정치 문화를 변경하여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한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기 위한 결정적 요소는 그 사회의 자원 수준이 아닌 정치 문화이다.
> 을 : 원조의 목적은 민족, 국가, 인종을 초월하여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 주는 것이다.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시키지 않고 절대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

① 갑 : 원조 대상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강제력의 사용은 정의롭다.
② 갑 : 천연자원이 부족한 빈곤국이라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을 : 원조는 원조 결과와 무관하게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이다.
④ 을 : 지리적 근접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원조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⑤ 갑, 을 : 원조를 통해 모든 국가의 복지 수준을 일치시켜야 한다.

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이상적 담화 상황은 담론장에 외적인 우연적 요소들이 개입되거나 담론 참여자가 어떤 유형의 강요도 받지 않으며 자유롭고 평등한 담론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담화 상황을 위해서는 출입의 공공성, 평등한 권한, 표현 행위의 진실성, 입장 표명의 비강제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담론 참여자는 오직 보다 나은 논증을 통해서만 자신의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

<보 기>

ㄱ. 담론 참여자 중 대다수가 동의한 규범이 타당성을 지닌다.
ㄴ. 담론 주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도 담론에 참여할 수 있다.
ㄷ.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이익이나 욕구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
ㄹ. 담론 과정에서 타인의 주장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보는 사고는 우리를 기술의 본질에 대해 맹목적이게 만들고,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 을 : 기술은 수단으로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기술은 일종의 공허한 힘이며, 중요한 것은 인간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기술을 통해 인간이 어떤 존재로 드러나는가이다.

<보 기>

ㄱ. 갑 : 기술의 본질을 삶에 유용한 도구로만 규정해야 한다.
ㄴ. 갑 :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강조할 때 인간은 기술에 종속된다.
ㄷ. 을 : 기술 자체를 윤리적 평가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ㄹ. 갑, 을 : 기술의 활용이 가져올 영향을 반성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편 **14쪽**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1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대지는 토양과 식물, 동물을 통해 흐르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샘이다. 대지 윤리는 인간과 대지 그리고 그 위에서 살아가는 동식물과의 관계를 다룬다. 을 :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 유지하는 지속적인 경향이 있으며 목표 지향적으로 활동한다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병 : 생명이 없는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덕성을 촉진하는 인간의 감정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나)	갑, 을, 병 / A, B, C, D <범 례> A : 갑만의 입장 B :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C :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D :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보 기>

ㄱ. A : 인간은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ㄴ. B : 이성의 유무는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ㄷ. C : 인간은 무생물과 관련해서는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ㄹ. D :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도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다양한 문화의 존중은 사회 결속으로 이어진다. 소수 집단의 문화 존중을 위해서는 소수 집단에 차별화된 권리를 부여해 기존의 사회 집단과 소수 집단 간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구성원 간 평등한 관계 형성 및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나) 단일한 문화의 형성은 사회 결속을 강화한다. 소수 집단의 문화 존중을 이유로 소수 집단에 차별화된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은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 따라서 소수 집단은 그들의 문화를 포기하고 기존 사회의 문화로 편입되어야 한다.

Z 높음, Y 높음, X, 낮음, 높음, ㉠, ㉡, ㉢, ㉣, ㉤

X : 소수 집단에 대한 우대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정도
Y : 소수 집단의 문화가 기존 사회의 문화로 동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
Z : 소수 집단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사회 결속 강화에 기여함을 강조하는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므로, 어떤 인간도 자신의 동의 없이 자연 상태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정치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시민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도는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입장 \ 학생	갑	을	병	정	무
국가는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에 기반해야 평화적으로 수립된다.	√			√	√
국가는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받아 구성원 간의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		√		√	√
국가는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다.		√	√	√	
국가는 외부인이 그 구성원에게 가한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삶과 죽음의 번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무명(無明)에 덮여 윤회하면서도 괴로움의 근거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바른 지혜를 얻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을 스스로 안다.
을 : 기(氣)가 모이면 태어나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다. 자연은 삶을 주어 우리를 수고롭게 만들고 죽음으로써 쉬게 하니,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면 슬픔이나 즐거움이 끼어들 수 없다.

① 갑 : 삶과 죽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무명에 도달해야 한다.
② 갑 : 고통 없는 삶으로 윤회하기 위해 만물의 실상을 자각해야 한다.
③ 을 : 삶과 죽음은 분별할 수 없는 자연적 과정임을 깨달아야 한다.
④ 을 : 기의 변화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삶과 죽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⑤ 갑, 을 :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애도해야 한다.

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갑 :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당사자들이 합의한 정의의 원칙 중 차등의 원칙은 호혜성 관념을 포함한다. 개인 간의 차이, 재능의 다양성, 주어진 재능 성취 수준의 차이는 상호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을 : 현재의 모든 분배 상황이 취득, 이전의 정의 원리에 의해 생성된 것은 아니다. 만약 과거의 불의(不義)가 현재의 소유 상태를 여러 방식으로 형성했다면 우리는 소유물에서의 불의를 교정해야 한다.

① 갑 : 자연적 재능의 불평등한 분포는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
② 갑 :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 정당하다.
③ 을 : 노동을 통해 획득한 소유물이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을 : 개인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
⑤ 갑, 을 : 공정한 절차를 따름으로써 정의로운 분배가 실현될 수 있다.

해설편 15쪽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공리성의 원리는 자기 이익이 걸려 있는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서 각각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이다. 이러한 각각의 행위란 개인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 포함한다.
> 을 : 도덕 법칙은 가장 완전한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신성의 법칙이지만,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의무의 법칙이자 도덕적 강요의 법칙이다. 도덕 법칙은 법칙에 대한 존경을 통해 이성적 존재자의 행위를 규정한다.

① 갑 : 공동체의 이익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과 무관하다.
② 갑 : 행위의 옳고 그름은 결과보다 동기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③ 을 : 행위자의 성품을 기준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해야 한다.
④ 을 : 의무 의식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위도 도덕적 행위일 수 있다.
⑤ 갑, 을 : 윤리적 의사 결정에 적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

17. 갑 사상가는 부정, 을 사상가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어떤 예술가도 윤리적 동정심을 지니지 않는다. 예술가가 윤리적 동정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예술가는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다. 예술가에게 사고와 언어는 예술의 도구이며, 악덕과 미덕은 예술의 재료이다.
> 을 : 훌륭한 예술 작품은 몸에 건강을 안겨 주는 바람처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준다. 또한 훌륭한 예술 작품은 젊은이들이 어릴 적부터 그것을 대하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것과 친해지고 선한 것과 닮아가도록 이끌어 준다.

① 예술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정신 활동인가?
② 예술은 오직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③ 예술은 도덕적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④ 예술은 사회 구성원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해야 하는가?
⑤ 예술은 인간의 도덕적 삶을 작품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가?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갑 :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정치적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의 다수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 을 :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를 해결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 실패했을 때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하지만 시민 불복종을 결정할 때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법과 민주주의에 가할 해악 정도를 저울질해야 한다.

① 갑 : 시민 불복종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청원 행위이다.
② 갑 :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도덕 원칙에 근거한 정의로운 행위이다.
③ 을 : 시민 불복종의 결과가 가져올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야 한다.
④ 을 :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한 효과적 행위일 수 있다.
⑤ 갑, 을 :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의 원칙을 존중하며 시행되어야 한다.

19.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먹는 행위는 도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ㄴ. 먹는 행위를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야 한다.
ㄷ. 먹는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ㄹ. 먹는 행위는 인간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 갑, 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 대인(大人)의 일이 따로 있고, 소인(小人)의 일이 따로 있는 법이다. 군주는 백성들에게 일정한 생업[恒産]을 마련해 주어 반드시 위로 부모를 충분히 봉양할 수 있도록 하고, 아래로 처자식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을 : 선왕(先王)은 혼란을 싫어해 예의(禮義)를 만듦으로써 등급을 나누어 천자(天子)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게 하였다. 군주는 바른 정치를 위해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보 기>

ㄱ. 사회적 역할의 분담은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ㄴ. 백성의 경제적 안정에 힘쓰는 것이 통치자의 역할이다.
ㄷ. 정신노동을 담당하는 사람은 육체노동에도 탁월해야 한다.
ㄹ. 사회적 역할은 능력보다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 확인 사항
>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해설편 16쪽

2023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회차별 동영상 강의



26re-5

5회	
시험 시간	30분
날짜	월 일
시작 시각	:
종료 시각	:

제 4 교시 | 성명 | 수험번호 –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윤리학은 도덕적인 논의에 사용되는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윤리학자는 윤리학이 실제 삶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덕 원리를 응용하여 구체적인 행위의 지침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주장은 윤리학이 [㉠]고 생각한다.

① 진화의 측면에서 도덕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해야 함을 간과한다
② 도덕 현상의 객관적인 서술을 주된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간과한다
③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도덕규범을 연구해야 함을 간과한다
④ 도덕적 행위를 위한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제시해야 함을 간과한다
⑤ 도덕 명제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간과한다

2.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성(性)은 본질적으로 즐거움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다. 성은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해악 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이루어지는 즐거운 경험이다.
> 을 : 성의 자연적 목적은 출산이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의 승인을 거쳐서 출산을 의도하여 행하는 성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① 갑 : 성의 쾌락적인 욕구보다 생식적인 욕구가 중시되어야 한다.
② 갑 : 성은 어떠한 도덕적 제약 없이 자유 의지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③ 을 :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남녀 사이의 성은 언제나 도덕적이다.
④ 을 : 혼전 성은 출산이 전제되더라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⑤ 갑과 을 :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이 도덕적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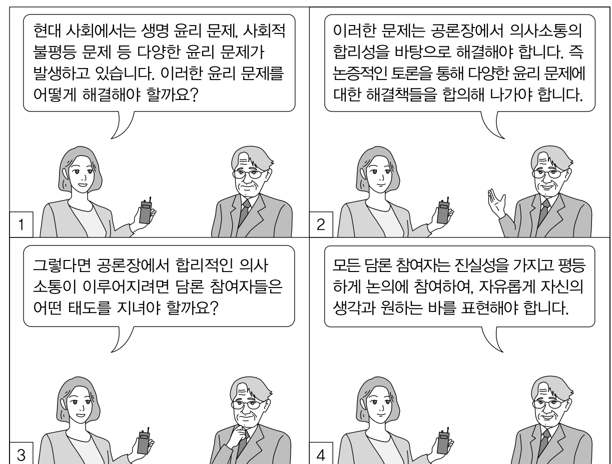
> 시민 불복종은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는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 그 대신 시민 불복종은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려 있는,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의거하게 된다.

<보 기>

ㄱ.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이다.
ㄴ. 시민 불복종은 그 자체로 입헌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ㄷ. 헌법을 규제하는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ㄹ. 종교적 교설은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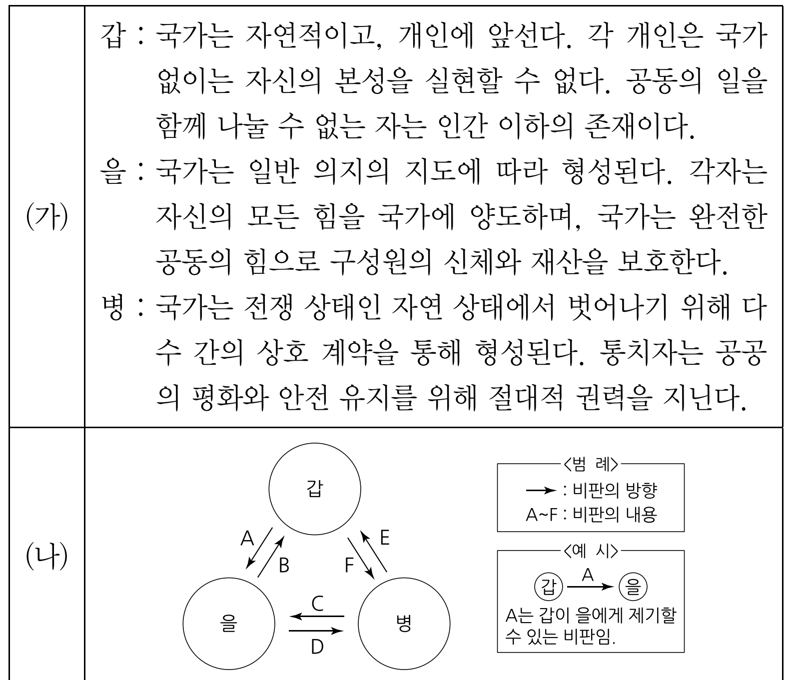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다음 가상 대담의 사상가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발휘해야 한다.
② 담론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자신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③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고 상대방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④ 논증적인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⑤ 합의를 위해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은 말하지 않아야 한다.

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 국가는 자연적이고, 개인에 앞선다. 각 개인은 국가 없이는 자신의 본성을 실현할 수 없다. 공동의 일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자는 인간 이하의 존재이다. 을 : 국가는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라 형성된다. 각자는 자신의 모든 힘을 국가에 양도하며, 국가는 완전한 공동의 힘으로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한다. 병 : 국가는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수 간의 상호 계약을 통해 형성된다. 통치자는 공공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절대적 권력을 지닌다.
(나)	

① A :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간과한다.
② B, E : 국가 안에서만 구성원들은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③ C :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도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가짐을 간과한다.
④ D : 입법권은 통치자만이 아닌 모든 구성원에게 있음을 간과한다.
⑤ F : 국가 권위에 복종할 의무는 자연적으로 발생되지 않음을 간과한다.

5회 2023 4월 학력평가

해설편 17쪽

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탈은폐의 방식에 완전히 제압된 현대 기술은 자연에게 에너지를 내놓으라고 무리하게 닦달한다. 그리하여 자연은 현대 기술에 의해 쓸모 있는 부품으로 환원된다. 인간은 현대 기술로부터 자연에 숨겨져 있는 에너지를 채굴하여 변형시키고 저장하라는 도발적 요청을 받고 있으며, 그렇게 주문받는 대로 행동하여 현대 기술의 근원적인 부품으로 전락한다. 인간이 현대 기술의 종속에서 벗어나려면 기술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보 기>

ㄱ. 인간은 현대 기술의 부품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
ㄴ. 인간은 현대 기술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가?
ㄷ. 현대 기술은 인간이 성찰해야 할 가치판단의 대상인가?
ㄹ. 현대 기술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자연을 은폐시키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군자(君子)가 남들과 다른 까닭은 인(仁)과 예(禮)로써 타고난 선한 마음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을 기르는 방법으로 욕망을 적게 하는 것[寡欲]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 을 : 가장 훌륭한 덕은 물과 같다[上善若水]. 물은 만물을 이롭게만 하지 다투지 않고, 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물과 같은 이런 덕(德)을 가진 사람을 성인(聖人)이라고 한다.

① 갑 : 사단(四端)을 확충하여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② 갑 : 군자가 되기 위해서 사욕(私欲)을 극복해야 한다.
③ 을 : 다수의 관점에 따라서 시비(是非)를 가려야 한다.
④ 을 : 분별적 지식을 쌓아 부쟁(不爭)의 덕을 길러야 한다.
⑤ 갑과 을 : 이상적 인간이 되려면 예법(禮法)을 익혀야 한다.

8. 갑, 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 죽음은 중생들이 되풀이하며 받은 몸에 온기가 없어지고 오온(五蘊)이 흩어지는 것이다. 누구든 죽고 나면 나쁜 업(業)을 지은 존재는 지옥에 떨어지고 선을 행한 존재는 천상에 오르며 도(道)를 닦아 익힌 존재는 번뇌가 다해 열반에 든다.
> 을 :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모두 감각에 달려 있지만, 원자들로 구성된 영혼이 죽음에 의해 흩어지면 감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우리에게 불멸에 대한 갈망을 제거해 준다.

<보 기>

ㄱ. 죽음이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ㄴ. 죽음으로 인해 인간을 구성하고 있던 요소들이 해체된다.
ㄷ. 죽음은 경험 가능한 고통이므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ㄹ. 죽음 이후에 모든 존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필연적 현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합리적인 존재는 도덕적 지위를 지니므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합리적인 존재를 실제적으로 합리적인 존재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태아는 잠재적으로 합리적인 존재이므로 인공 임신 중절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합리적인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지니므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합리적인 존재를 실제적으로 합리적인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태아는 잠재적으로 합리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인공 임신 중절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갑
을

<보 기>

ㄱ. 갑 : 여성의 인공 임신 중절 권리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
ㄴ. 갑 : 태아의 생명권과 성인의 생명권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ㄷ. 을 : 잠재적으로 합리적인 존재인 태아는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ㄹ. 갑과 을 :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인간은 장기간 반복되는 지루함과 비참함을 이겨낼 만한 탄력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구경꾼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 준다.
을 : 사형을 당하는 자는 시민이 아니라 적으로서 죽는다. 그는 스스로 사회 계약을 파기했으므로 국가 구성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소송과 재판으로 입증되고 선고된다.
병 : 재판관의 사형 선고는 엄격한 보복법에 따라 내려진다. 살인을 했거나 그것을 명했거나 그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
A
아니요
예
B
아니요
예
C
D
예
예
갑의 입장
을의 입장
병의 입장
〈범 례〉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사상가의 입장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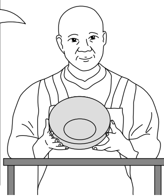
ㄱ. A : 국가가 사형제를 채택하는 것은 공적 정의에 부합하는가?
ㄴ. B : 사형은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행해져야 하는가?
ㄷ. C : 살인범은 국가에서 추방되거나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가?
ㄹ. D : 살인을 직접 저지른 사람만이 사형 선고의 대상이 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해설편 18～19쪽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11.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음식을 먹는 행위를 통해 평등함을 실천할 수 있다.
② 음식을 먹으며 생존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③ 음식을 통해 만물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④ 음식을 남기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⑤ 음식을 먹는 행위로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수행을 할 수 있다.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갑 :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실현된 국가는 부(富) 및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한다. 이것은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된 정의의 두 원칙을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 을 : 최소 국가는 정당화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국가이다. 이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는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따라서 국가는 시민들에게 특정한 선(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① 갑 : 재능과 동기가 유사하다면 성공의 전망도 유사해야 한다.
② 갑 :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원칙에 합의한다.
③ 을 : 부정의 교정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
④ 을 : 사회에 유용한 정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분배는 부정의하다.
⑤ 갑과 을 : 국가는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 종교적 인간은 그가 처해 있는 역사적 맥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이 세계를 초월한다. 동시에 이 세계 안에는 성스러운 것, 즉 절대적 실재가 있다고 항상 믿는다. 반면에 비종교적 인간은 자신만이 유일한 역사의 주체이며 행위자라고 간주하며, 초월적인 모든 것을 거부한다. 그럼에도 비종교적 인간의 대부분은 비록 의식하지는 못하더라도 여전히 종교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입장 \ 학생	갑	을	병	정	무
종교적 인간은 세계 그 자체를 성(聖)으로 간주한다.	✓	✓		✓	
종교적 인간에게 어떤 사물은 성현(聖顯)이 될 수 있다.	✓		✓		✓
비종교적 인간은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날 때 자유롭다고 믿는다.			✓	✓	✓
비종교적 인간이라도 종교적 의례나 신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4. 갑, 을 사상가들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 : 성향상 장인(匠人)인 사람이 우쭐해져서 전사의 부류로 이행하려 들거나, 혹은 전사들 중의 어떤 이들이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숙의 결정하며 수호하는 부류로 이행하려 든다면 이들의 참견은 나라에 파멸을 가져다 준다.
> 을 : 한 사람의 몸으로 여러 장인이 하는 일을 고루 갖추어 반드시 자신이 모든 물건을 스스로 만든 다음에야 이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모두 길바닥으로 내앉게 만드는 일이다. 대인(大人)의 일이 있고 소인(小人)의 일이 있다.

<보 기>

ㄱ. 나라가 올바르게 다스려지려면 통치자에게 덕이 요구되는가?
ㄴ. 계층 간의 자유로운 역할 교환은 공동체 발전을 저해하는가?
ㄷ. 장인의 재산 소유가 금지될 때 정치에서의 이상이 실현되는가?
ㄹ. 사회적 직분은 개인의 능력과 선택을 존중해 정해져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E에 해당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 무생물이나 동물에 대한 파괴는 인간의 의무와 대립한다. 그런 행위는 도덕성을 촉진하는 인간 안의 감정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을 : 인간은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타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감각이 유일하게 옹호 가능한 경계선이다. 병 : 모든 생명체는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이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나)	갑, 을, 병 / A, B, C, D, E < 범 례 > A : 갑만의 입장 B : 을만의 입장 C : 병만의 입장 D :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E :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① A :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어떤 존재에 대한 의무도 가질 수 없다.
② B : 도덕적 행위 주체가 아닌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③ C : 감각 능력이 없는 개체들은 도덕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없다.
④ D :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동물을 활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⑤ E :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닌 존재는 어떠한 가치도 지닐 수 없다.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16. 다음 학급 게시 자료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학급 게시 자료 　　　　　　　　　　　　　　　　　　정보 윤리 교육
>
> 추천 알고리즘의 두 얼굴, 편리와 편향
>
> 최근 SNS나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추천 알고리즘이 널리 쓰이고 있다. 추천 알고리즘은 데이터에 근거해 개인의 성향을 반영한 정보를 위주로 다양한 정보들을 추천해 준다. 이러한 추천 알고리즘은 검색의 수고를 덜어 주고 생활에 편리를 더해 준다. 하지만 추천 알고리즘은 개인의 성향에 부합하는 정보를 주로 접하게 하여 정보 수용자를 편향된 정보 속에 갇히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정보 수용자가 편향된 정보 속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　　㉠　　]

① 자신의 성향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배제해야 한다.
② 추천된 모든 정보가 객관적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③ 자신에게 편리를 주지 않는 정보를 전적으로 무시해야 한다.
④ 매체 이용을 금지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를 차단해야 한다.
⑤ 비판적 사고능력을 길러 다양한 정보를 올바르게 평가해야 한다.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영구 평화를 위해 침략 전쟁의 유발 요인을 없애야 한다. 이성이 평화 상태를 직접적 의무로 만든다 해도 국가 간 계약 없이는 어떤 평화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평화 연맹이 필요하다.
> 을 :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이며, 적극적 평화는 구조적 ·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이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예방하고 제거해야 한다.

① 갑 : 상비군의 점진적인 확대는 영구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② 갑 : 개별 국가가 평화 연맹에 소속되려면 주권을 포기해야 한다.
③ 을 : 진정한 평화의 구축을 위해 폭력적인 수단도 허용되어야 한다.
④ 을 : 의도적인 폭력을 제거해도 비의도적인 폭력이 존재할 수 있다.
⑤ 갑과 을 : 모든 전쟁이 종식되는 순간부터 진정한 평화가 보장된다.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한다. 만민법의 사회에서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들이 자유적이거나 또는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들을 가질 때까지 유효하다.
> 을 : 우리는 절대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원조해야 한다. 공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자원을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곳에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빈민들을 도와야 한다.

<보 기>

ㄱ. 갑 : 인권 침해가 심각한 모든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된다.
ㄴ. 갑 : 원조의 차단점을 설정하여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ㄷ. 을 : 원조가 산출할 결과를 고려하여 원조의 대상을 정해야 한다.
ㄹ. 갑과 을 : 원조는 국가 간 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행해지는 윤리적 의무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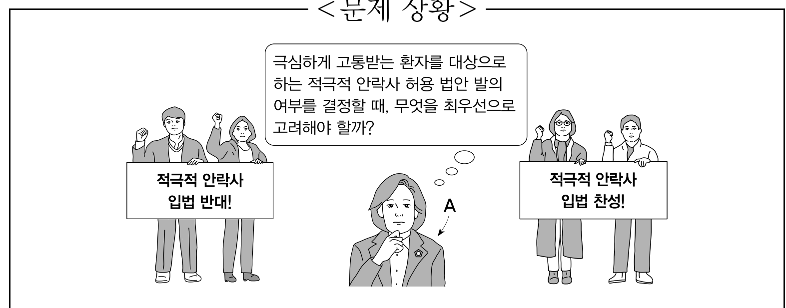
> 갑 : 예술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인간의 활동과 그 산물을 의미합니다. 예술가와 감상자는 예술 작품을 매개로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습니다.
> 을 : 맞습니다. 이러한 교류의 과정에서 감상자는 예술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예술이 감상자의 성품에 선한 영향을 미치려면 윤리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 갑 : 아닙니다. 예술이 윤리에 의해 평가되면 예술가의 자율성과 독창성이 침해받을 것입니다. 예술은 예술가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예술 본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 을 :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가의 자율성과 독창성도 중요하지만, 윤리로 예술을 평가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도덕적 성숙을 방해하는 예술 작품이 양산될 수 있습니다.

① 예술은 미적 가치를 표현하고 형상화한 것인가?
② 예술은 윤리적인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③ 예술은 감상자에게 정서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가?
④ 예술은 예술가와 감상자를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인가?
⑤ 예술은 예술가의 자율성과 독창성으로부터 창조되는가?

2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공동체의 이익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이다. 어떤 행위가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더 클 경우, 그 행위는 공리의 원리에 일치한다. 공리의 원리에 일치하는 행위는 항상 우리가 해야 할 행위이다.

<문제 상황>



① 고통받는 환자의 행복만을 실현할 수 있는 법안인지 고려하세요.
② 법안이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자연법에 부합되는지 고려하세요.
③ 공동체 내에 유덕한 시민이 법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 고려하세요.
④ 법안이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량을 최대화하는지 고려하세요.
⑤ 고통받는 환자의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법안인지 고려하세요.

> ※ **확인 사항**
>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6회	
시험 시간	30분
날짜	월 일
시작 시각	:
종료 시각	:

회차별 동영상 강의



26re-6

제 4 교시 | 성명 | 수험번호 | –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구체적인 도덕적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며, 그 문제들에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실천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나) 윤리학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명제에 대한 추론이나 판단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① (가) : 현실의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② (가) : 도덕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③ (나) : 올바른 삶의 지침이 될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④ (나) : 각 공동체의 다양한 도덕 관행을 비교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⑤ (가)와 (나) :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탐구하는 것이다.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폭력은 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경유하여 직접적 폭력으로 번진다.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 문화적 폭력의 부재를 지향할 때에만 가능하다.
> 을 : 국가 간의 제약이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정착될 수 없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평화 연맹이며, 이는 평화 조약과 구별된다.

① 갑 : 구조적 폭력은 항상 문화적 폭력에서 비롯된다.
② 갑 : 비의도적 폭력은 평화 실현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을 : 평화 연맹은 모든 전쟁의 영원한 종식을 추구한다.
④ 을 : 영원한 평화는 국가 간 평화 조약 체결만으로 실현된다.
⑤ 갑과 을 : 물리적 폭력의 소멸은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보장한다.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인간은 공간에서 참된 거주를 실현함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실현한다. 참된 거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이라는 내부 공간에만 머무르려는 집착을 극복해야 한다. 비록 세계라는 외부 공간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공간이지만 인간은 외부 공간으로 나가 자기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 집이라는 내부 공간에서의 휴식과 세계라는 외부 공간에서의 노동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인간은 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

<보 기>
ㄱ. 집의 소유는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다.
ㄴ. 인간 내면의 건강은 휴식과 노동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ㄷ. 참된 거주를 위해 외부 공간과 단절하고 집에 머물러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 다음 가상 대담의 사상가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문화 산업은 대중이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방해한다.
② 문화 산업의 구조에서 자본가는 표준화된 생산 방식을 거부한다.
③ 문화 산업에서의 궁극적인 생산 주체는 자본가가 아닌 대중이다.
④ 문화 산업에서 문화의 가치를 평가할 때 경제적 관점은 배제된다.
⑤ 문화 산업에서 생산된 상품에는 대중의 진정한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

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은 범죄를 의도하는 자를 제지하는 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닌 형벌이다. 필요 이상의 가혹한 형벌은 사회적 합의에 반한다. 을 : 살인자에 대한 판결은 그가 더 이상 국가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다. 살인자는 계약 위반자로서 추방당하거나 죽음을 통해 제거되어야 한다.
(나)	(갑, 을 두 원이 겹친 그림: A, B, C) <범 례> A : 갑만의 입장 B : 갑과 을의 공통 입장 C : 을만의 입장

<보 기>
ㄱ. A : 사형은 사회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형벌이다.
ㄴ. B : 국가의 형벌 집행권은 시민의 동의에 근거하여 성립된다.
ㄷ. B : 형벌의 경중은 범죄를 저지른 의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ㄹ. C : 살인자는 공공의 적이 아닌 도덕적 인격으로서 처벌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편 21쪽

6.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ㅇㅇ신문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칼 럼

과학 기술자의 책임 문제는 고객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고객이란 노동자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노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을 직접 고용한 사람만이 고객이 되지만, 과학 기술자는 고용주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도 고객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먼저 상당수의 연구가 세금에 의해 직 · 간접적으로 추진되므로 일반 대중이 과학 기술자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 기술자의 연구는 공공성이 지대하여 고용주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학 기술자에게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고용주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미칠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검토해야 할 책임이 있다.

① 과학 기술자는 공익보다 자신의 사적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② 과학 기술자의 연구 결과는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③ 과학 기술자는 연구 결과가 고용주에게 미칠 영향을 배제해야 한다.
④ 과학 기술자는 자신을 직접 고용한 사람만을 고객으로 여겨야 한다.
⑤ 과학 기술자는 연구 결과로 인한 사회적 파급 효과를 숙고해야 한다.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인(仁)이 아니며,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취하는 것은 의(義)가 아니다. 인에 머물고 의를 따른다면 대인(大人)으로서 할 일이 갖추어진 것이다.
을 : 천지가 장구(長久)할 수 있는 까닭은 억지로 그 자신을 살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인(聖人)은 무위(無爲)의 이치를 본받아 자기를 내세우지 않기에 오히려 앞서게 된다.

① 갑 : 예법[禮]이 아닌 형벌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② 갑 : 이로운 것[利]이 곧 의로운 것[義]임을 알아야 한다.
③ 을 : 도(道)에 따라 매사에 겸허(謙虛)하게 행동해야 한다.
④ 을 : 시비선악(是非善惡)을 엄격히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⑤ 갑과 을 : 이상적 인간은 인륜(人倫)의 규범에서 벗어나야 한다.

8.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인간 배아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므로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 배아를 활용하여 난치병 치료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해야 합니다.

인간 배아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만, 잠재적 인간이므로 도덕적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인간 배아를 활용한 난치병 치료 연구가 사회적 행복을 증진하더라도, 인간 배아 복제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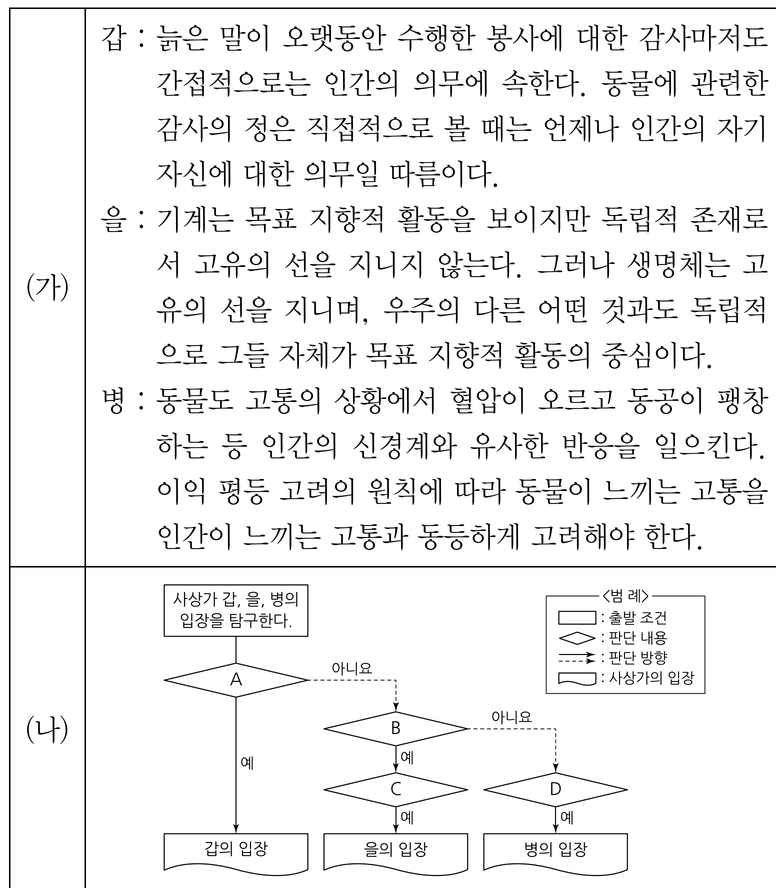
① 갑 : 인간 배아는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② 갑 : 인간 배아는 잠재적 인간이므로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③ 을 : 인간 배아를 단순한 세포 덩어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④ 을 : 사회적 유용성을 근거로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⑤ 갑과 을 : 인간 배아 복제는 난치병 치료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 무지의 베일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의 당사자들이 인간 사회에 대한 일반적 사실을 제외한 특정 사실을 모르게 만든다.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되는 정의의 두 원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할당되고 사회적 이득이 분배되어야 한다.
을 : 무지의 베일하에서는 분배적 정의에 관한 소유 권리적 개념이 산출될 수 없다. 한 분배가 정의로울 충분 조건은 그 분배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다.

① 갑 : 차등의 원칙에 따른 분배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② 갑 :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자신과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하다.
③ 을 : 역사적이고 정형적인 원리에 따른 분배의 결과는 정의롭다.
④ 을 : 과거의 상황은 사물에 대한 응분의 자격을 만드는 요인이다.
⑤ 갑과 을 : 무지의 베일을 통해서만 정의로운 분배 원리가 산출된다.

10. (가)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늙은 말이 오랫동안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간접적으로는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동물에 관련한 감사의 정은 직접적으로 볼 때는 언제나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일 따름이다. 을 : 기계는 목표 지향적 활동을 보이지만 독립적 존재로서 고유의 선을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체는 고유의 선을 지니며, 우주의 다른 어떤 것과도 독립적으로 그들 자체가 목표 지향적 활동의 중심이다. 병 : 동물도 고통의 상황에서 혈압이 오르고 동공이 팽창하는 등 인간의 신경계와 유사한 반응을 일으킨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나)	(그림)

〈보 기〉

ㄱ. A : 비이성적 개체를 해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는가?
ㄴ. B :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생명체도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가?
ㄷ. C : 목표 지향적 활동의 여부는 도덕적 고려의 유일한 기준인가?
ㄹ. D : 유정적 존재의 특성에 따라 도덕적 배려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편 22쪽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 백성은 안정된 생업[恒産]이 없으면 변함없는 마음[恒心]도 없다. 변함없는 마음이 없으면 방탕하게 된다. 현명한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마련해 줌으로써 백성은 흉년에 죽음을 면한다.
> 을 : 선왕(先王)은 예의(禮義)를 제정해 백성의 분계(分界)를 정함으로써 그들의 원함을 충족해 주고 필요했던 것을 공급해 주었다. 현명한 군주는 공평한 정치로 백성을 바로잡는다.

<보 기>

ㄱ. 갑 : 통치자는 백성이 선한 마음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ㄴ. 을 : 사회적 직분은 백성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ㄷ. 을 : 백성의 욕구는 예에 따라 제한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ㄹ. 갑과 을 : 통치자는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가)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성적인 것처럼 국가도 이성적이다. 하지만 잘못된 제도 등으로 인해 국제 분쟁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국제법이나 국제 규범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나)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것처럼 국가도 이기적이다. 힘의 논리에 따르는 국가 간 권력 투쟁으로 인해 국제 분쟁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국가 간 세력 균형이 필요하다.

<보 기>

ㄱ. (가) : 국제 분쟁의 해결 주체는 개별 국가에 한정되어야 한다.
ㄴ. (나) : 다른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소이다.
ㄷ. (가)와 (나) : 국제 분쟁을 억지하기 위한 해결 방안은 존재한다.
ㄹ. (가)와 (나) : 국제 분쟁은 제도적 결함보다 인간의 본성에서 유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로서 정의로운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똑같은 사정을 가진 많은 집단이 동일하게 시민 불복종을 행할 시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게 될 극심한 무질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 시민 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어야 한다.

① 시민 불복종의 목적은 부정의한 정치 체제를 변혁하는 것이다.
②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을 위반해야 할 의무는 절대적이다.
③ 시민 불복종을 시행하는 의도가 왜곡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④ 시민 불복종은 심각한 부정의가 있는 민주 사회에서 발생할 수 없다.
⑤ 시민 불복종은 다수가 믿는 종교적 교리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의무는 인간의 실천 이성으로부터 도출된다. 어떤 행동이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아무런 경향성 없이, 오로지 의무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 을 : 도덕의 토대를 이성 위에 세우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인간은 덕을 발휘해야 한다. 덕은 삶의 서사적 통일성과 사회적 전통 내에서 획득될 수 있다.
>
> 〈문제 상황〉
>
> 고등학생 A는 인근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해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이에 A는 한정판 운동화 구매를 위해 모아두었던 용돈을 도움이 절실한 이재민에게 기부할지 고민하고 있다.

① 갑 : 쾌락 총량의 극대화 원칙을 토대로 기부 여부를 결정하세요.
② 갑 : 이재민을 도와야 한다는 순수한 도덕적 동기에 따라 행동하세요.
③ 을 : 공동체의 어려운 상황과 관계없이 보편적 도덕 원리를 따르세요.
④ 을 : 기부 행위가 자신의 유덕한 품성 형성과 무관함을 명심하세요.
⑤ 갑과 을 : 이성적 판단을 위해 이재민에 대한 동정심을 배제하세요.

1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이므로 내 것과 네 것의 구별이 없다.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지닌 모든 권력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해야 한다. 을 : 자연 상태에서는 공통된 재판관이 부재한다. 개인의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기 위해 각자는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여 이것을 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해야 한다.
(나)	갑 ⇄ 을 (A: 갑→을, B: 을→갑) <범 례> ⟶ : 비판의 방향, A, B : 비판의 내용 <예 시> 갑 —A→ 을 :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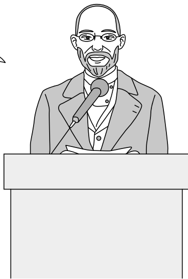
① A : 자연 상태에서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② A : 자연 상태에서 개인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③ A : 시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국가 권력이 분립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④ B : 사회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는 주권을 가질 수 없음을 간과한다.
⑤ B : 개인이 가진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는 것이 아님을 간과한다.



해설편 23쪽

16.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유행은 일종의 모방이므로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인 것을 강조하는 인간의 성향에 부합하며,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동시에 유행은 지속적인 것 안에서 변화를 찾으려는 인간의 성향에도 부합하며, 차별화 욕구를 만족시킵니다. 이러한 유행은 계층적으로 분화하는데, 언제나 상류층에서만 발생하며 하류층은 그 유행을 자신의 것으로 동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행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 상류층은 그것을 버리고 대중과 자신을 구분하기 위한 새로운 유행을 추구합니다.



<보 기>

ㄱ. 어떤 계층이든 새로운 유행을 직접 창출할 수 있다.
ㄴ. 상류층에서 시작된 유행은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없다.
ㄷ. 인간은 모방하려는 성향과 변화를 찾으려는 성향을 함께 지닌다.
ㄹ. 상류층은 유행을 통해 다른 계층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려고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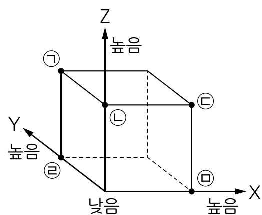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 우리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적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을 : 우리는 공리의 원리에 따라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단, 우리가 막으려는 절대 빈곤에 상당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① 갑 : 원조 주체는 원조 대상국에게 인권의 존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갑 :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모든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③ 을 : 원조 여부를 결정할 때 원조 주체의 이익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④ 을 : 원조의 우선순위는 원조 주체와의 인종적 친화성에 달려 있다.
⑤ 갑과 을 : 고통받는 사람들의 복지 향상이 원조의 직접적 목표이다.

18.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쾌락 그 자체를 위한 성(性)은 부도덕하지 않다. 성의 주된 목적은 쾌락 추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쾌락 추구를 위한 성을 결혼과 출산으로 제약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쾌락 그 자체를 위한 성은 부도덕하다. 성의 주된 목적은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은 결혼과 출산이 전제될 때에만 정당하다.



• X : 성의 쾌락적 가치를 강조하는 정도
• Y : 종족 보존이 성의 목적임을 강조하는 정도
• Z : 혼전(婚前) 성이 정당함을 강조하는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 성인(聖人)은 모두가 그대로 존재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노닌다[逍遙遊]. 그러므로 성인은 일찍 죽어도 좋고, 늙어 죽어도 좋고, 태어나도 좋고, 죽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을 :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해체된 것은 감각이 없고, 감각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깨닫게 될 때, 불멸에 대한 갈망이 제거되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

<보 기>

ㄱ. 갑 : 삶은 좋아함으로 죽음은 싫어함으로 분별된다.
ㄴ. 을 : 죽음 이후에 소멸하는 것은 영혼이 아닌 육체이다.
ㄷ. 을 : 죽을 것을 예상하여 미리 고통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ㄹ. 갑과 을 : 죽음을 올바르게 인식하면 불멸에 대한 욕구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최근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을 일컫는 숏폼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숏폼 콘텐츠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을 : 동의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해한 숏폼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벌금 부과나 영상 제작 제한 등의 법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갑 : 아닙니다. 법적 규제는 다양한 숏폼 콘텐츠 제작을 위축시키므로 시행하면 안 됩니다. 숏폼 콘텐츠의 유해성 문제는 제작자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을 : 자율적 규제만으로는 강제력이 없어서 실효성이 약합니다. 다양한 숏폼 콘텐츠 제작이 위축될 수 있겠지만,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규제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① 유해한 숏폼 콘텐츠는 자율적 규제의 대상인가?
② 모든 숏폼 콘텐츠는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치는가?
③ 숏폼 콘텐츠의 유해성 문제에 대한 자율적 규제는 실효성이 있는가?
④ 영상 제작의 법적 제한은 숏폼 콘텐츠 제작을 위축시킬 수 있는가?
⑤ 유해한 숏폼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시행해야 하는가?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해설편 **24쪽**

01회 2022년 3월 고3 학력평가 정답과 해설 생활과 윤리

문제편 p.5

1	④	2	②	3	①	4	①	5	⑤
6	③	7	③	8	①	9	④	10	②
11	③	12	①	13	③	14	②	15	⑤
16	③	17	②	18	⑤	19	⑤	20	④

1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 정답 ④ 정답률 73%

① 도덕적 탐구가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가를 검토해야 한다 → 메타 윤리학에서 강조
② 도덕규범을 당위가 아닌 사실의 형식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도덕 현상의 가치 중립적 기술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기술 윤리학에서 강조
④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⑤ 도덕적 추론의 형식적 타당성 검증을 주된 과제로 삼아야 한다 → 메타 윤리학에서 강조

|자|료|해|설|
지문의 '나'는 규범 윤리학의 입장이다. 규범 윤리학은 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편적 원리의 탐구를 주된 목표로 하는 윤리학이다. 지문의 '어떤 사람들'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하고,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과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 입증에 초점을 두는 학문이다. ㉠에는 규범 윤리학의 입장에서 메타 윤리학이 간과하고 있는 점을 평가한 진술이 들어가야 한다.

|선|택|지|풀|이|
④ 정답 : 규범 윤리학은 윤리적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보편적 원리를 정립하고 실천 방안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반면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추론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치중하여 도덕적 실천을 위한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2 칸트의 의무론,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 정답 ② 정답률 58%

칸트 - 의무론적 윤리설 - 행위 중심의 윤리
갑 : 세상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조차도 제한 없이 선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선의지뿐이다. 이성의 최고의 실천적 사명은 선의지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매킨타이어 - 행위자의 유덕한 품성 중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삶 강조 - 행위자 중심의 윤리
을 : 덕은 하나의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서, 그것의 소유와 실행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실천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원리
① 갑 : 공동체가 추구하는 선을 따르려는 의지만이 도덕적이다.
② 갑 : 행위의 준칙은 보편적으로 따라야 할 법칙이 될 수 있다.
③ 을 : 도덕적 선악은 공동체의 역사와 무관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④ 을 : 덕은 관행에 내재한 선을 성취하게 하는 타고난 성품이다.
⑤ 갑, 을 : 맥락적 사고가 아닌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

|선|택|지|풀|이|
② 정답 : 칸트는 개인의 주관적인 행위의 규칙인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칸트는 보편화 가능한 행위의 준칙은 보편적으로 따라야 할 법칙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④ 오답 : 매킨타이어는 유덕한 성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옳은 행위의 습관화를 통해 덕을 내면화해야 갖출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사랑과 성의 의미 정답 ① 정답률 74%

보기
ㄱ. 사랑은 상대방의 요구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이다.
ㄴ. 사랑은 보호와 존경을 기본적 요소로 내포하고 있다.
ㄷ. 사랑은 자신의 의지대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활동이다.
ㄹ. 사랑은 주는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자|료|해|설|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에리히 프롬이다. 프롬은 사랑은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며, 진정한 사랑은 보호, 책임, 존경, 이해의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보|기|풀|이|
ㄱ, ㄴ. 정답 : 프롬은 사랑의 기본적 요소로 보호, 존경 등의 가치를 주장하였으며,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요구에 답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ㄷ. 오답 : 프롬은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의지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착취 없이 존경하는 것이라고 본다.
ㄹ. 오답 : 프롬은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본다.

4 평화의 가치와 국제 평화 정답 ① 정답률 64%

① 갑 : 개별 국가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 연맹이 필요하다.
② 갑 : 다른 국가의 체제 변화를 위한 강제력 사용은 허용된다.
③ 을 :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은 문화적 폭력에 국한된다.
④ 을 :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갑, 을 : 평화 조약의 체결은 영원한 평화의 실현을 보장한다.
→ 구조적 폭력 + 문화적 폭력

|자|료|해|설|
갑은 영구 평화론을 주장한 칸트이다. 칸트는 국가 간 영구 평화를 위해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여야 하고,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하며,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은 적극적 평화를 강조한 갈퉁이다. 갈퉁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소극적 평화에 구조적 ·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적극적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택|지|풀|이|
① 정답 : 칸트는 평화적 연방으로서 연맹은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하며, 모든 국가는 이 연방의 구상 아래에서 영원한 평화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 연맹이 필요하다고 본다.
⑤ 오답 : 칸트는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유보한 채로 맺은 평화 조약으로는 영원한 평화의 실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보며, 모든 국가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연맹에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갈퉁은 평화 조약 체결은 소극적 평화를 위한 것이며, 적극적 평화를 위해서는 불충분하다고 본다.

5 인간 중심주의 윤리, 생명 중심주의 윤리, 동물 중심주의 윤리 정답 ⑤ 정답률 27%

(가)
칸트 : 인간 중심주의
갑 :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피조물인 동물을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대립한다.
테일러 : 생명 중심주의
을 : 유기체는 고유의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어떤 종을 다른 종보다 선호하는 편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싱어 : 동물 중심주의
병 : 동물이 인간과 다른 종에 속한다고 해서 그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종 차별주의이며, 종 차별주의는 인종 차별과 다를 바 없이 부도덕하다.

(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
A (갑 을 병: ○ × ×) — 예 → 갑의 입장 / 아니요 → B
B (을 병: ○ ×) — 예 → C / 아니요 → D
C (을: ○) — 예 → 을의 입장
D (병: ○) — 예 → 병의 입장
<범 례>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보기 (갑 을 병)
ㄱ. A : 동물에 대한 폭력적 행위는 인간의 의무에 어긋나는가? ○ ○ ○
ㄴ. B : 생명체는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 ×
ㄷ. C : 생명체 고유의 선을 보호하기 위한 간섭이 허용될 수 있는가? → 우선성의 원리 ○
ㄹ. D : 인간과 동물의 동일한 양의 고통은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보|기|풀|이|

ㄱ. 오답 : 동물에게 폭력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는 주장은 칸트, 테일러, 싱어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ㄴ. 정답 :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자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본다. 반면 싱어는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며 인간과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만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ㄷ. 정답 : 테일러는 개체 생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태계를 조작 · 통제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불간섭의 의무를 주장하지만, 이는 조건부 의무이며 생태계 안정과 생명체의 고유한 선을 보호하기 위한 간섭일 경우, 우선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섭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ㄹ. 정답 :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의 이익 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 차별주의를 비판한다. 따라서 싱어의 입장에서 인간과 동물의 동일한 양의 고통은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6 과학 기술자의 책임 　정답 ③ 　정답률 79%

과학 기술자의 내적 책임만 긍정 ← 갑 : 원자 폭탄을 전쟁에 이용한 사람은 정치인들이므로 과학적 연구의 결과 활용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한다. 과학자는 연구로 발견한 진리를 공표할 책임만 지닌다.

과학 기술자의 내적 책임, 외적 책임 모두 긍정 ← 을 : 핵무기 개발이 가져올 희망보다 공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과학자는 과학 기술이 가져올 결과의 모호성과 가늠할 수 없는 파급력이 초래할 위험에 주목해야 한다.

(그림: X, Y, Z 축 좌표 공간 — Z 높음, Y 높음, X 낮음/높음, ㉠ ㉡ ㉢ ㉣ ㉤)

- X : 과학 기술의 활용 결과를 과학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정도↑
- Y : 과학 기술 연구와 관련된 과학자의 책임을 축소해야 한다고 보는 정도↓
- Z : 과학자가 과학 기술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성찰해야 한다고 보는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자|료|해|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은 과학 기술의 활용 결과를 과학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정도(X)는 높고, 과학 기술 연구와 관련된 과학자의 책임을 축소해야 한다고 보는 정도(Y)는 낮고, 과학자가 과학 기술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성찰해야 한다고 보는 정도(Z)는 높다.

|선|택|지|풀|이|

③ 정답 : X축은 높고, Y축은 낮고, Z축은 높다.

7 대중문화와 관련된 윤리 문제 　정답 ③ 　정답률 75%

① 문화 산업이 확산될수록 인간의 몰개성화 경향은 감소한다.
② 문화 산업은 예술을 상품화하려는 시도를 예방하고자 한다.
③ 문화 산업은 대중에게 규격화된 예술과 가치관을 전달한다.
④ 문화 산업의 목표는 예술의 심미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다.
⑤ 문화 산업은 대중이 각자 고유한 예술 체험을 하도록 장려한다.

|자|료|해|설|

지문의 사상가는 상업화된 예술에 대해 문화 산업이라고 비판한 아도르노이다. 아도르노는 현대 예술은 자본에 종속되고 문화 산업으로 획일화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한다.

|선|택|지|풀|이|

③ 정답 :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은 대중의 미적 체험을 획일화시키기 때문에 대중에게 규격화된 예술과 가치관을 전달한다고 본다.

8 불교 윤리적 접근 　정답 ① 　정답률 79%

① 자연과 인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② 인간에게 내재된 불성을 극복하려는 의지에 따라 결정하세요.
③ 자연의 모든 구성원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결정하세요.
④ 인간이 우월한 존재로서의 지위를 지킬 수 있도록 결정하세요.
⑤ 인간 외의 존재도 독립된 실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하세요.

|자|료|해|설|

지문의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조건으로 얽혀있다고 보는 연기설을 전개하였다.

|선|택|지|풀|이|

① 정답 : 석가모니는 만물은 원인과 조건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적 관계라고 본다.

③ 오답 : 석가모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생성 · 소멸의 과정을 반복하기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본다.

⑤ 오답 : 석가모니는 세상 모든 것이 서로 무수한 인연 관계에 의해서 상호 의존하면서 존재하는 것으로, 독립된 실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어리석은 중생들이 고정불변하는 독립된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여 이에 집착함으로써 고통이 생긴다고 본다.

9 분배적 정의관 　정답 ④ 　정답률 34%

노직 : 소유 권리론 - 개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강조 ← 갑 : 지능에 따른 분배 원리는 정형적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는 차별적인 소유 권리를 창출하는 과거의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역사적이다.

롤스 : 공정으로서의 정의 - 사회적 · 자연적 우연성을 배제하기 위해 합의된 정의의 원칙에 따른 분배 강조 ← 을 : 지능과 같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분포로 인한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이 필요하다.

보기

ㄱ. 갑 : 개인은 천부적 자산과 그것을 이용하여 얻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ㄴ. 을 :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것은 부정의하다고 할 수 없다.
ㄷ. 을 : 개인은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체제의 규칙에 따라 얻은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 정의의 원칙
ㄹ. 갑, 을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 원리가 정의의 원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 차등의 원칙에 따르는 원리, 정형적 원리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보|기|풀|이|

ㄱ. 정답 : 노직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개인에게 그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ㄴ. 정답 : 롤스는 천부적 재능에 따라 재화가 분배되는 것은 부정의한 것이지만, 천부적 재능을 타고나는 것과 개인이 타고난 천부적 재능 그 자체를 부정의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ㄷ. 정답 :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체제의 규칙은 정의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롤스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얻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얻은 모든 것에 대해 개인은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ㄹ. 오답 : 노직은 소유 권리론을 주장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 원리는 정형적 원리이고, 이에 따른 분배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 원리가 정의의 원리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내세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국가 차원의 재분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 원리를 정의의 원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10 동서양의 직업관 　정답 ② 　정답률 72%

① 갑 : 통치자들만 공동생활을 통해서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 (통치자, 방위자)
② 갑 : 각자 자신의 성향에 맞는 한 가지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③ 을 : 직업에 충실하면 본성을 회복하고 인격을 닦을 수 있다. → 성악설 : 본성 교화
④ 을 : 예에 정통한 사람은 모든 일을 이해하고 잘하는 사람이다. → 덕성과 능력에 따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분리
⑤ 갑, 을 : 개인의 희망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 (갑 : 함양한 덕 / 을 : 능력)

|자|료|해|설|

갑은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국가는 세 계층이 각각의 본분에 맞는 탁월성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을은 순자이다. 순자는 직업에서 사회적 분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각자의 덕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게 하는 예(禮)에 따를 것을 주장한다.

|선|택|지|풀|이|

② 정답 : 플라톤은 사람들이 직분을 서로 교환한다면 국가는 파멸로 가게 될 것이므로 자신의 성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11 베블런의 과시적 소비 정답 ③ 정답률 83%

① 과시적 소비는 하층계급에서 상층계급으로 확산되는가?
② 사회 전체의 부가 늘어날수록 과시적 소비는 감소하는가?
③ 모든 계층에서 평판을 높이려는 과시적 소비가 나타나는가?
④ 자기 보존 본능은 과시적 소비의 주된 경제적 동기가 되는가?
⑤ 필수품 소비는 유한계급이 재력을 과시하는 유용한 방법인가?

|자|료|해|설|
지문의 사상가는 베블런이다. 베블런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과시 소비를 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유한계급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끊임없이 과시 소비를 하게 된다고 보았다.

|선|택|지|풀|이|
③ 정답 : 베블런은 과시적 소비는 사회의 모든 계층, 심지어 빈곤한 사람들에게서도 발견된다고 본다.
④ 오답 : 베블런은 자기 보존 본능이 아니라 재력 과시와 명성 획득이 과시적 소비의 주된 경제적 동기가 된다고 본다.
⑤ 오답 : 베블런은 재력을 과시하여 평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 필수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며, 그 목적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사치품에 돈을 써야 한다고 본다.

12 도덕주의, 심미주의 정답 ① 정답률 87%

예술 작품은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예술 작품은 젊은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을 닮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예술 작품에 도덕적인 작품, 비도덕적인 작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술은 예술 안에서 완벽함을 추구할 뿐, 예술 밖에서 완벽함을 찾지 않습니다. 예술이란 아름답고 섬세한 형태, 고상한 색채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는 것입니다.





① 갑 : 예술 작품은 인간의 품성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② 갑 : 예술 작품 검열은 예술의 도덕적 교화 기능을 약화시킨다.
③ 을 : 예술 작품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때 가치를 지닌다.
④ 을 : 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는 도덕에 근거해서 이뤄져야 한다.
⑤ 갑, 을 : 예술 작품은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도덕주의 : 예술 작품의 도덕적 가치 강조)

|선|택|지|풀|이|
① 정답 : 플라톤은 예술이 올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삶의 모범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② 오답 : 플라톤은 예술 작품이 감상자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열이 필요하다고 본다.

13 해외 원조의 윤리적 근거 정답 ③ 정답률 22%

보기

ㄱ. A :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균등하게 원조해야 한다.
ㄴ. B : 원조할 때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ㄷ. B : 원조 주체는 원조 대상국에 강제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ㄹ. C : 질서 정연한 사회는 지구적 분배 정의의 원칙에 따라 원조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자|료|해|설|
갑은 싱어이다. 싱어는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보기에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의무라고 주장한다. 을은 롤스이다. 롤스는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 의무라고 주장한다.

|보|기|풀|이|
ㄴ. 정답 : 롤스는 원조의 최종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를 개선해 그 사회가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한편, 싱어는 원조의 최종 목적은 사회의 고통받는 개인들을 도와 그들의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해외 원조가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갑, 을 모두 원조할 때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ㄷ. 정답 : 갑, 을 모두 원조 주체는 원조 대상국에 강제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본다.
ㄹ. 오답 : 롤스는 지구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기보다, 각 국가 공동체의 질서 정연한 체제 유무를 원조의 여부로 삼는다.

14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 정답 ② 정답률 82%

① 갑 : 통일 편익은 북한이 아닌 남한 지역에서만 발생할 것이다. (→ 통일에 따른 보상과 혜택 / 남북한 지역 모두)
② 갑 : 통일 이후의 국방비 감소는 통일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③ 을 : 통일된 이후에도 분단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④ 을 : 통일 국가의 영토는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확장될 것이다.
⑤ 갑, 을 : 통일 이전 대비 통일 이후의 국방비는 증가할 것이다.
(→ 분단 비용 : 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적 비용)

|자|료|해|설|
제시문의 갑은 통일이 된다면 국방비를 줄일 수 있어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은 통일이 된다면 국방비가 증가할 것이고, 이러한 증가는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선|택|지|풀|이|
② 정답 : 갑에 따르면, 통일 이후의 국방비 감소는 통일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15 아리스토텔레스와 로크의 국가관 정답 ⑤ 정답률 76%

① 갑 : 국가는 행복을 실현하게 하는 가장 포괄적인 공동체이다.
② 갑 : 국가는 완전한 자급자족 단계에 도달한 최상의 공동체이다.
③ 을 : 국가는 공정한 재판관과 집행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④ 을 :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다루면 안 된다.
⑤ 갑, 을 : 국가 질서는 통치자가 절대 권력을 가져야 유지된다.

|자|료|해|설|
갑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인간의 사회적 · 정치적 본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겨난 공동체 간의 결합이라고 보고, 인간은 본성에 따라 살아가면서 가족과 마을을 이루고 이를 거쳐 국가라는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모든 공동체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주요한 정치적 공동체라고 주장한다. 을은 로크이다. 로크는 국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간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이고, 개인들은 자연권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자연권의 일부를 국가에 양도하는 계약에 동의한다고 주장한다.

|선|택|지|풀|이|
② 오답 :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혼자서는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반면, 국가는 완전한 자급자족 단계에 도달한 최상의 공동체라고 본다.
⑤ 정답 : 아리스토텔레스와 로크 모두 국가 질서는 통치자가 절대 권력을 가져야 유지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문제편 6~7쪽

16 죽음에 대한 동양의 관점

정답 ③ | 정답률 77%

공자 - 죽음은 자연적, 필연적 과정 - 애도의 예 중시 - 현세의 도덕적 삶 중시

장자 - 삶과 죽음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 - 죽음을 슬퍼할 필요 없음

갑 :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삶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죽음에 대해 알겠는가?

을 : 진인은 삶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죽음을 싫어할 줄도 모른다. 삶의 시작을 꺼리지도 않고 삶의 끝을 바라지도 않는다. 의연히 가고 의연히 올 따름이다.

보기

ㄱ. 갑 : 도덕적 삶보다는 사후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ㄴ. 갑 :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는 예에 맞게 표현해야 한다.
ㄷ. 을 : 생사를 분별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도에 따라야 한다.
ㄹ. 갑, 을 : 내세의 행복을 위해 선한 행위를 반복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보|기|풀|이|
ㄴ. 정답 : 공자는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 상장제례를 강조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는 예에 맞게 표현해야 한다고 본다.
ㄷ. 정답 : 장자는 삶과 죽음에 좋고 나쁨의 차별이 없으며, 삶과 죽음을 이분법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ㄹ. 오답 : 공자와 장자는 내세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공자는 죽은 이를 애도하되 현세에서의 도덕적 삶에 더 집중할 것을, 장자는 죽음은 기가 흩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것을 강조한다.

17 사형 제도에 대한 윤리적 쟁점

정답 ② | 정답률 31%

베카리아 - 공리주의, 사회 계약론적 관점 - 사형 반대 - 종신 노역형이 더 효과적

벤담 - 공리주의적 관점 - 공리의 원리에 따라 사형의 찬반 여부 결정

칸트 - 응보주의적 관점 - 사형 찬성

(가)
갑 : 형벌의 남용은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엄격성을 지닌다.
을 : 형벌은 본질적으로 해악이다. 공리의 원리에 의할 때 형벌이 근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유익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 형벌은 부적합하다.
병 : 형벌은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도덕 법칙에 따라 의무되는 바이다. 범죄와 보복은 동등해야 하며 형벌의 질과 양은 보복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보기

ㄱ. A, F : 사형은 사회 계약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형벌임을 간과한다.
ㄴ. B, D :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해야 함을 간과한다.
ㄷ. C, E : 사형은 범죄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형벌임을 간과한다.
ㄹ. D, F :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작아야 함을 간과한다. (커야)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보|기|풀|이|
ㄱ. 정답 : 베카리아는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권능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형은 사회 계약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베카리아가 벤담과 칸트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ㄷ. 정답 : 칸트는 사형은 범죄자로 하여금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며,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반면, 베카리아와 벤담은 사형을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따라서 칸트가 베카리아와 벤담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18 뇌사의 윤리적 쟁점

정답 ⑤ | 정답률 69%

(가)의 입장
① 유용성 극대화를 위해서 뇌사의 인정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②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할 때 사회적 선이 실현됨을 간과한다.
③ 뇌 기능 상실이 죽음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임을 간과한다.
④ 심폐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장기 이식이 확대됨을 간과한다.
⑤ 뇌사를 죽음으로 보면 인간의 가치를 해칠 수 있음을 간과한다.

|자|료|해|설|
(가)는 죽음을 판정하는 기준이 뇌사라고 주장한다. 뇌사는 뇌의 활동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정지된 상태를 말한다. (나)는 죽음을 판정하는 기준이 심폐사라고 주장한다. 심폐사는 심장 박동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된 상태를 말한다.

|선|택|지|풀|이|
⑤ 정답 : (나)는 뇌사자를 죽은 사람으로 보고 장기 이식을 행할 경우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게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가)는 뇌사자의 장기 이식이 사회적 선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따라서 (나)가 (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19 시민 불복종

정답 ⑤ | 정답률 66%

	갑	을
① 시민 불복종은 다수를 위협하고 강제하려는 위법 행위인가? (위법이지만 정의 실현을 위한 양심적 행위)	×	×
②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거부를 전제로 하는가?	×	×
③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의롭지 못한 법도 있는가?	○	○
④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 노력 실패 후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인가?	○	○
⑤ 시민 불복종의 목표에 동물의 이익 옹호가 포함될 수 있는가?	×	○

|자|료|해|설|
갑은 롤스이다. 롤스는 어느 정도 정의로운 사회에서 다수의 정의관에 현저하게 어긋나는 법과 정책의 개선을 위해 시민 불복종이 이루어져야 하며 성공 가능성을 고려한 최후의 수단으로 시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은 싱어이다.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이 산출할 이익과 손해, 불복종 행위의 성공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택|지|풀|이|
② 오답 : 롤스와 싱어는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 원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갑과 을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오답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법과 정책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에 정의롭지 못한 법이라도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면 지켜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롤스는 어떠한 법이 심각하게 부정의하지 않으면 비록 완전히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싱어는 불복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악영향과 편익을 고려한다면 정의롭지 않은 법이라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갑과 을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⑤ 정답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법과 정책을 대상으로 하며, 이 법과 정책은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동물의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싱어는 자연 개발, 동물 실험 반대 등, 인간의 자유, 권리 문제를 넘어서는 다양한 영역의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20 알 권리와 잊힐 권리

정답 ④ | 정답률 84%

	갑	을
①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기인가?	○	○
② 온라인 공간에 공개된 디지털 유산은 상속될 수 있는가?	○	○
③ 디지털 유산 상속인의 자격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가?		
④ 사망자의 모든 디지털 유산은 유족에게 상속되어야 하는가?	×	○
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잊힐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가?		

|자|료|해|설|
갑은 각 개인은 자신의 민감한 정보에 대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강조한다. 이에 비해 을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정보라면 삭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알 권리를 강조한다.

|선|택|지|풀|이|
④ 정답 :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갑은 사망자가 공개한 디지털 유산만 제한적으로 유족에게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은 모든 디지털 유산을 유족에게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오답 : 갑, 을 모두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잊힐 권리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론의 쟁점으로 적합하지 않다.

문제편 7~8쪽

02회 2023년 3월 고3 학력평가 정답과 해설 생활과 윤리

문제편 p.9

1	⑤	2	④	3	②	4	⑤	5	③
6	②	7	⑤	8	②	9	④	10	①
11	①	12	⑤	13	③	14	⑤	15	③
16	④	17	④	18	②	19	①	20	③

1 실천 규범 윤리와 메타 윤리 정답 ⑤ 정답률 79%

① 도덕적 논의의 인식론적 구조에 대한 분석임을 간과한다 (강조) → 메타 윤리학
② 도덕 추론의 정당성 검증을 위한 논리 분석임을 간과한다 (강조) → 메타 윤리학
③ 도덕 판단을 위한 보편적 도덕 법칙의 정립임을 강조한다 → 이론 규범 윤리학
④ 도덕 현상에 대한 경험적 조사와 객관적 서술임을 강조한다 → 기술 윤리학
⑤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위 지침의 제시임을 간과한다

|자|료|해|설|
제시문의 '나'는 실천 규범 윤리학의 입장이다. 실천 규범 윤리학은 실제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윤리적 원리를 적용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윤리학이다. 제시문의 '어떤 사람'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용어들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 규칙과 인식론적 방법을 탐구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윤리학이다.

|선|택|지|풀|이|
⑤ 정답 : 메타 윤리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위 지침을 제시하는 데 관심이 없으므로 도덕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실천 규범 윤리학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2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정답 ④ 정답률 74%

보기
ㄱ. 담론 참여자는 다수가 지지하는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ㄴ. 담론 참여자 다수(모두)가 동의한 모든 규범은 타당성을 지닌다.
ㄷ.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호를 표현할 수 있다.
ㄹ. 담론 참여자는 합의한 결과로 인한 부작용도 수용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자|료|해|설|
제시문의 사상가는 담론 윤리의 대표적 사상가인 하버마스이다. 하버마스는 담론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여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하고, 이상적 담화 상황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보|기|풀|이|
ㄱ. 정답 : 하버마스는 담론 참여자는 어떤 주장이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다수가 지지하는 주장이더라도 비판하고자 하는 점이 있다면 담론 참여자는 해당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ㄴ. 오답 : 하버마스는 담론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가 동의한 규범들만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ㄷ. 정답 : 하버마스는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호를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ㄹ. 정답 : 하버마스는 담론 참여자는 합의한 결과로 인한 부작용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죽음에 대한 동서양의 관점 정답 ② 정답률 86%

① 갑 : 죽음은 고통이므로 죽음을 최고의 악으로 인식해야 한다.
② 갑 :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③ 을 :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고정불변의 자아를 확립해야 한다.
④ 을 : 윤회를 통해 모든 고통이 저절로 소멸됨을 깨달아야 한다.
⑤ 갑과 을 : 내세의 영원한 삶을 위해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
→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함

|자|료|해|설|
갑은 에피쿠로스이다. 을은 불교 사상가 석가모니이다.

|선|택|지|풀|이|
② 정답 :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죽음이 오면 인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④ 오답 : 석가모니는 윤회를 통해 모든 고통이 저절로 소멸된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깨달음을 얻어 해탈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오답 : 에피쿠로스는 내세에서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석가모니는 내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생에서 도덕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내세의 영원한 삶을 위해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더불어 석가모니는 윤회의 소멸과 열반의 경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내세의 영원한 삶을 주장하지 않는다.

4 사형 제도에 대한 윤리적 쟁점 정답 ⑤ 정답률 50%

① A, F :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존중)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② B : 범죄자는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원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임을 간과한다. 강조한다.
③ C : 사형은 사회 계약을 통해 성립될 수 없지만 정당한 형벌임을 간과한다.
④ D : 형벌의 지속도보다 강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임을 간과한다.
⑤ E : 형벌은 시민 사회의 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있음을 간과한다.

|자|료|해|설|
갑은 응보주의적 입장에서 사형을 찬성하는 칸트이다. 칸트는 어떤 사람이 타인의 생명을 해쳤다면 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사형은 범죄자의 고통받는 인격을 해방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을은 사회 계약론적 입장과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사형을 반대하는 베카리아이다. 베카리아는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권능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형은 사회 계약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범죄 예방의 측면에서 볼 때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효과적이므로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병은 사회 계약론적 관점에서 사형을 찬성하는 루소이다. 루소는 사회 계약에 따라 시민 사회에서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택|지|풀|이|
① 오답 : 칸트는 범죄에 대한 대가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에 사형 제도를 찬성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범죄자의 인간 존엄성과 생득적 인격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칸트가 베카리아와 루소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오답 : 베카리아는 범죄 억제의 효과는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을 줄 뿐인 사형보다는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형벌인 종신 노역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베카리아가 루소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정답 : 루소는 시민의 생명 보존을 근거로 맺어진 사회 계약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살인자에 대한 사형을 정당화하기에 형벌이 시민 사회의 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해 칸트는 형벌은 사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 스스로를 위해 부여되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대우하여 인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루소가 칸트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5 도덕주의, 심미주의 정답 ③ 정답률 81%

예술의 사명은 행복이 인간 상호 간의 결합에 있다는 진리를 이성에서 감정의 영역으로 옮겨 신(神)의 세계, 즉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 톨스토이 : 도덕주의

예술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술은 예술 안에서 완벽함을 추구할 뿐 예술 밖에서 완벽함을 찾지 않습니다. → 오스카 와일드 : 심미주의

갑 

 을

① 갑 : 예술은 공감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의 감정으로 결합한다.
② 갑 : 예술은 종교적 자각에 입각한 사랑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③ 을(갑) : 예술은 인격 함양을 위한 삶의 본보기를 제공해야 한다.
④ 을 : 예술은 예술 자체의 아름다움을 자율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⑤ 갑과 을 : 예술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자|료|해|설|
갑은 도덕주의 사상가 톨스토이이다. 톨스토이는 예술의 목적은 모든 인간에게 타인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하여 인류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며, 인간의 올바른 품성을 기르고 도덕적 교훈이나 모범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은 심미주의 사상가 와일드이다. 와일드는 예술의 목적은 예술을 위한 예술을 추구하는 것이며, 도덕적 가치를 기준으로 예술을 판단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선|택|지|풀|이|
② 오답 : 톨스토이는 예술은 종교적 자각에 입각한 사랑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정답 : 예술이 인격 함양을 위한 삶의 본보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도덕주의의 입장이다.
⑤ 오답 : 톨스토이는 예술의 본질 자체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지만 도덕적 가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와일드는 예술의 목적이 예술 그 자체의 아름다움의 추구라고 본다. 따라서 톨스토이와 와일드 둘 다 예술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문제편 9쪽

6 안락사의 윬리적 쟁점
정답 ② 정답률 78%

	갑	을
① 연명 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되는가?	○	○
② 적극적 안락사는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비도덕적 행위인가?	○	×
③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안락사 시행 방법이 존재하는가?	○	○
④ 회생 불가능한 환자는 연명 치료의 중단을 요청해야 하는가?	×	×
⑤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은 정당화 가능한가?	○	○

|자|료|해|설|
갑은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를 살인하는 행위와 같으므로 비도덕적이기에 소극적 안락사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을은 환자가 요청한다면 연명 치료의 중단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뿐만 아니라 약물 주입과 같은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택|지|풀|이|
② 정답 : 갑은 소극적 안락사는 도덕적인 행위이지만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를 살인하는 행위와 같으므로 비도덕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을은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 모두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고통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이라고 주장한다.
④ 오답 : 갑과 을은 환자가 요청한다면 연명 치료의 중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자에게 연명 치료의 중단을 요청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7 해외 원조의 윤리적 근거
정답 ⑤ 정답률 28%

보기
ㄱ. A : 원조는 원조 대상뿐만 아니라 원조 주체의 이익도 증진해야 한다.
ㄴ. B : 자원 빈곤국을 모두 원조 대상국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ㄷ. B :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원조해야 한다.
ㄹ. C : 절대빈곤층의 처지 개선이 원조의 주된 목표는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자|료|해|설|
갑은 싱어이다. 을은 롤스이다.

|보|기|풀|이|
ㄱ. 오답 : 싱어에 따르면, 원조는 기본적으로 주체가 이익을 희생하여 고통받는 원조 대상에게 사회 이익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원조 주체의 이익 증진을 원조의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 단, 원조 주체가 과도한 희생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ㄴ. 정답 : 싱어는 자원 빈곤국이라도 원조의 효과가 없도록 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국가라면 원조 대상국으로 삼을 의무가 없다고 본다. 싱어는 공리주의자로서 원조의 효과가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국가에 원조를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본다. 한편, 롤스는 자원 빈곤국이라도 질서 정연한 사회라면 원조 대상국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ㄷ. 정답 : 싱어는 원조의 최종 목적은 사회의 고통받는 개인들을 도와 그들의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독재 여부, 원조의 효과적 분배를 가능케 하는 정치 상황 등)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여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롤스는 원조의 최종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를 개선해 그 사회의 정치 체제가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원조 대상국을 정할 때 해당 국가의 정치 문화에 결함이 있는지 아닌지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갑, 을 모두 원조할 때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ㄹ. 정답 :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성원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절대 빈곤은 인권과 자유의 확립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원조 과정에서 절대빈곤층의 처지 개선이 필요할 수 있지만, 절대빈곤층의 처지 개선 자체가 원조의 주된 목표는 아니라고 본다. 반면, 싱어는 해외 원조는 인류 전체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절대적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사랑과 성의 관계
정답 ② 정답률 89%

① (가) : 성적 행위는 사적인 행위이므로 사회적 책임과 무관하다.
② (가) : 성적 행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③ (나) : 성적 행위가 합의로 이루어지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다.
④ (나) : 성적 행위에 대한 자유와 인격 존중의 의무는 상충한다.
⑤ (가)와 (나) : 성적 행위에서 인격 존중의 의무는 사랑이 동반된 관계에서만 요구된다.

해악 금지의 원칙

|자|료|해|설|
(가)는 성에 대한 보수주의 입장이다. 보수주의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이라는 법적 계약의 테두리 내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적 행위만을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는 성에 대한 자유주의 입장이다. 자유주의는 성은 쾌락을 가져다주고 쾌락은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목적을 지니기 때문에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다면 서로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성적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선|택|지|풀|이|
② 정답 : 보수주의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부관계에서만 성적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⑤ 오답 : 자유주의는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관계에서도 성적 행위에서의 인격 존중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보수주의는 부부간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본다.

9 분배적 정의관
정답 ④ 정답률 46%

보기
ㄱ. 갑 :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는 분배적 정의에 위배된다. (정형적 원리)
ㄴ. 갑 : 취득과 이전의 원칙을 통해서만 재화가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ㄷ. 을 : 공정한 절차를 따르면 부의 균등한 분배가 보장된다.
ㄹ. 갑과 을 : 국가는 불의한 분배를 교정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자|료|해|설|
갑은 노직이다. 노직은 어떤 개인이 정당하게 노동하여 최초로 재화를 취득하였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재화를 양도받았다면 그의 소유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은 롤스이다. 롤스는 분배의 원칙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것이라면 정의롭다고 보며,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기|풀|이|
ㄱ. 정답 : 노직은 사회적 유용도나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의 원리는 정형적이라고 비판하며 분배 정의의 정형적 원리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하게 되어 개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노직은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는 분배적 정의에 위배된다고 본다.
ㄴ. 정답 : 노직은 재화는 취득과 이전의 원칙을 통해서만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강제나 억압에 의해서 이전되기도 한다고 본다. 다만, 타인의 강제나 억압에 의한 이전은 정의로운 이전이 아니므로, 노직은 이러한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긍정한다.
ㄷ. 오답 : 롤스는 순수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는 사상가이다. 순수 절차적 정의란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은 없지만,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절차가 결과한 내용에 관계없이 그 결과를 공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롤스는 공정한 절차를 따랐다면 이후 결과로서 불균등한 분배가 발생해도 정의롭다고 본다.
ㄹ. 정답 : 노직과 롤스 둘 다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의 재분배를 인정한다. 따라서 노직과 롤스 모두 국가는 불의한 분배를 교정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

10 국가의 권위와 그 정당성
정답 ① 정답률 36%

홉스 ← 갑 :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이 자유 때문에 싸움을 피할 수 없다. 비참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로 계약을 맺음으로써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로크 ← 을 :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최고 권력인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에 양도한다.

① 갑 : 공통 권력이 없는 곳에는 정의나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 상태)
② 갑 : 군주는 사법권과 분쟁의 해결권을 갖지만 입법자는 아니다. → 사법권, 분쟁의 해결권, 입법권 모두 가짐
③ 을 : 개인의 재산 보존은 시민 사회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을 : 권력 분립에 의한 통치는 사회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갑과 을 :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는 정권 교체로 이어진다. (을: 저항권 인정)

|자|료|해|설|
갑은 홉스이다. 을은 로크이다.



문제편 10쪽

|선|택|지|풀|이|

① 정답 : 홉스는 자연 상태를 선과 악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공통의 규범이 없는 무도덕의 상태라고 규정하고,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 부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② 오답 : 홉스는 사회 계약을 통해 각 개인은 자연권을 양도하였기에 주권과 입법권을 가질 수 없고,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자연권을 양도받은 절대 군주만이 주권과 입법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③ 오답 : 로크는 각 개인 모두가 동의한 계약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받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개인의 재산 보존은 시민 사회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있다.
④ 오답 : 로크는 위임받은 권력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권과 집행권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권력 분립에 의한 통치는 사회 계약에 부합하는 것이다.
⑤ 오답 : 홉스는 사회 계약 과정에서 자연권을 위임했으므로 주권자의 행위가 시민 자신의 행위이며, 인위적 인격으로 통합된다고 본다. 따라서 주권자에 대한 비난, 저항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 저항이므로 저항권은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홉스는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정권 교체로 이어진다고 보지 않는다. 로크는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성립된 국가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군주의 자의적 권력 행사는 정권 교체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11 공리주의 | 정답 ① | 정답률 63%

① 도덕과 입법의 근거인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세요.
② 법안의 효용을 고려하기보다 의무 의식에 따라 결정하세요. → 칸트
③ 기술이 가져올 해악이 아닌 이익만을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④ 기술의 활용 결과가 아닌 개발 동기를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 칸트
⑤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사회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자|료|해|설|

제시문의 사상가는 공리주의의 대표적 사상가인 벤담이다.

|선|택|지|풀|이|

① 정답 : 공리주의는 더 많은 사회적 유용성을 가져오는 행위를 옳다고 보기 때문에, 도덕과 입법의 근거인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라고 주장한다.
③ 오답 : 벤담은 공리를 쾌락과 고통의 합계로 판단한다. 따라서 기술이 가져올 이익뿐만 아니라 해악도 고려해야 한다.
⑤ 오답 : 벤담은 사회란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개인의 이익의 합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벤담은 공동체의 이익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12 정약용의 공직자 윤리 | 정답 ⑤ | 정답률 90%

① 공직자는 청렴이 본연의 덕이며 의무임을 알아야 한다.
② 공직자는 절용을 실천하기 위해 자기 절제에 힘써야 한다.
③ 공직자는 법을 지키며 백성을 편안하고 이롭게 해야 한다.
④ 공직자는 공무를 처리할 때 사욕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⑤ 공직자는 백성이 자신을 두려워하도록 위세를 앞세워야 한다.

|자|료|해|설|

제시문의 사상가는 공직자가 청렴한 자세를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는 정약용이다.

|선|택|지|풀|이|

⑤ 정답 : 정약용은 공직자는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봉사해야 하며, 공직자가 백성과 정의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백성이 자신을 두려워하도록 위세를 앞세워야 한다고 하지 않는다.

13 평화의 가치와 국제 평화 | 정답 ③ | 정답률 57%

① 갑 : 각 국가는 매매를 통해 다른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있다.
② 갑 : 어떤 경우에도 타국인을 적대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③ 을 : 직접적 폭력의 제거는 진정한 평화 실현의 전제 조건이다.
④ 을 : 물리적 폭력의 제거는 구조적 폭력이 제거되어야 실현된다.
⑤ 갑과 을 : 폭력이나 전쟁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방어전 가능 / 평화는 평화적 방법으로

|자|료|해|설|

갑은 영구 평화론을 주장하는 칸트이다. 을은 적극적 평화를 강조하는 갈퉁이다.

|선|택|지|풀|이|

① 오답 : 칸트는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에서 어떠한 독립 국가도 타국의 소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② 오답 : 칸트는 이방인이 평화롭게 행동하는 한 우호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환대의 권리는 조건부적으로 보장된다.
③ 정답 : 갈퉁은 직접적 폭력, 사회 구조 속의 폭력,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를 제거해야만 진정한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직접적 폭력의 제거는 진정한 평화의 실현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④ 오답 : 갈퉁은 물리적 폭력의 제거는 구조적 폭력의 제거와 상관없이 제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구조적 폭력의 제거를 위해서는 법이나 정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14 대중문화와 관련된 윤리 문제 | 정답 ⑤ | 정답률 70%

보기

ㄱ. 문화 산업은 소비자에게 능동적인 체험 활동을 보장한다.
ㄴ. 문화 산업은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재생산하려 한다.
ㄷ. 문화 산업의 대중매체는 소비자의 의식을 지배하려 한다.
ㄹ. 문화 산업의 생산물은 대중이 활발하게 소비하도록 만든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자|료|해|설|

그림의 강연자는 문화 산업을 비판하는 입장의 아도르노이다.

|보|기|풀|이|

ㄱ. 오답 :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이 대중의 창의성을 저해하며 대중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어 소비자가 능동적인 체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ㄴ. 정답 :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으로 인해 대중문화가 규격품을 만들어 내듯이 인간을 획일화시켜 대중으로 하여금 각자의 고유한 예술 체험과 능동적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ㄷ. 정답 :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이 대중의 사고를 포섭하고 통제함으로써 사고를 획일화시키고 소비자의 의식을 지배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ㄹ. 정답 :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이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하고 통제함으로써 대중이 문화 산업의 생산물을 활발하게 소비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한다.

15 인간 중심주의 윤리, 동물 중심주의 윤리, 생명 중심주의 윤리 | 정답 ③ | 정답률 21%

보기

	갑	을	병
ㄱ. A :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내재적 가치, 도구적 가치)	×	×	×
ㄴ. B : 인간이 생명을 가진 존재를 차별하는 것은 잘못인가?		×	○
ㄷ. C : 동물을 이용하는 인간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ㄹ. D : 개체가 고유의 선을 지녀야만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내재적 가치 지님, 목적론적 삶의 중심)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자|료|해|설|

갑은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 칸트이다. 을은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 싱어이다. 병은 생명 중심주의 사상가 테일러이다.

|보|기|풀|이|

ㄱ. 오답 : 칸트는 인간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이성이 결여된 동물은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는 모두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칸트, 싱어, 테일러 모두 생명체 중에서 인간만이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보지 않는다.
ㄴ. 오답 : 싱어는 생명을 가진 존재 중에서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이 생명을 가진 존재 중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지만 그 외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보지 않는다. 테일러는 생명을 가진 존재는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생명의 목적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이 생명을 가진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ㄷ. 정답 : 싱어는 자연을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칸트와 테일러도 자연을 이용하는 인간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ㄹ. 정답 :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기에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할 존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고유의 선이나 목적을 지니지 않은 무생물은 자연에 대한 존중이라는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6 덕 윤리, 칸트의 의무론 | 정답 ④ | 정답률 52%

① 갑 : 덕에 따르는 삶을 위해 공동체의 전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② 갑 : 인간은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품성적 덕을 길러야 한다.
③ 을 : 의무에 맞는 모든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④ 을 : 이성적 존재는 스스로 도덕 법칙의 수립자가 되어야 한다.
⑤ 갑과 을 : 도덕적 행위를 하려면 자연적 경향성을 따라야 한다.

습관에 의해 후천적으로 형성 / 의무에서 비롯된

|자|료|해|설|

갑은 덕 윤리를 주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을 통해 지성적 덕을 형성하고 올바른 행동의 지속적 실천과 습관화를 통해 품성적 덕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은 의무론을 주장하는 칸트이다. 칸트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며, 실천 이성의 인식 활동을 통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도덕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편 11~12쪽

|선|택|지|풀|이|

① 오답 :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시민의 삶은 덕을 갖춘 좋은 인간의 삶과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좋은 시민은 정치 공동체인 폴리스의 전통 속에서 덕을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주장한다.
③ 오답 : 칸트는 이기적인 의도에서 의무에 맞는 행위를 하거나, 동정심과 같은 경향성에 따라 우연히 의무에 맞는 행위를 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의무에 맞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정답 : 칸트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만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스스로 세우고 행위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라고 주장한다.
⑤ 오답 :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은 주관적이기에 보편적이고 절대적 성격을 가진 도덕 법칙의 근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7 시민 불복종 | 정답 ④ | 정답률 37%

롤스 - 저항의 기준 :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

> 우리는 시민 불복종 행위를 통해서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신중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보기
ㄱ. 부정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법은 준수되어야 한다.
ㄴ. 시민 불복종은 비합법적인 정부에 대한 정당한 항거이다.
ㄷ.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준법의 의무와 부정의에 저항할 의무가 상충할 수 있다.
ㄹ.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의 시민들이 갖는 양심적인 신념들 간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자|료|해|설|

제시문의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어느 정도 정의로운 사회에서 다수의 정의관에 현저하게 어긋나는 법과 정책의 개선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보|기|풀|이|

ㄱ. 정답 : 롤스는 부정의한 법일지라도 공적인 정의관에 현저하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사회의 구성원은 그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ㄴ. 오답 :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 다수의 정의관에 어긋나는 법과 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치적 행위로서 시민 불복종을 주장한다. 따라서 비합법적인 정부가 존재하는 경우와 같이 사회의 기본 구조가 현저하게 부정의한 경우, 시민 불복종이 아닌 사회 체제 자체의 변혁을 추구하는 혁명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본다.
ㄷ. 정답 : 롤스는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준법의 의무와 부정의에 저항할 의무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ㄹ. 정답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의 기본 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갖는 양심적인 신념들 간의 불일치를 줄여준다고 주장한다. 그런 점에서 시민 불복종은 민주 체제 발전에 도움이 되며, 위법 행위이긴 하지만 도덕적 행위이다.

18 종교의 의미와 본질 | 정답 ② | 정답률 50%

엘리아데 - 세속과 성스러움의 조화 강조

>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들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예를 들면, 신의 현존에 의해서 정화된 장소나 사물에 머무르는 경우와 같이 직접 신들과 교류하는 신성성만의 것은 아니다. 신들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행했다. 그들은 세계와 우주적 현상의 구조 그 자체 안에서 다양한 성(聖)의 양태를 현현(顯現)한다.

사물이 신 자체는 아님

① 성스러운 공간에는 성스러운 것의 출현이 결부되어 있다.
② 성스러움이 드러난 사물을 신 그 자체와 동일시해야 한다.
③ 성스러움을 가시적인 형태로 구현하는 것은 자연의 대상들이다.
④ 성스러운 세계에서만 종교적 인간은 참된 실존을 가질 수 있다.
⑤ 성스러운 세계와 세속은 분리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지 않다.

|자|료|해|설|

제시문의 사상가는 엘리아데이다. 엘리아데는 성스러움과 세속이 단절되어 있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그는 인간의 세속적 삶 속에서 언제나 성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택|지|풀|이|

① 오답 : 엘리아데의 성현(聖顯) 개념에 따르면 성스러움은 세속의 존재, 구조를 통해 드러난다. 따라서 성스러운 공간 역시 공간이라는 세속적 구조에 성스러운 것의 출현이 결부된 것이다.
② 정답 : 엘리아데는 자연 그 자체를 신으로 보지는 않는다. 성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자연물은 성스러움이 현현된 존재라고 주장한다.
③ 오답 : 엘리아데는 성은 세속과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들어와 우리의 체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스러움을 가시적인 형태로 구현하는 것은 자연의 대상들이라고 본다.
④ 오답 : 엘리아데는 성스러운 세계에서만 종교적 인간은 참된 실존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⑤ 오답 : 엘리아데는 성스러운 세계와 세속은 분리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문제 | 정답 ① | 정답률 84%

①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직장에서의 의사소통 단절을 야기한다.
②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④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하다.
⑤ 고용주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료|해|설|

칼럼에서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뉴 미디어 사회에서는 근로자가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이로 인해 근무 시간 외 업무 연락으로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이 제시되었다.

|선|택|지|풀|이|

① 정답 : 칼럼에서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근무 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해당 권리는 근무 시간 내 업무와 관련한 연락 등 직장에서의 의사소통 자체의 단절을 야기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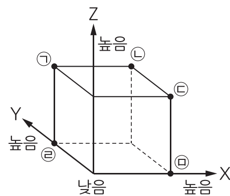
20 과학 기술자의 책임 | 정답 ③ | 정답률 78%

과학자의 내적 책임 인정, 외적 책임 부정

> (가) 과학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면서 자신의 연구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야 한다.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므로 활용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과학자의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 모두 인정

> (나) 과학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면서도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활동이 인간 존엄성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 X : 과학자가 인류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 ↑
• Y : 과학자의 연구 활동이 사회적 책임과 무관함을 강조하는 정도 ↓
• Z : 과학 기술 활용에 대한 과학자의 윤리적 성찰을 강조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자|료|해|설|

(가)는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활용되는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입장이다. (나)는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의 입장은 (가)의 입장에 비해 과학자가 인류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X축)는 높고, 과학자의 연구 활동이 사회적 책임과 무관함을 강조하는 정도(Y축)는 낮고, 과학 기술 활용에 대한 과학자의 윤리적 성찰을 강조하는 정도(Z축)는 높다.

|선|택|지|풀|이|

③ 정답 : ㉢은 X축은 높고, Y축은 낮고, Z축은 높다.



문제편 12쪽

03회 2024년 3월 고3 학력평가
정답과 해설 생활과 윤리

문제편 p.13

1	④	2	②	3	④	4	③	5	①
6	①	7	④	8	⑤	9	③	10	①
11	②	12	①	13	③	14	②	15	③
16	④	17	①	18	⑤	19	⑤	20	②

1 기술 윤리학과 실천 규범 윤리학 정답 ④ 정답률 87%

① (가) : 삶의 방향 정립을 위한 도덕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 이론 규범 윤리학
② (가) : 윤리학이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 메타 윤리학
③ (나) : 도덕 명제를 구성하는 개념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 메타 윤리학
④ (나) :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⑤ (가)와 (나) : 도덕 추론의 과정이 타당한지를 논증하는 것이다. → 메타 윤리학

|자|료|해|설|
(가)는 기술 윤리학, (나)는 실천 규범 윤리학이다. 기술 윤리학은 개인의 신념 및 사회 · 문화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을 경험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본다. 실천 규범 윤리학은 이론 규범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다양한 도덕 쟁점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본다.

|선|택|지|풀|이|
④ 정답 : 실천 규범 윤리학은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 제공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2 죽음에 대한 동서양의 관점 정답 ② 정답률 68%

보기
ㄱ. 갑 :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ㄴ. 을 : 중생은 열반에 이르러야 다음 생의 행복을 보장받는다.
ㄷ. 을 : 불멸(不滅)을 갈망하는 인간에게는 생사가 반복된다. → 집착
ㄹ. 갑과 을 : 인간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자|료|해|설|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석가모니이다. 에피쿠로스는 경험주의적 관점에서 죽음이 오면 인간은 존재하지 않기에 죽음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현자(賢者)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즐거운 삶을 누리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한다. 석가모니는 삼학(三學) 수행을 통해 삼독(탐 · 진 · 치)에서 벗어나면 해탈(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해탈에 이르면 중생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기|풀|이|
ㄱ. 정답 :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죽음은 원자의 흩어짐이며, 모든 감각의 소멸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다.
ㄴ. 오답 : 석가모니에 따르면 열반에 이른 존재는 삶과 죽음의 굴레를 끊어낸 존재이다. 따라서 다음 생의 행복, 즉 내생(來生)에서의 복락(福樂)을 보장받지 않는다.
ㄷ. 정답 : 석가모니에 따르면 불멸에 대한 갈망은 무명(無明)에 따른 집착이다. 따라서 이 집착으로 인해 번뇌에 시달리는 존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으며,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에게는 생사 윤회가 반복된다.
ㄹ. 오답 : 에피쿠로스가 부정할 내용이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죽음은 원자의 소멸이므로 인간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사라진다.

3 칸트의 평화 사상 정답 ④ 정답률 47%

① 모든 국가는 이방인에 대한 환대권을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 → 조건부 보장
② 국가 간 평화 조약으로 국제 사회의 영원한 평화가 보장된다.
③ 영구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전쟁도 허용되면 안 된다.
④ 국가 간 평화 보장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⑤ 국가의 주권은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 연맹에 양도되어야 한다.

|자|료|해|설|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이성적 인간뿐만 아니라 주권 국가도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한 국가를 다른 국가가 병합 · 매매하는 것은 영원한 평화 추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칸트는 모든 국가의 단일체제(세계 국가) 대신 현실적 대안으로 평화 연맹(국제 연맹) 설립을 주장했다.

|선|택|지|풀|이|
③ 오답 : 칸트는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상비군 제도를 반대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을 반대한 것은 아니며, 타국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전은 인정한다.
④ 정답 : 칸트는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으로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공화 정체는 원초적 계약의 이념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고, 법률상의 입법이 근거해야만 하는 공화제라고 강조한다.
⑤ 오답 : 칸트는 국제 연맹의 목적이 개별 국가의 자유를 지속시키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평화 연맹 자체는 주권을 지니지 않으며, 개별 국가가 국제 연맹에 주권을 양도할 필요도 없다고 보았다.

4 시민 불복종 정답 ③ 정답률 45%

보기
ㄱ. 시민 불복종은 항의의 대상이 되는 법을 위반할 때만 정당화된다. → 간접적 불복종도 인정
ㄴ.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위해 시민 불복종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ㄷ. 정의의 원칙과 일치하는 종교적 신념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ㄹ. 시민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한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 정의의 1원칙 침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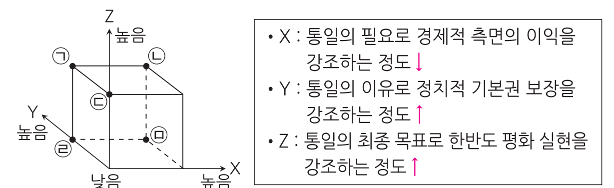
|자|료|해|설|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 사회 다수가 갖는 정의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시민 불복종은 정치적 영역이므로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형태로 전개되어야 하며,(단, 양심 자체가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기|풀|이|
ㄱ. 오답 :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항의의 대상이 되는 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만을 포함하지 않는다. 간접적인 불복종 방식, 즉 항의의 대상이 되는 법 외에 다른 법을 위반함으로써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는 방식도 포함한다.
ㄴ. 정답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사회 체제에 극심한 무질서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면, 정치 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히 제한될 수도 있다고 본다.
ㄷ. 오답 : 롤스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이 정의의 원칙에 일치하더라도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는 될 수 없다.
ㄹ. 정답 : 롤스에 따르면 정의의 제1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한 법이나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제1원칙의 핵심은 각자가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한 정책은 시민 불복종 대상이다.

5 통일에 대한 관점 논쟁 정답 ① 정답률 80%

(가)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해소되어야 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경제적 이익의 증진이다. 분단으로 인한 전쟁 위험은 남북한 주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모적인 군사비 지출과 같은 문제가 분단의 더욱 큰 폐해다. 따라서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경제적 번영이다. ← - 경제 편익 중시

(나)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해소되어야 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적극적 평화의 실현이다. 분단으로 인한 전쟁 위험은 남북한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한 주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구조적 폭력이 지속되는 것이 분단의 더욱 큰 폐해다. 따라서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내 모든 폭력의 제거다. ← - 적극적 평화 중시 - 정치적 권리 중시



① ㉠ ② ㉡ ③ ㉢ ④ ㉣ ⑤ ㉤

|자|료|해|설|
(가)는 경제적 이익 관점의 통일 찬성론, (나)는 적극적 평화 실현 관점의 통일 찬성론이다. (나)는 (가)에 비해 통일의 필요성으로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는 정도(X)가 낮고, 통일의 이유로 구조적 폭력 제거와 관련하여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는 정도(Y)는 높으며, 통일의 최종 목표로 경제적 실익보다 한반도 평화 실현을 강조하는 정도(Z)가 높다.

|선|택|지|풀|이|
① 정답 : X축이 낮고 Y축이 높고 Z축이 높다.

6 도가 윤리적 접근, 유교 윤리적 접근 | 정답 ① | 정답률 57%

상대주의

장자(도가) : 시비 초월 ← 갑 : 옳음으로 말미암아 그릇됨이 있고, 그릇됨으로 말미암아 옳음이 있다. 성인(聖人)은 이쪽과 저쪽의 구분에 의거하지 않고 하늘[天]에 비추어 생각한다.

공자(유교) : 시비 분별 ← 을 : 군자(君子)가 인(仁)을 떠나면 어찌 군자라는 이름을 이룰 수 있겠는가. 군자는 밥을 먹는 동안에도 인을 떠남이 없으니, 다급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인에 머문다.

	갑	을
① 마음의 수양을 통해 도(道)를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가?	○	○
②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무위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	×
③ 차별 없는 사랑[兼愛]을 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가?	×	×
④ 시비선악을 분별하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가?	×	
⑤ 성인이 제정한 예를 바탕으로 만물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는가?	×	×

|자|료|해|설|
갑은 도가 사상가인 장자, 을은 유교 사상가인 공자이다.

|선|택|지|풀|이|
① 정답 : 장자와 공자 모두 긍정할 내용이다. 장자는 이상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수양(좌망, 심재)이 필요하며, 만물의 법칙인 도를 따르며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자는 학문과 마음 수양을 통해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道]를 추구하는 삶을 긍정한다.
② 오답 : 장자는 긍정, 공자는 부정할 내용이다. 장자는 사회 혼란의 원인인 인위적 규범에서 벗어나 무위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공자는 인위적 규범을 지킬 것을 강조한다.
③ 오답 : 장자와 공자 모두 부정할 내용이다. 차별 없는 사랑인 겸애(兼愛)를 주장한 사상가는 묵자이다.
④ 오답 : 장자가 부정할 내용이다.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보아 시비선악과 같은 분별적 지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며,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고 하나가 되는 삶(물아일체 또는 물화)을 긍정한다.
⑤ 오답 : 장자와 공자 모두 부정할 내용이다. 장자는 만물의 가치를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제물)고 강조하였으나 예(禮)를 인위적 규범으로 보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규정한다. 공자는 분별이 있는 사랑을 강조하였다.

7 해외 원조의 윤리적 근거 | 정답 ④ | 정답률 61%

보기
ㄱ. 갑 : 국내 부조가 해외 원조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ㄴ. 을 : 해외 원조의 목적 달성은 원조 대상국의 기근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ㄷ. 을 : 질서 정연한 사회를 규제하는 모든 정의 원칙을 해외 원조에 적용해야 한다.
ㄹ. 갑과 을 : 해외 원조는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자|료|해|설|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보|기|풀|이|
ㄱ. 오답 : 싱어의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르면 국내 빈곤자와 해외 빈곤자의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 빈곤자가 더 큰 고통에 시달린다면 국내 부조가 해외 원조보다 우선될 수 있다.
ㄴ. 정답 : 롤스에 따르면 기근 해소 자체가 원조의 목적은 아니지만, 질서 정연한 사회 전환이라는 원조 목적은 원조 대상국의 기근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롤스는 원조 대상국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면 그들 스스로 정의로운 사회 기본 구조 정립을 통해 국내 빈곤 퇴치와 복지 수준 향상을 추구할 것이라고 보았다.
ㄷ. 오답 : 롤스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은 국내 사회에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 원조와 같은 국제 문제에는 모든 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ㄹ. 정답 : 싱어와 롤스 모두 긍정할 내용이다. 싱어는 원조를 제공받은 정부가 원조의 목적을 헛되게 만드는 정책을 집행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 고려에 따라 원조의 목적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국가에 원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조는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다른 국가에 대신 제공될 수 있다. 롤스는 원조 대상국이 정치적으로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된다면(원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원조를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8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 정답 ⑤ | 정답률 75%

① 담론을 거쳐 도출된 결론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허용될 수 없다.
② 담론의 과정에서 참여자는 사적인 욕구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
③ 담론 참여자는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 타당한 규범에 도달한다.
④ 담론을 통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만 강제력이 요청된다.
⑤ 담론 참여자는 상호 주관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자|료|해|설|
사상가는 하버마스이다.

|선|택|지|풀|이|
③ 오답 : 하버마스에 따르면 담론 절차를 거쳐 타당한 규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담론 참여자들의 보편적 합의(만장일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수의 선호, 다수결의 원칙은 부적절하다.
⑤ 정답 : 하버마스에 따르면 의사소통 행위는 사회적 행위자들이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서로의 행위 계획을 조정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담론은 홀로 사유하는 '나'의 주관성을 넘어 타인과의 상호 주관적 합의를 목표로 해야 한다.

9 사랑과 성의 관계 | 정답 ③ | 정답률 50%

① 쾌락을 위한 성적 관계는 도덕적 평가 대상이 아님을 간과한다
② 자발적 성적 관계에는 어떤 책임도 부과되지 않음을 간과한다
③ 생식적 가치 존중 없이 성적 관계 정당화가 가능함을 간과한다
④ 성적 관계의 정당화에 인격적 가치 존중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⑤ 사랑하는 사이의 성적 관계도 비도덕적일 수 있음을 간과한다

|자|료|해|설|
'나'는 자유주의 성 윤리 입장, '어떤 사람들'은 보수주의 성 윤리 입장이다.

|선|택|지|풀|이|
① 오답 : 자유주의는 쾌락을 위한 성적 관계도 도덕적 평가(옳고 그름, 선과 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② 오답 : 자유주의는 성인 간의 자발적 성적 관계에도 도덕적 책임(인격 존중 등)이 부과된다고 본다.
③ 정답 : 자유주의는 성적 관계에 자발적 동의와 도덕적 책임이 있다면 생식적 가치 존중 없이 성적 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④ 오답 : 인격적 가치는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 모두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⑤ 오답 : 보수주의는 사랑하는 사이라도 결혼과 부부 관계가 아닌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는 비도덕적이라고 볼 것이다.

10 인간 중심주의 윤리, 생명 중심주의 윤리, 동물 중심주의 윤리 | 정답 ① | 정답률 27%

보기	갑	을	병
ㄱ. A :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라면 도덕 행위자로 간주해야 한다.	○	×	×
ㄴ. B :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ㄷ. C :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하여 가치(내재적, 본래적 가치)를 지닌 존재의 이용은 해악보다 이익이 크다면 정당화된다.			×
ㄹ. D :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생명체)만이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자|료|해|설|
갑은 칸트, 을은 테일러, 병은 레건이다. 칸트는 비이성적인 동물과 관련한 인간의 의무는 단지 인간에 대한 간접적 의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동물들에 관련한 감사의 정을 표현하거나 하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볼 때는 언제나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한다. 테일러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 개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인간이 동식물보다 본질적으로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입장을 부정한다. 그리고 동식물의 선의 실현을 인간의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하여 보아야 함을 강조한다. 레건은 어떠한 개체가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식을 갖는 것 이상의 조건(쾌고 감수 능력, 미래에 대한 인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삶의 주체인 개체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우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고 강조한다.

|보|기|풀|이|
ㄱ. 정답 : 칸트는 긍정, 테일러와 레건은 부정할 내용이다. 칸트는 목적 그 자체인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간주한다. 테일러와 레건은 도덕 수동자(Moral patient)라도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ㄴ. 정답 : 칸트와 테일러는 긍정, 레건은 부정할 내용이다. 칸트와 테일러에게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레건에 따르면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 쾌고 감수 능력이 포함된다. 따라서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중의 하나이다.
ㄷ. 오답 : 레건이 부정할 내용이다. 레건은 의무론적 관점에서 유용성(이익과 해악) 여부로 도덕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공리주의를 비판한다. 따라서 레건은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하여 가치(내재적 가치, 본래적 가치)를 지닌 존재에 대한 이용의 정당성을 이익에서 찾지 않는다.
ㄹ. 오답 : 테일러가 부정할 내용이다. 테일러에 따르면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은 존재도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테일러는 '불간섭의 의무(규칙)'를 언급하며, 자연 생태계를 조작, 통제, 변형 또는 관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단, 생태계 자체의 고유의 선은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편 14쪽

11 요나스의 책임 윤리 | 정답 ② | 정답률 74%

① 현세대는 인류가 미래에도 존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과학 기술에 대한 공포는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축소시킨다.
③ 현세대에게는 미래 세대에 대한 일방적인 윤리적 책임이 있다.
④ 인간이 책임져야 할 대상에는 비이성적 존재가 포함될 수 있다.
⑤ 인간의 책임질 수 있는 능력에서 책임져야 할 의무가 비롯된다.

|자|료|해|설|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전통 윤리학의 범위 및 대상이 협소했음을 비판한다. 구체적으로는 도덕적 명령이 행위의 직접적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고, 인간 간의 규범에만 적용되었음을 비판한다. 그리고 과학 기술 시대에 현세대인 인간 행위의 본성과 힘(권력)이 과거와 달라졌기에 과학 기술 시대에 맞는 새로운 책임 윤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선|택|지|풀|이|
② 정답 : 요나스에 따르면 과학 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공포(또는 최고악에 대한 공포)는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확장시킨다.
④ 오답 : 요나스에 따르면 책임의 주체는 현세대 인간이며, 책임의 대상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등 비이성적인 존재가 포함될 수 있다.

12 칸트의 의무론 | 정답 ① | 정답률 76%

①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를 동기로 삼아 행위하세요.
② 어떤 대안이 최선의 결과를 낳을지를 계산하여 행위하세요. → 공리주의
③ 자신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위하세요. (→ 명예에 대한 경향성)
④ 지적인 덕과 품성적 덕을 갖춘 사람을 본받아서 행위하세요. → 아리스토텔레스
⑤ 자신의 선택에 따른 쾌락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행위하세요. → 밀

|자|료|해|설|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정언 명령에서 인간성(인격) 존중의 정식(定式)을 제시하며, 모든 이성적인 존재(자기 자신도 포함)를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존엄하게) 대우해야 함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은 옳지 못하나, 수단으로 대우하면서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택|지|풀|이|
① 정답 : 칸트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경향성과 상관없이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를 행위 동기로 삼아 행위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③ 오답 : 칸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즉 명예에 대한 경향성에 따라 행위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본다.

13 국가의 권위와 그 정당성 | 정답 ③ | 정답률 42%

보기
ㄱ. 갑 : 일반 의지는 언제나 올바르며 공공의 선을 지향한다.
ㄴ. 을 : 재산에 대한 권리는 사회 계약에 의해서만 형성된다.
ㄷ. 갑과 을 : 계약 참여자들의 만장일치의 동의로 사회 계약이 성립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자|료|해|설|
갑은 루소, 을은 로크이다. 루소는 각자의 신체와 모든 힘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수 사람이 결합하여 하나의 일체를 형성할 때, 그들은 '공동의 보전'과 '일반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라는 단 하나의 의지(일반 의지)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로크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법률과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공동체에 신탁하여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보|기|풀|이|
ㄱ. 정답 : 루소에 따르면 일반 의지는 언제나 올바르며 공익을 지향하는 의지이다.
ㄴ. 오답 : 로크는 재산에 대한 권리는 사회 계약 이전에도 존재하는 권리라고 본다. 로크는 자연 상태의 인간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정치 사회를 구성한다고 본다.
ㄷ. 정답 : 루소와 로크 모두 긍정할 내용이다. 사회 계약론자들에 따르면 계약 참여자들의 만장일치의 동의로 사회 계약이 성립된다. 왜냐하면 사회 계약은 희망하는 사람들끼리의 계약이므로 만장일치이고, 계약에 비동의하여 자연 상태에 남고 싶은 사람은 계약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14 동서양의 직업관 | 정답 ② | 정답률 81%

① 갑 : 대인과 소인은 모두 생산을 위한 육체노동에 힘써야 한다.
② 갑 : 통치자와 백성의 직분은 구분이 되면서도 상호 보완적이다.
③ 을 :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수호자의 재산 축적을 허용해야 한다.
④ 을 : 계층 간 역할 교환을 바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⑤ 갑과 을 :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직무가 주어질 때 정의로운 국가가 완성된다.

|자|료|해|설|
갑은 유교 사상가인 맹자, 을은 플라톤이다. 맹자는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혼자 세상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천하에는 대인의 일과 소인의 일이 있으며,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하여 서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플라톤은 자신이 타고난 덕에 가장 어울리는 한 가지 일에 종사하여 국가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단, 국가의 통치자는 타고난 덕뿐만 아니라 통치자가 되기 위한 후천적 교육도 필요함에 유의해야 한다.)

|선|택|지|풀|이|
① 오답 : 맹자에 따르면 소인은 육체노동에 힘써야 하며, 대인은 다스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
② 정답 : 맹자에 따르면 공동체 내의 직분은 마땅히 구분되어야 하며,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분을 통해 서로 도와야 한다.
③ 오답 : 플라톤에 따르면 정의로운 국가의 수호자(통치자 + 방위자)는 가족 형성이나 재산 축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단, 생산자 계층은 재산 축적이 허용된다.

15 분배적 정의관 | 정답 ③ | 정답률 31%

보기
ㄱ. A :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최우선의 분배 원칙이 되어야 하는가? (→ 공리주의) 갑 × 을 ×
ㄴ. B :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은 타인의 복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ㄷ. B : 정의의 원칙을 채택할 때 공정한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가? ×
ㄹ. C : 자유롭게 이전받은 배타적 소유권도 제한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자|료|해|설|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롤스는 평등한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성향을 보이며, 타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상태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무지의 베일을 통해 당사자들은 모든 합의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 원칙에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직은 롤스와 달리 소유물의 취득, 이전(양도), 시정(교정)의 원리를 정의의 원리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얻은 개인의 소유물이 정당하다면 소유물의 전체 집합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보|기|풀|이|
ㄱ. 오답 : 롤스와 노직 모두 부정할 내용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분배 원칙을 따르는 사상은 공리주의이다. 롤스와 노직 모두 공리주의 분배 원칙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비판한다.
ㄴ. 정답 : 롤스에 따르면 자신의 이익만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단계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할 때이다. 이때 합의 당사자들은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 이익을 보장하여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되는 것(정의의 제2원칙)'에 합의한다. 이러한 정의의 원칙이 규제하는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은 정의의 원칙에 따르므로 타인의 복리(福利)에 관심을 갖는다.
ㄷ. 오답 : 롤스가 강조하는 순수 절차적 정의는 공정한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정한 절차가 존재하는 정의이다.
ㄹ. 정답 : 노직은 어떠한 사람이 소유물을 자유롭게 이전받아 배타적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에 역사적인 부정의가 있었다면 교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노직에 따르면 이러한 교정은 배타적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 정당한 제한이다.

문제편 15쪽

16 도덕주의, 심미주의
정답 ④ | 정답률 63%

① 갑 : 미를 추구하는 예술 활동은 선의 추구를 지양해야 한다.
② 갑 : 예술가의 자유를 보장할수록 예술을 통해 선이 증진된다.
③ 을 : 도덕적 삶은 예술가가 다루는 소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④ 을 : 예술 활동에서의 도덕성 추구는 작품의 독창성을 저해한다.
⑤ 갑과 을 : 예술은 작품을 통해 도덕적 본보기를 제공해야 한다.

|자|료|해|설|
갑은 도덕주의 예술관의 플라톤, 을은 심미주의 예술관의 와일드이다. 플라톤은 예술이 인간 품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좋지 않은 가치를 담아낸 작품을 보고 자란 젊은이들은 혼 안에 나쁜 것이 쌓인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의한 예술의 선별을 옹호한다. 와일드는 예술의 가치는 미적 형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와일드가 도덕적 요소를 작품 소재에서 무조건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와일드는 도덕적 교훈을 담은 작품만이 예술 가치가 있다는 기존의 관점을 비판한 것이다.

|선|택|지|풀|이|
③ 오답 : 와일드는 작가가 작품에서 도덕적 삶을 소재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와일드의 심미주의 핵심 주장은 도덕적 소재가 포함되지 않은 작품도 가치가 있음을 옹호하는 것이다.
④ 정답 : 와일드는 예술 활동에서의 도덕성 추구는 작품의 미적 독창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다.

17 교정적 정의와 처벌에 대한 관점
정답 ① | 정답률 42%

보기
ㄱ. 갑 : 형벌의 목적은 시민의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ㄴ. 갑 : 종신 노역형은 시민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집행되어야 한다.
ㄷ. 을 : 사형은 살인범의 범죄 행위에 대해 보복하는 것이다.
ㄹ. 갑과 을 : 형벌로 인한 공익이 형벌의 해악보다 커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자|료|해|설|
갑은 베카리아, 을은 칸트이다. 베카리아는 법은 사회 계약의 산물이며, '최대 다수가 공유하는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또한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낮으며, 지나치게 잔혹하기 때문에 종신 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칸트는 종신 노역형을 주장하는 베카리아를 비판하며, 사형은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있음을 옹호한다. 또한 살인자를 종신 노역형으로 삶의 영역에 남겨두는 것은 살인자를 사회적 선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보|기|풀|이|
ㄱ. 정답 : 베카리아는 형벌이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형벌은 시민(구경꾼)에게 공포감을 주어 유사 범죄를 예방시켜야 한다.
ㄴ. 오답 : 베카리아는 종신 노역형과 같은 형벌은 범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경꾼, 즉 시민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ㄷ. 정답 : 칸트는 사형이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보편적 도덕 법칙에 따라 의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형은 살인범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적 보복이 되어야 한다. 단, 피해자의 사적 보복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ㄹ. 오답 : 베카리아는 긍정, 칸트는 부정할 내용이다. 베카리아는 형벌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형벌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보다 커야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칸트는 사회적 선을 위해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범죄자를 마치 물건처럼 대우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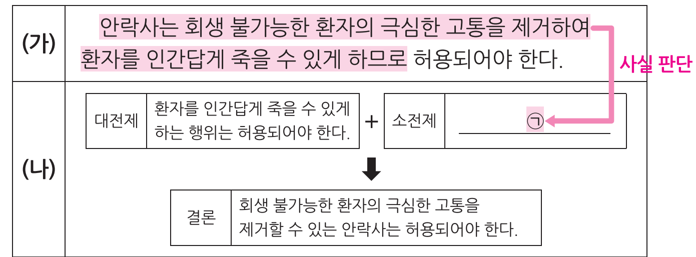
18 아도르노의 문화 산업론
정답 ⑤ | 정답률 66%

① 문화 산업은 대중이 주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② 문화 산업은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 노력한다.
③ 문화 산업은 고유성을 지닌 상품 생산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④ 문화 산업은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의 욕구에 기반해 확산된다.
⑤ 문화 산업은 체제의 지배 이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자|료|해|설|
강연자는 아도르노이다.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 속 대중은 자신이 문화 산업을 이끄는 주체라고 여기지만 사실 착각이라고 분석한다. 아도르노는 대중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묶여 있으며, 소비자의 욕구는 문화 산업 체제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문화 산업 생산물에 대한 대중의 무비판적 수용은 예술을 넘어 기득권이 체제의 지배 이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선|택|지|풀|이|
② 오답 :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이 현실을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는 상업 자본의 영향력과 문화 산업을 통제하는 자본가들의 관점에 기인한다.
⑤ 정답 :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으로 대중의 사유 불능이 확산되면 그 자리를 체제의 지배 이념(이데올로기) 정당화가 채운다고 비판한다.

19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
정답 ⑤ | 정답률 60%



① 안락사는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허용될 수 있다. → 찬성
② 안락사는 환자가 지닌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행위이다. → 찬성
③ 안락사는 환자의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 찬성
④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 찬성
⑤ 안락사는 환자가 가진 생명권을 침해하는 인위적 죽음이다. → 반대

|자|료|해|설|
(가)에서는 안락사는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제거하여 환자가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게 하므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안락사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실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소전제에는 "안락사는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제거하여 환자를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게 한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며, "안락사는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제거하여 환자를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게 한다."에 대한 반론의 근거가 정답이 된다.

|선|택|지|풀|이|
⑤ 정답 : 안락사는 인위적 죽음이며, 타인에 의하여 환자의 생명권이 침해받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은 반대 근거이므로 적절하다.

20 AI 교사 도입 논쟁
정답 ② | 정답률 83%

갑 : 글쓰기 수행 평가를 채점하는 인공 지능 교사(AI 교사) 도입에 대해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자동화된 채점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AI 교사 전면 찬성
을 : 효율성 차원에서는 AI 교사 도입을 찬성하지만, 채점의 공정성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알고리즘으로 채점하느냐에 따라 채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AI 교사 조건부 찬성
갑 : 아닙니다. AI 교사는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점 알고리즘을 채택해 적용하므로 채점의 공정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채점 알고리즘 적용으로 글쓰기가 다양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을 : AI 교사의 도입으로 평가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평가 기준 자체가 편향적이어서 공정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특정 알고리즘에 대비하다 보면 글쓰기가 정형화되면서 다양한 글쓰기가 위축됩니다.

	갑	을
① AI 교사는 일률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	○
② AI 교사 도입은 채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	×
③ AI 교사 도입은 학생들의 글쓰기에 영향을 끼치는가?	○	○
④ AI 교사 도입으로 수행 평가 채점 시간이 줄어드는가?	○	○
⑤ AI 교사 도입에 있어 효율성은 고려되어야 할 조건인가?	○	○

|자|료|해|설|
갑은 글쓰기 수행 평가를 자동 채점하는 AI 교사 도입에 대해 전면 찬성하는 입장, 을은 AI 교사 도입에 대해 조건부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선|택|지|풀|이|
② 정답 : 갑은 긍정, 을은 부정할 질문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다. 갑은 AI 교사의 채점 알고리즘을 따르면 채점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 을은 평가 기준 자체가 편향적이어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편 16쪽

04회 2022년 4월 고3 학력평가 정답과 해설 생활과 윤리

문제편 p.17

1	③	2	③	3	④	4	①	5	⑤
6	⑤	7	②	8	②	9	④	10	④
11	③	12	④	13	⑤	14	③	15	①
16	⑤	17	④	18	②	19	⑤	20	①

1 이론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 | 정답 ③ | 정답률 78%

나는 윤리학이 도덕 판단의 기준과 도덕적 행위의 이론적 근거를 탐구하고 도덕규범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부 윤리학자들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탐구하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을 윤리학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주장은 윤리학이 (㉠)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론 규범 윤리학 - 윤리 이론 정립 - 현실의 윤리적 문제 해결의 토대 제공

메타 윤리학 -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 -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 검토

→ 이론 규범 윤리학의 메타 윤리학 비판

① 도덕 판단의 논리적인 구조를 분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② 도덕적 명제의 진위에 대한 검증 가능성을 탐구해야 한다
→ 메타 윤리학
③ 선악 판단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④ 도덕적 관습에 대한 인과적 서술을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
⑤ 도덕규범을 가치 판단이 배제된 경험적 사실로 간주해야 한다
→ 기술 윤리학

|선|택|지|풀|이|

③ 정답 : 이론 규범 윤리학은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를 정립하고 제시하여 행위를 인도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반면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밝히고 추론의 규칙을 분석하는 데 치중하여 선악 판단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2 사랑과 성의 관계 | 정답 ③ | 정답률 91%

① 사랑이 전제된 혼인 전의 성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부부만 가능)
② 부부 사이라도 성관계를 통해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③ 인격성을 훼손하지 않는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④ 성관계를 통한 생식적 가치의 추구는 혼인의 유일한 목적이다.
⑤ 모든 성관계는 상대방을 대상화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자|료|해|설|

지문의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오직 혼인이라는 조건하에서 남녀는 서로 간에 인격성을 상실하지 않고 서로의 성을 향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택|지|풀|이|

② 오답 : 칸트는 부부 사이에서는 쾌락을 전제로 성을 향유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본다.
③ 정답 : 칸트는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는 서로 성을 향유하면서 인격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⑤ 오답 : 칸트는 혼인이라는 조건하에서는 남녀는 서로의 인격성을 상실하지 않고 성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성관계가 상대방을 대상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3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문제 | 정답 ④ | 정답률 96%

① 메타버스를 통해 얻게 될 경제적 효용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
② 메타버스에서는 현실과 달리 모든 개인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③ 메타버스의 등장은 기존 온라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메타버스에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 경제적 가치 창출 + 윤리적 문제
⑤ 메타버스를 윤리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
→ 제도적 장치

|자|료|해|설|

칼럼에서는 메타버스가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양심과 도덕성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

|선|택|지|풀|이|

④ 정답 : 칼럼에서는 메타버스에서 이용자들은 양심과 도덕성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4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 정답 ① | 정답률 54%

보기

ㄱ. 갑 : 외교 정책의 성패는 국익 증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 자국의 이익 극대화)
ㄴ. 을 : 영구 평화의 확립을 인류의 보편적 의무로 수용해야 한다.
ㄷ. 을 : 국제 연맹은 주권적 권력을 지닌 세계 정부로 기능해야 한다.
ㄹ. 갑, 을 :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영구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 갑 ○ 을 × / → 갑 × 을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자|료|해|설|

갑은 현실주의 사상가 모겐소이다. 모겐소는 국가는 이기적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고 국제 사회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간에는 도덕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세력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을은 영구 평화론을 주장한 칸트이다. 칸트는 모든 국가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연맹에 참여할 것을 주장한다. 칸트는 연맹을 통해 국가 간에도 이성적 대화가 가능하며 국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보|기|풀|이|

ㄱ. 정답 : 모겐소는 국제 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국가들 간의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외교 정책의 성패는 국익 증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본다.
ㄴ. 정답 : 칸트는 의무론자로, 영구 평화의 확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인류가 추구해 나가야 할 보편적 의무로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5 도가 윤리적 접근 | 정답 ⑤ | 정답률 81%

①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美)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세요.
② 연기(緣起)의 깨달음을 통해 외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세요. → 불교
③ 외모를 가꾸기보다 인의(仁義)의 덕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세요. → 유교
④ 외모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자연의 순리에 부합함을 명심하세요.
⑤ 미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세요.

|자|료|해|설|

지문의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인간의 자기중심적 편견에서 비롯된 분별은 상대적인 것일 뿐이기에 이를 초월하여 평등한 도의 관점에서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별하지 말고 하나로 볼 것을 주장한다.

|선|택|지|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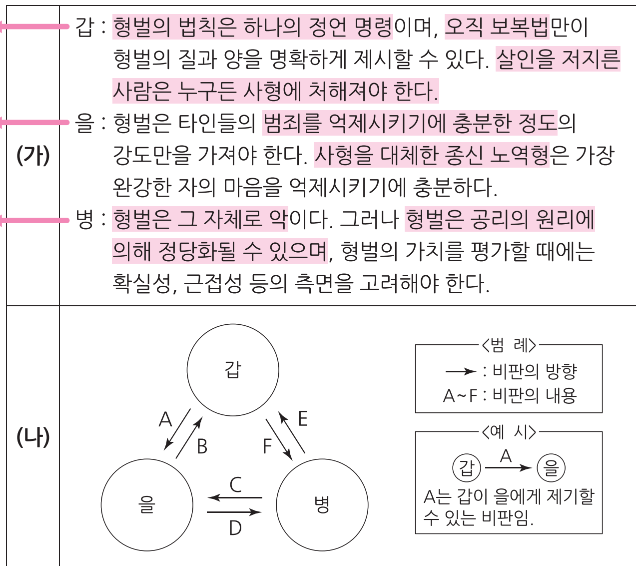
⑤ 정답 : 장자는 절대적 자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도의 관점에서 만물과 소통하며 물아일체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미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라는 내용은 장자가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하다.

문제편 17쪽

6 사형 제도에 대한 윤리적 쟁점

정답 ⑤ | 정답률 65%

칸트 - 응보주의적 관점 - 사형 찬성
베카리아 - 공리주의, 사회 계약론적 관점 - 사형 반대
벤담 - 공리주의적 관점 - 유용성에 따라 사형의 찬반 여부 결정


(가)
갑 :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며,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을 :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은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하다.
병 :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다. 그러나 형벌은 공리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으며, 형벌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확실성, 근접성 등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나)

① A : 형벌은 응보가 아닌 다른 선을 촉진하는 수단임을 간과한다.
② B, E : 인간은 자신의 생명권을 국가에게 양도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③ C :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에서 발생함을 간과한다. (→ 종신 노역형)
④ D : 형벌의 크기는 범죄로 이끄는 유혹에 비례해야 함을 간과한다.
⑤ F : 모든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선|택|지|풀|이|
② 오답 :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론적 관점에서 사람이 형벌에 대해 스스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생명권까지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다고 보며 사형 제도에 반대한다. 따라서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제기할 수 없는 비판이다.
⑤ 정답 : 칸트는 단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반면, 벤담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처벌이 가져오는 사회적 이익에 따라 형벌의 부과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벤담은 처벌이 유용성이 없거나 처벌로 인한 고통이 처벌이 가져오는 사회적 유용성보다 크다면 처벌받지 않을 위법 행위자도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칸트가 벤담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7 유전자 치료의 윤리적 문제

정답 ② | 정답률 89%

	갑	을
①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은 유전 형질의 변화를 초래하는가?	○	○
② 강화 목적의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	×
③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하여 유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가?	○	○
④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가?	×	×
⑤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는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이 존재하는가?	○	○

|자|료|해|설|
갑은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과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을은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찬성하지만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선|택|지|풀|이|
② 정답 : 갑은 미래 세대는 살아가는 동안 강화된 유전 형질로 인해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얻게 되어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으므로 강화 목적의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오답 : 갑과 을 모두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갑은 치료 목적과 자질 강화를 위한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 을은 치료 목적을 위한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만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8 해외 원조의 윤리적 근거

정답 ② | 정답률 71%

① 갑 : 원조 대상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강제력의 사용은 정의롭다.
② 갑 : 천연자원이 부족한 빈곤국이라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을 : 원조는 원조 결과와 무관하게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이다.
④ 을 : 지리적 근접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원조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⑤ 갑, 을 : 원조를 통해 모든 국가의 복지 수준을 일치시켜야 한다.

|자|료|해|설|
갑은 롤스이다.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가 빈곤에 처한 결정적 요소는 정치 문화의 결함이라고 보고 원조를 통해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은 싱어이다. 싱어는 전 인류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을 원조의 목적으로 삼기에 인류 전체의 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선|택|지|풀|이|
② 정답 : 롤스는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때까지 원조하는 것이 의무라고 본다. 따라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었다면 천연자원이 부족한 빈곤국이라도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
④ 오답 : 싱어는 세계 시민주의에 입각하여 원조 주체와의 지리적 접근성 및 국적에 상관없이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고 본다.

9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정답 ④ | 정답률 80%

보기
ㄱ. 담론 참여자 중 대다수가 동의한 규범이 타당성을 지닌다. (→ 모든 참여자)
ㄴ. 담론 주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도 담론에 참여할 수 있다.
ㄷ.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이익이나 욕구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
ㄹ. 담론 과정에서 타인의 주장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자|료|해|설|
지문의 사상가는 담론 윤리를 주장한 하버마스이다. 하버마스는 합리적이고 평등한 담론을 통해 도덕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보|기|풀|이|
ㄴ. 정답 : 하버마스는 담론 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말할 수 있고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담론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ㄷ. 오답 : 하버마스는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주장과 개인적 바람, 욕구 등을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ㄹ. 정답 : 하버마스는 담론 과정에서 타인의 주장에 대해 자유롭게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

정답 ④ | 정답률 76%

보기
ㄱ. 갑 : 기술의 본질을 삶에 유용한 도구로만 규정해야 한다.
ㄴ. 갑 :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강조할 때 인간은 기술에 종속된다.
ㄷ. 을 : 기술 자체를 윤리적 평가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 선도 악도 아님)
ㄹ. 갑, 을 : 기술의 활용이 가져올 영향을 반성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자|료|해|설|
갑은 과학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하이데거이다. 을은 과학의 가치 중립성을 긍정하는 야스퍼스이다.

|보|기|풀|이|
ㄴ. 정답 : 갑은 과학 기술을 단순한 가치 중립적 도구로 보게 되면 인간이 과학 기술에 종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ㄹ. 정답 : 갑과 을 모두 기술의 활용 방향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이데거는 과학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만 보면 인간은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지기 때문에 기술의 활용이 가져올 영향을 반성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스퍼스는 기술 자체는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지만, 기술의 활용이 가져올 영향은 윤리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편 18쪽

11 생태 중심주의 윤리, 생명 중심주의 윤리, 인간 중심주의 윤리 | 정답 ③ | 정답률 36%

보기

ㄱ. A : 인간은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 인간만이 지니는 것)
ㄴ. B : 이성의 유무는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ㄷ. C : 인간은 무생물과 관련해서는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 을 : ○ / 갑, 병 : ×
ㄹ. D :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도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 (인간 외의 존재 / 갑, 을 : 내재적 / 병 : 수단적(도구적))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자|료|해|설|
갑은 생태 중심주의 사상가 레오폴드이다. 레오폴드는 대지는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모든 존재들이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이며, 인간은 대지의 지배자가 아니라 한 구성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을은 생명 중심주의 사상가 테일러이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의식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기보존과 선이라는 목적을 지향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며 자신의 고유한 선을 실현하고자 하므로 도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병은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 칸트이다. 칸트는 이성을 지닌 인간만이 자율적인 도덕적 삶이 가능하기에 이성이 결여된 동물은 도덕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다만 우리의 간접적인 도덕적 의무의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보|기|풀|이|
ㄱ. 오답 : 인간은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보는 입장은 레오폴드와 테일러 모두에게 해당한다.
ㄴ. 정답 : 칸트와 달리 레오폴드와 테일러 모두 탈인간 중심주의이며 이성을 지닌 인간 이외의 비이성적 개체도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레오폴드는 자연의 모든 존재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또한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따라서 레오폴드와 테일러 둘 다 이성의 유무가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본다.
ㄹ. 정답 :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만이 유일하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는 인간 외의 존재를 일컫는다. 이에 대해 모든 생태계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레오폴드는 도덕적 무능력자라도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고 본다. 생명 중심주의자인 테일러 또한 동물, 식물도 도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도덕적 무능력자에게도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고 본다. 칸트는 인간 이외의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이들을 수단으로 대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연에 수단적(도구적) 가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레오폴드, 테일러, 칸트 모두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도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고 본다.

12 다문화 이론 | 정답 ④ | 정답률 86%

(가) 다양한 문화의 존중은 사회 결속으로 이어진다. 소수 집단의 문화 존중을 위해서는 소수 집단에 차별화된 권리를 부여해 기존의 사회 집단과 소수 집단 간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구성원 간 평등한 관계 형성 및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 다양한 문화 존중을 통한 사회 결속 주장)

(나) 단일한 문화의 형성은 사회 결속을 강화한다. 소수 집단의 문화 존중을 이유로 소수 집단에 차별화된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은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 따라서 소수 집단은 그들의 문화를 포기하고 기존 사회의 문화로 편입되어야 한다. (← 단일 문화로의 통합에 의한 사회 결속 주장)

X : 소수 집단에 대한 우대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정도↓
Y : 소수 집단의 문화가 기존 사회의 문화로 동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
Z : 소수 집단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사회 결속 강화에 기여함을 강조하는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선|택|지|풀|이|
④ 정답 : X축은 낮고, Y축은 높고, Z축은 낮다.

13 국가의 의무에 대한 서양의 관점 | 정답 ⑤ | 정답률 72%

입장 \ 학생	갑	을	병	정	무
㉠ 국가는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에 기반해야 평화적으로 수립된다.	√			√	√
㉡ 국가는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받아 구성원 간의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		√		√	√
㉢ 국가는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다.		√	√	√	
㉣ 국가는 외부인이 그 구성원에게 가한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자|료|해|설|
지문의 사상가는 동의를 근거로 정치적 권위에의 복종을 정당화하는 로크이다. 로크는 사람들은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과 같은 자연적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호받기 위해 사회 계약을 통해 시민 정부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문|제|풀|이|
㉠ 정답 : 로크는 인간이 자연권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에 기반해 사회 계약으로 국가를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 정답 : 로크는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잘 보존하기 위해 개인들은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과 자유를 사회적 선의 요구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에 양도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받은 국가는 인민의 자연권 보장을 위한 공동의 재판관 역할을 해야 한다.
㉣ 정답 : 로크는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생명과 자유 등의 보장이므로 사회 내 범법자나 외부인이 시민에게 가한 침해를 처벌하고 막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14 죽음에 대한 동양의 관점 | 정답 ③ | 정답률 81%

① 갑 : 삶과 죽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무명에 도달해야 한다. (무명 → 깨닫지 못한 상태)
② 갑 : 고통 없는 삶으로 윤회하기 위해 만물의 실상을 자각해야 한다. (윤회하기 위해 → 벗어나야 함 → 삶과 죽음이 반복되지 않아야 함 / 실상 → 모든 존재의 참된 본성으로 실체가 없고 무상함)
③ 을 : 삶과 죽음은 분별할 수 없는 자연적 과정임을 깨달아야 한다.
④ 을 : 기의 변화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삶과 죽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⑤ 갑, 을 :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애도해야 한다. → 유교

|자|료|해|설|
갑은 불교 사상의 죽음관이다. 불교는 죽음이 현실의 세계를 벗어나 또 다른 세계로 윤회하는 것이라 보며 죽음을 대표적인 고통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을은 도가 사상가 장자의 죽음관이다. 장자는 삶과 죽음이 사계절의 변화 같은 것이므로 죽음에 초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택|지|풀|이|
③ 정답 : 장자는 삶과 죽음에 차별이 없으므로 분별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삶과 죽음을 기(氣)가 모였다 흩어지는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으로 본다.

15 분배적 정의관 | 정답 ① | 정답률 57%

① 갑 : 자연적 재능의 불평등한 분포는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
② 갑 :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 정당하다.
③ 을 : 노동을 통해 획득한 소유물이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을 : 개인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
⑤ 갑, 을 : 공정한 절차를 따름으로써 정의로운 분배가 실현될 수 있다.

|자|료|해|설|
갑은 롤스이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으로부터 도출된 정의의 원칙을 따를 때 공정한 분배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을은 노직이다. 노직은 재화의 취득과 이전의 절차나 과정이 정당하다면 그 과정을 통해 얻은 소유물에 관해서는 개인이 절대적 소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선|택|지|풀|이|
① 정답 : 롤스는 자연적 재능의 불평등한 분포 그 자체는 정의 또는 부정의가 아닌 단순한 자연적 사실로 본다. 다만, 롤스는 자연적 재능이 분배의 기준이 되는 것은 부정의하다고 본다.

문제편 19쪽

16 벤담의 공리주의, 칸트의 의무론

정답 ⑤ | 정답률 69%

① 갑 : 공동체의 이익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과 무관하다.
② 갑 : 행위의 옳고 그름은 결과보다 동기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③ 을 : 행위자의 성품을 기준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해야 한다. → 덕 윤리
④ 을 : 의무 의식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위도 도덕적 행위일 수 있다. 없다
⑤ 갑, 을 : 윤리적 의사 결정에 적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
공리의 원리 / 정언 명령

|자|료|해|설|
갑은 벤담이다. 벤담은 쾌락을 산출하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선(善)이라고 보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한다. 을은 칸트이다. 칸트는 도덕 법칙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의무의 형식으로 부과되고, 의무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 때문에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된다고 주장한다.

|선|택|지|풀|이|
⑤ 정답 : 갑, 을 모두 윤리적 의사 결정에 적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벤담은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를 제시한다. 또한 칸트는 실천 이성의 명령을 조건 없이 따르는 행위, 정언명령에 따르는 행위를 제시한다.

17 심미주의, 도덕주의

정답 ④ | 정답률 82%

	갑	을
① 예술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정신 활동인가?	○	○
② 예술은 오직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	×
③ 예술은 도덕적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	×
④ 예술은 사회 구성원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해야 하는가?	×	○
⑤ 예술은 인간의 도덕적 삶을 작품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가?	○	○

|자|료|해|설|
갑은 심미주의 사상가 오스카 와일드이다. 와일드는 예술의 목적은 미적 가치 추구 뿐이며 예술은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은 도덕주의 사상가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예술이 가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지니는 도덕적 가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선|택|지|풀|이|
④ 정답 : 심미주의는 예술이 도덕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예술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덕주의는 올바른 예술이 사회 구성원의 올바른 품성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⑤ 오답 : 심미주의와 도덕주의 모두 인간의 도덕적 삶을 작품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심미주의가 예술은 예술 이외의 다른 목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예술가에게 사고와 언어는 예술의 도구이며 악덕과 미덕은 예술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심미주의는 예술의 목적과 소재를 구분하여 바라본다. 따라서 갑과 을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18 시민 불복종

정답 ② | 정답률 71%

① 갑 : 시민 불복종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청원 행위이다.
② 갑 :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도덕 원칙에 근거한 정의로운 행위이다. →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
③ 을 : 시민 불복종의 결과가 가져올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야 한다.
④ 을 :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한 효과적 행위일 수 있다.
⑤ 갑, 을 :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의 원칙을 존중하며 시행되어야 한다.

|자|료|해|설|
갑은 롤스이다.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 다수의 정의관에 어긋나는 법과 정책의 개선을 위해 시민 불복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은 싱어이다. 싱어는 시민 불복종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보고 불복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택|지|풀|이|
② 정답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개인의 도덕 원칙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9 음식 문화와 윤리적 문제

정답 ⑤ | 정답률 84%

보기
ㄱ. 먹는 행위는 도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ㄴ. 먹는 행위를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야 한다. → 생존 + 자기 본질 규정
ㄷ. 먹는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ㄹ. 먹는 행위는 인간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자|료|해|설|
지문의 강연자는 인간에게 먹는 행위가 생존에 필수적이면서 자기의 본질을 규정한다고 본다. 또한 먹는 행위는 사회의 다른 영역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에 자신의 식습관 점검 및 사회적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기|풀|이|
ㄱ. 정답 : 지문에서는 먹는 행위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며, 우리는 자신의 식습관을 점검하고 먹는 행위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성찰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먹는 행위는 도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ㄷ. 정답 : 지문에서는 먹는 행위는 음식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사회의 다른 영역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본다. 따라서 먹는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ㄹ. 정답 : 지문에서는 인간에게 먹는 행위는 자기 본질을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먹는 행위는 인간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20 동양의 직업관

정답 ① | 정답률 91%

보기

	갑	을
ㄱ. 사회적 역할의 분담은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	○
ㄴ. 백성의 경제적 안정에 힘쓰는 것이 통치자의 역할이다.	○	○
ㄷ. 정신노동을 담당하는 사람은 육체노동에도 탁월해야 한다.	×	×
ㄹ. 사회적 역할은 능력보다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자|료|해|설|
갑은 맹자이다. 맹자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구분하여 사회적 분업을 강조한다. 또한 국가는 백성의 도덕적 삶을 위해 일정한 생활 근거(항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은 순자이다. 순자는 각자의 덕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는 예(禮)를 강조한다.

|보|기|풀|이|
ㄱ. 정답 : 맹자와 순자 모두 개인이 세상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할 수 없으므로 직분의 분담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맹자와 순자 모두 긍정할 내용이다.
ㄴ. 정답 : 맹자는 정치의 시작이 항산(경제적 안정)의 보장이라고 본다. 순자는 통치자가 예를 통해서 백성들의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켜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맹자와 순자 모두 긍정할 내용이다.
ㄷ. 오답 : 맹자와 순자 모두 사회적 역할 분담을 옹호하므로 정신노동을 담당하는 사람이 육체노동에도 탁월해야 한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맹자와 순자 모두 부정할 내용이다.



● 문제편 20쪽

05회 2023년 4월 고3 학력평가 정답과 해설 생활과 윤리

문제편 p.21

1	⑤	2	④	3	②	4	⑤	5	④
6	②	7	②	8	①	9	④	10	③
11	③	12	③	13	⑤	14	①	15	①
16	⑤	17	④	18	③	19	②	20	④

1 메타 윤리와 실천 윤리 정답 ⑤ 정답률 82%

① 진화의 측면에서 도덕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해야 함을 간과한다 (진화 윤리학)
② 도덕 현상의 객관적인 서술을 주된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간과한다 (기술 윤리학)
③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도덕규범을 연구해야 함을 간과한다 (강조)
④ 도덕적 행위를 위한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제시해야 함을 간과한다
⑤ 도덕 명제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간과한다 (이론 규범 윤리학)

|자|료|해|설|
'나'는 메타 윤리학, '어떤 윤리학자'는 실천 윤리학의 입장이다.

|선|택|지|풀|이|
⑤ 정답 : 메타 윤리학은 진리 여부를 확증할 수 있는 명제를 검증 가능한 명제라고 본다. 따라서 도덕 명제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중시하지만 실천 윤리학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메타 윤리학 입장에서 실천 윤리학을 평가할 내용으로 적절하다.

2 사랑과 성의 관계 정답 ④ 정답률 84%

① 갑 : 성의 쾌락적인 욕구보다 생식적인 욕구가 중시되어야 한다.
② 갑 : 성은 어떠한 도덕적 제약 없이 자유 의지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③ 을 :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남녀 사이의 성은 언제나 도덕적이다.
④ 을 : 혼전 성은 출산이 전제되더라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⑤ 갑과 을 :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이 도덕적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자|료|해|설|
갑은 자유주의 성 윤리, 을은 보수주의 성 윤리이다. 자유주의는 사랑 없는 성이 가능할 수 있음을 옹호하며 성은 즐거움(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덕적 제약이 수반되는데 서로 간의 동의와 인격 존중, 해악 금지와 같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반면, 보수주의는 성은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며, 생식(자녀를 낳아서 늘림)적 가치가 본질이라고 본다. 따라서 결혼이라는 법적 계약의 틀 안에서 출산과 생식을 목표로 하는 부부간의 성 행위만이 정당하다고 본다.

|선|택|지|풀|이|
③ 오답 :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남녀가 미혼 관계이거나 출산을 의도한 성 행위가 아니라면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성 행위가 도덕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④ 정답 : 보수주의는 결혼이라는 법적 계약의 틀 내에서 행해지는 성 행위를 옹호하므로 혼전(婚前) 성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3 시민 불복종 정답 ② 정답률 53%

보기
ㄱ.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이다.
ㄴ. 시민 불복종은 그 자체로 입헌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ㄷ. 헌법을 규제하는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ㄹ. 종교적 교설은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양심적 거부 영역) (정의의 원칙)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자|료|해|설|
제시문의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이기는 하나 양심 자체가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될 수 없으며,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양심적 거부의 영역과 시민 불복종 영역을 구분하여 개인적 도덕 원칙, 집단의 이익, 종교적 교설에 따라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은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보|기|풀|이|
ㄱ. 정답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숙고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ㄴ. 오답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양심적 신념을 표현하는 행위이므로 사회에 대한 경고나 훈계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입헌 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ㄷ. 정답 : 롤스는 헌법의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자유롭고 동등한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협동의 기본 조항인 정의의 원칙이라고 본다. 그리고 정의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ㄹ. 오답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시민 생활의 도덕적인 기반에 대한 호소인 까닭에 정치적인 행위이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종교적 교설은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4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정답 ⑤ 정답률 96%

①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발휘해야 한다.
② 담론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자신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③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고 상대방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④ 논증적인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⑤ 합의를 위해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은 말하지 않아야 한다.

|자|료|해|설|
가상 대담의 사상가는 하버마스이다. 하버마스는 담론 윤리를 주장하며, 사적 공간이 아닌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은 다음과 같은 이상적 담화 상황의 규칙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가지는 모든 주체는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담론 참여자들은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자기의 생각과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담론의 참가자는 담론의 내적 또는 외적 강제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선|택|지|풀|이|
⑤ 정답 : 하버마스는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담론 참여자가 자신의 생각 또는 원하는 것을 토론 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국가의 권위와 그 정당성 정답 ④ 정답률 68%

① A :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간과한다. (강조)
② B, E : 국가 안에서만 구성원들은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강조)
③ C :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도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가짐을 간과한다. (강조)
④ D : 입법권은 통치자만이 아닌 모든 구성원에게 있음을 간과한다.
⑤ F : 국가 권위에 복종할 의무는 자연적으로 발생되지 않음을 간과한다.

|자|료|해|설|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루소, 병은 홉스이다.

|선|택|지|풀|이|
① 오답 : 루소는 국가의 형성이 만장일치, 즉 모든 구성원의 동의에 기초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루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으로 옳지 않다.
④ 정답 : 루소는 군주제를 부정하며 입법권은 오직 인민에게만 속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홉스는 통치자인 절대 군주에게 입법권을 양도했다고 본다. 따라서 홉스에 대한 루소의 비판으로 적절하다.
⑤ 오답 :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 공동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국가는 시민 생활의 필요와 삶의 목적 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공동체이므로 시민이 국가 권위에 복종할 의무도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문제편 21쪽

6 하이데거의 기술관 | 정답 ② | 정답률 47%

> 탈은폐의 방식에 완전히 제압된 현대 기술은 자연에게 에너지를 내놓으라고 무리하게 닦달한다. 그리하여 자연은 현대 기술에 의해 쓸모 있는 부품으로 환원된다. 인간은 현대 기술로부터 자연에 숨겨져 있는 에너지를 채굴하여 변형시키고 저장하라는 도발적 요청을 받고 있으며, 그렇게 주문받는 대로 행동하여 현대 기술의 근원적인 부품으로 전락한다. 인간이 현대 기술의 종속에서 벗어나려면 기술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 하이데거 : 기술의 본질과 활용에 대한 숙고 강조

보기
ㄱ. 인간은 현대 기술의 부품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
ㄴ. 인간은 현대 기술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가?
ㄷ. 현대 기술은 인간이 성찰해야 할 가치판단의 대상인가?
ㄹ. 현대 기술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자연을 은폐시키는가? → 은폐가 아닌 탈은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자|료|해|설|
제시문의 사상가는 하이데거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대 기술은 탈은폐의 방식으로 자연에 에너지를 내놓으라고 닦달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간도 기술에 의해 자연을 닦달하라는 도발적 요청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우리가 기술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기술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대인의 사고방식은 인간을 기술의 본질에 대해 맹목적이게 하기 때문에 기술 자체를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하면 인간은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고 비판한다.

|보|기|풀|이|
ㄱ. 정답 :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기술의 도발적 요청으로 인해 기술의 근원적인 부품으로 환원될 수 있다.
ㄴ. 오답 :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현대 기술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성찰이 없다면 기술에 종속될 수 있다.
ㄷ. 정답 :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의 속성을 가치 중립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숙고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ㄹ. 오답 : 하이데거는 탈은폐의 방식을 따르는 현대 기술이 자연에게 에너지를 내놓으라고 닦달한다고 주장한다.

7 유교 윤리적 접근, 도가 윤리적 접근 | 정답 ② | 정답률 80%

① 갑 : 사단(四端)을 확충하여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 보존 · 함양)
② 갑 : 군자가 되기 위해서 사욕(私欲)을 극복해야 한다.
③ 을 : 다수의 관점에 따라서 시비(是非)를 가려야 한다.
④ 을 : 분별적 지식을 쌓아 부쟁(不爭)의 덕을 길러야 한다.
⑤ 갑과 을 : 이상적 인간이 되려면 예법(禮法)을 익혀야 한다.

|자|료|해|설|
갑은 유교 사상가인 맹자, 을은 도가 사상가인 노자이다. 맹자는 사람과 금수(짐승)의 차이는 작은데, 평범한 사람들은 이 차이를 버리지만 군자는 이 차이를 보존한다고 주장한다. 노자는 으뜸가는 선(善)을 물[水]의 속성에 비유한다.

|선|택|지|풀|이|
② 정답 : 맹자는 군자가 되기 위해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단, 욕망의 적절한 절제를 강조한 것이지, 욕망 자체의 제거를 주장한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8 죽음에 대한 동서양의 관점 | 정답 ① | 정답률 93%

보기 (갑 : 오온, 을 : 원자)

보기	갑	을
ㄱ. 죽음이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	○
ㄴ. 죽음으로 인해 인간을 구성하고 있던 요소들이 해체된다.	○	○
ㄷ. 죽음은 경험 가능한 고통이므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	×
ㄹ. 죽음 이후에 모든 존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필연적 현상이다.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자|료|해|설|
갑은 불교,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보|기|풀|이|
ㄱ. 정답 : 불교와 에피쿠로스 모두 긍정할 내용이다. 불교는 욕망에 대한 집착이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보므로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이 욕망 중에는 죽지 않고 오래도록 살고 싶어하는 욕망[有愛]도 포함된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므로 불멸에 대한 갈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ㄴ. 정답 : 불교는 죽음을 오온(색 · 수 · 상 · 행 · 식)의 해체로, 에피쿠로스는 원자의 해체로 본다. 따라서 각자 언급하는 인간의 구성 요소는 다르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긍정할 내용이다.
ㄷ. 오답 : 불교가 죽음을 고통이라고 본 것은 맞지만 죽음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죽음은 원자의 해체로 인한 감각의 소멸이다. 따라서 죽음의 고통은 경험할 수 없고, 인간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ㄹ. 오답 : 불교의 입장에서 생사의 굴레를 끊고 열반에 든 해탈한 존재에게는 윤회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죽음 이후에 원자가 해체되면서 영혼은 소멸한다. 따라서 죽음 이후에 존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9 인공 임신 중절의 윤리적 쟁점 | 정답 ④ | 정답률 86%

보기
ㄱ. 갑 : 여성의 인공 임신 중절 권리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
ㄴ. 갑 : 태아의 생명권과 성인의 생명권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ㄷ. 을 : 잠재적으로 합리적인 존재인 태아는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ㄹ. 갑과 을 :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 → 갑 : 태아 + 성인, 을 :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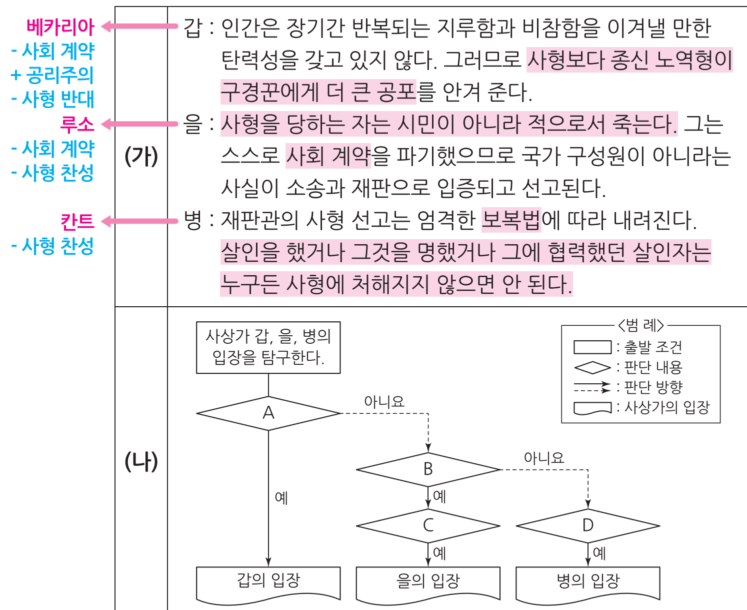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자|료|해|설|
갑은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 반대, 을은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보|기|풀|이|
ㄴ. 정답 : 갑은 잠재적으로 합리적인 존재(태아)와 실제적으로 합리적인 존재(성인)의 생명권(타인에 의해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을 동등하게 대우, 고려한다.
ㄹ. 정답 : 갑과 을은 각자 규정하는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의 범위가 다르지만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의 생명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긍정한다.

10 사형 제도에 대한 윤리적 쟁점 | 정답 ③ | 정답률 80%

(가)
갑 : 인간은 장기간 반복되는 지루함과 비참함을 이겨낼 만한 탄력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구경꾼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 준다. (← 베카리아 - 사회 계약 + 공리주의 - 사형 반대)
을 : 사형을 당하는 자는 시민이 아니라 적으로서 죽는다. 그는 스스로 사회 계약을 파기했으므로 국가 구성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소송과 재판으로 입증되고 선고된다. (← 루소 - 사회 계약 - 사형 찬성)
병 : 재판관의 사형 선고는 엄격한 보복법에 따라 내려진다. 살인을 했거나 그것을 명했거나 그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 칸트 - 사형 찬성)

(나)


보기

보기	갑	을	병
ㄱ. A : 국가가 사형제를 채택하는 것은 공적 정의에 부합하는가?	×	○	○
ㄴ. B : 사형은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행해져야 하는가?		○	×
ㄷ. C : 살인범은 국가에서 추방되거나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가?		○	
ㄹ. D : 살인을 직접 저지른 사람만이 사형 선고의 대상이 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제편 22쪽

|보|기|풀|이|

ㄱ. 오답 : 베카리아는 부정, 루소와 칸트는 긍정할 내용이다. 베카리아, 루소, 칸트 모두 형벌이 공적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베카리아는 정의(正義)가 구성원의 사적 이익을 통합시키는 데 필요한 유대를 의미하며, 이러한 유대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형벌은 본질상 부정의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사형은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므로 공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반대로 루소, 칸트는 사형이라는 형벌에 찬성하므로 공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ㄴ. 정답 : 루소는 긍정, 칸트는 부정할 내용이다. 루소는 사형의 목적이 더 이상 시민이 아닌 살인자를 사형에 처함으로써 계약자인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본다. 반대로 칸트는 사형이 살인자의 인격에 대한 존중이며, 사회적 선(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본다.

ㄷ. 정답 : 루소는 살인범은 더 이상 국가 구성원이 아니며, 계약 위반자로서 추방당하거나 사형 당해야 한다고 본다. 루소는 동해보복법에 따라 살인자가 무조건 죽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ㄹ. 오답 : 칸트에 따르면 살인자뿐만 아니라 살인을 명령한 자도 사형 선고의 대상이 된다.

11 음식 문화와 윤리적 문제

정답 ③ | 정답률 79%

① 음식을 먹는 행위를 통해 평등함을 실천할 수 있다.
② 음식을 먹으며 생존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③ 음식을 통해 만물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④ 음식을 남기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⑤ 음식을 먹는 행위로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수행을 할 수 있다.

→ 상호 의존적

|자|료|해|설|

제시문의 강연자는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먹는 행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발우공양은 단순히 신체적 욕구를 채우는 것을 넘어 만물의 상호 의존성인 연기(緣起)법을 깨닫고, 자연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는 것이며, 소유에 대한 탐욕을 버리는 일상의 수행 과정이다.

|선|택|지|풀|이|

③ 정답 : 강연자에 따르면 발우공양을 통해 음식물을 제공한 자연의 은혜와 타인의 노고를 깨닫게 된다. 따라서 먹는 행위를 통해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자각하는 것이다.

12 분배적 정의관

정답 ③ | 정답률 51%

롤스 -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절차 - 부의 재분배 옹호
← 갑 :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실현된 국가는 부(富) 및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한다. 이것은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된 정의의 두 원칙을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노직 - 취득·이전의 절차 - 소유 권리 보호 옹호
← 을 : 최소 국가는 정당화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국가이다. 이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는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따라서 국가는 시민들에게 특정한 선(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① 갑 : 재능과 동기가 유사하다면 성공의 전망도 유사해야 한다. → 기회 균등 원칙
② 갑 :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원칙에 합의한다.
③ 을 : 부정의 교정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
④ 을 : 사회에 유용한 정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분배는 부정의하다.
→ 정형적 분배 기준(능력, 공과, 사회적 유용성 등)
⑤ 갑과 을 : 국가는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자|료|해|설|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롤스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가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정의의 토대 위에서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돕는다고 주장한다. 노직은 최소 국가 체제를 옹호하면서 한 분배가 정의로울 충분 조건은 그 분배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선|택|지|풀|이|

③ 정답 : 노직은 최초 취득과 이전(양도)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④ 오답 : 노직은 정형적 분배 원리에 따른 분배를 반대한다. 여기서 정형적 원리의 예시에는 도덕적 공과(功過), 사회에 대한 유용도(usefulness to the society) 등이 있다.

13 종교의 의미와 본질

정답 ⑤ | 정답률 55%

입장 \ 학생	갑	을	병	정	무
종교적 인간은 세계 그 자체를 성(聖)으로 간주한다. → 범신론	√	√		√	
종교적 인간에게 어떤 사물은 성현(聖顯)이 될 수 있다.	√		√		√
비종교적 인간은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날 때 자유롭다고 믿는다.			√	√	√
비종교적 인간이라도 종교적 의례나 신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자|료|해|설|

제시문의 사상가는 엘리아데이다. 엘리아데는 여러 종교의 역사는 가장 원시적인 것에서부터 고도로 발달한 것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현(聖顯), 즉 성스러운 여러 실재의 현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근현대인의 실존 양식을 두 가지 측면, 종교적 인간과 비종교적 인간으로 구분하여 비종교적 인간은 자신을 역사의 주체로 생각하고 종교를 거부하려는 탈신성화의 면모를 보이나 그들도 무의식적으로 종교의 영향하에 있다고 강조한다.

|문|제|풀|이|

첫 번째 입장. 오답 : 엘리아데에 따르면 세계는 성(聖)이 드러나는 공간이지, 세계 자체가 성은 아니다.

두 번째 입장. 정답 : 엘리아데에 따르면 돌이나 나무와 같은 일상적 자연물에도 성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 입장. 정답 : 엘리아데에 따르면 비종교적 인간은 종교적 성스러움이 자신의 자유를 획득하는 데 장애물이라고 여긴다.

네 번째 입장. 정답 : 엘리아데는 비종교적 인간 대다수가 성을 거부하지만 종교적 행동, 신학과 신화로부터 해방되어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의례(결혼, 아기의 탄생, 취임, 승진 잔치 등)나 대중문화(연극이나 영화의 신화적 모티브)에서 드러난다.

14 동서양의 직업관

정답 ① | 정답률 67%

→ 계급 간의 참견, 반목이 없어야 이상 사회

플라톤 ← 갑 : 성향상 장인(匠人)인 사람이 우쭐해져서 전사의 부류로 이행하려 들거나, 혹은 전사들 중의 어떤 이들이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숙의 결정하며 수호하는 부류로 이행하려 든다면 이들의 참견은 나라에 파멸을 가져다 준다.

맹자 ← 을 : 한 사람의 몸으로 여러 장인이 하는 일을 고루 갖추어 반드시 자신이 모든 물건을 스스로 만든 다음에야 이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모두 길바닥으로 내앉게 만드는 일이다. 대인(大人)의 일이 있고 소인(小人)의 일이 있다.

보기

		갑	을
ㄱ.	나라가 올바르게 다스려지려면 통치자에게 덕이 요구되는가?	○	○
ㄴ.	계층 간의 자유로운 역할 교환은 공동체 발전을 저해하는가?	○	○
ㄷ.	장인의 재산 소유가 금지될 때 정치에서의 이상이 실현되는가?	×	×
ㄹ.	사회적 직분은 개인의 능력과 선택을 존중해 정해져야 하는가?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보|기|풀|이|

ㄱ. 정답 : 플라톤은 통치자가 지혜를 비롯한 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맹자는 통치자가 인의(仁義)의 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각자 언급한 덕의 요소는 다르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긍정할 내용이다.

ㄴ. 정답 : 플라톤과 맹자 모두 긍정할 내용이다. 플라톤은 계층 간의 자유로운 역할 교환이 국가 안에 반목을 가져온다고 본다. 맹자는 천하에 대인이 할 일이 있고 소인이 할 일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계층 간의 역할이 기준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ㄷ. 오답 : 플라톤과 맹자 모두 부정할 내용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사유 재산 금지는 수호자 계급에 적용되는 것이지, 장인과 같은 생산자 계급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맹자 역시 피지배자인 장인 계급의 재산 소유를 인정하면서 안정된 생업[恒産]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ㄹ. 오답 : 플라톤과 맹자 모두 부정할 내용이다. 사회적 직분은 개인의 능력과 덕을 고려해 정해져야 한다. 개인의 선택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문제편 23쪽

15 인간 중심주의 윤리, 동물 중심주의 윤리, 생명 중심주의 윤리 | 정답 ① | 정답률 29%

직접적 의무 / 갑 을 병

① A :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어떤 존재에 대한 의무도 가질 수 없다. ○ × ×

일부 동물 ~ 무생물까지

② B(D) : 도덕적 행위 주체가 아닌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 ○ ○

③ C : 감각 능력이 없는 개체들은 도덕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없다. ○ ○ ×

④ D :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동물을 활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 × ×

⑤ E :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닌 존재는 어떠한 가치도 지닐 수 없다. × × ×

본래적(내재적) 가치 / 수단적(도구적) 가치

|자|료|해|설|

갑은 칸트, 을은 싱어, 병은 테일러이다.

|선|택|지|풀|이|

① 정답 : 칸트에 따르면 인간이 따라야 할 직접적 의무인 '~에 대한 의무'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 상호 간에 통용되는 의무이다. 직접적 의무에서 간접적으로 도출되는 '~와 관련한 의무'는 자연의 존재를 대상으로 한다. 싱어는 일부 동물까지에 대한,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까지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인정한다.

③ 오답 : 테일러는 식물과 같이 감각 능력이 없는 개체도 도덕적 고려 대상이라고 본다.

⑤ 오답 : 칸트, 싱어, 테일러 모두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닌 존재도 수단적(도구적) 가치는 지닐 수 있다고 본다.

16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문제 | 정답 ⑤ | 정답률 95%

① 자신의 성향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배제해야 한다.

② 추천된 모든 정보가 객관적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③ 자신에게 편리를 주지 않는 정보를 전적으로 무시해야 한다.

④ 매체 이용을 금지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를 차단해야 한다.

⑤ 비판적 사고능력을 길러 다양한 정보를 올바르게 평가해야 한다.

|자|료|해|설|

제시문에서는 빅데이터에 근거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 개인의 검색, 시청 성향에 기초하므로 정보 편향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정보 사용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다양하게 접하는 것이 아니라 편협하거나 일률적인 정보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이다.

|선|택|지|풀|이|

⑤ 정답 : 정보 편향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17 평화의 가치와 국제 평화 | 정답 ④ | 정답률 83%

① 갑 : 상비군의 점진적인 확대는 영구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② 갑 : 개별 국가가 평화 연맹에 소속되려면 주권을 포기해야 한다.

③ 을 : 진정한 평화의 구축을 위해 폭력적인 수단도 허용되어야 한다.

④ 을 : 의도적인 폭력을 제거해도 비의도적인 폭력이 존재할 수 있다.

⑤ 갑과 을 : 모든 전쟁이 종식되는 순간부터 진정한 평화가 보장된다.

직접적 폭력 / 구조적 폭력

|자|료|해|설|

갑은 칸트, 을은 갈퉁이다.

|선|택|지|풀|이|

④ 정답 : 갈퉁에 따르면 의도적인 폭력은 직접적 폭력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비의도적인 폭력은 구조적 폭력으로 나타난다. 갈퉁은 직접적 폭력을 제거해도 구조적 폭력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⑤ 오답 : 칸트와 갈퉁 모두 부정할 내용이다. 칸트는 진정한 평화(영구 평화)는 전쟁 종식을 넘어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 간의 모든 잠재적 위협이 제거되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갈퉁은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간접적 폭력도 모두 사라져야 진정한 평화(적극적 평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18 해외 원조의 윤리적 근거 | 정답 ③ | 정답률 55%

보기

무법 국가 제외

ㄱ. 갑 : 인권 침해가 심각한 모든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된다.

ㄴ. 갑 : 원조의 차단점을 설정하여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ㄷ. 을 : 원조가 산출할 결과를 고려하여 원조의 대상을 정해야 한다.

ㄹ. 갑과 을 : 원조는 국가 간 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행해지는 윤리적 의무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자|료|해|설|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보|기|풀|이|

ㄱ. 오답 : 롤스에 따르면 인권을 침해하는 무법 국가(outlaw states)는 그 침해가 중대할 경우에는 강제적 제재와 내정 간섭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해당 정치 체제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ㄴ. 정답 : 롤스는 원조가 원조 목표, 즉 차단점을 넘어서게 되면 중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원조를 통해 대상국이 자국의 문제를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ㄷ. 정답 : 싱어는 효율적 이타주의 관점에서 원조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상을 결정해 원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ㄹ. 오답 : 롤스와 싱어 모두 부정할 내용이다. 롤스와 싱어는 국가 간의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의 목표가 아니라고 본다.

19 심미주의, 도덕주의 | 정답 ② | 정답률 93%

	갑	을
① 예술은 미적 가치를 표현하고 형상화한 것인가?	○	○
② 예술은 윤리적인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	×
③ 예술은 감상자에게 정서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가?	×	×
④ 예술은 예술가와 감상자를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인가?	○	○
⑤ 예술은 예술가의 자율성과 독창성으로부터 창조되는가?	→ 알 수 없음	

|자|료|해|설|

갑은 심미주의 예술관, 을은 도덕주의 예술관이다.

|선|택|지|풀|이|

① 오답 : 갑, 을 모두 예술은 아름다움(미)을 표현하고 그것을 형상화한 산물이라고 본다.

② 정답 : 갑은 심미주의적 관점에서 윤리적 평가에서 벗어난 예술의 자율성을 옹호한다. 반대로 을은 도덕주의적 관점에서 예술에 대한 윤리적 평가가 감상자의 성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 공리주의 | 정답 ④ | 정답률 93%

이해 관계자 전체의 행복

① 고통받는 환자의 행복만을 실현할 수 있는 법안인지 고려하세요.

② 법안이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자연법에 부합되는지 고려하세요. → 자연법 사상

③ 공동체 내에 유덕한 시민이 법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 고려하세요. → 덕 윤리

④ 법안이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량을 최대화하는지 고려하세요.

⑤ 고통받는 환자의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법안인지 고려하세요. → 칸트

|자|료|해|설|

제시문의 사상가는 공리주의자인 벤담이다. 벤담은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인이 지배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인간이 규범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해주는 것도 오직 고통과 쾌락뿐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공동체의 이익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따르면 윤리적 원칙은 구성원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의 쾌락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한다. 따라서 공리주의 사상은 칸트와 마찬가지로 인간 평등 사상 확립에 기여하였다.

|선|택|지|풀|이|

① 오답 : 벤담은 특정 개인이 아닌 문제 상황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 전체의 행복 증진 여부를 고려한다.

④ 정답 : 벤담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행위나 정책이 도덕적이라고 본다.



문제편 23~24쪽

06회 2024년 4월 고3 학력평가 정답과 해설 생활과 윤리

문제편 p.25

1	①	2	③	3	②	4	①	5	①
6	⑤	7	③	8	②	9	④	10	④
11	④	12	③	13	③	14	②	15	②
16	⑤	17	①	18	④	19	③	20	⑤

1 실천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 정답 ① 정답률 93%

① (가) : 현실의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② (가) : 도덕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 기술 윤리학
③ (나) : 올바른 삶의 지침이 될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④ (나) : 각 공동체의 다양한 도덕 관행을 비교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 기술 윤리학
⑤ (가)와 (나) :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탐구하는 것이다.

|자|료|해|설|
(가)는 실천 규범 윤리학, (나)는 메타 윤리학이다. 실천 규범 윤리학은 삶의 도덕적 문제들에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실천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명제에 대한 추론이나 판단이 타당한지 논리적으로 입증하려고 한다.

|선|택|지|풀|이|
① 정답 : 실천 규범 윤리학은 안락사, 분배 정의 등 현실의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2 갈퉁과 칸트의 평화 사상 정답 ③ 정답률 77%

① 갑 : 구조적 폭력은 항상 문화적 폭력에서 비롯된다. (구조적 폭력)
② 갑 : 비의도적 폭력은 평화 실현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을 : 평화 연맹은 모든 전쟁의 영원한 종식을 추구한다.
④ 을 : 영원한 평화는 국가 간 평화 조약 체결만으로 실현된다.
⑤ 갑과 을 : 물리적 폭력의 소멸은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보장한다. (예) 전쟁 종식)

|자|료|해|설|
갑은 갈퉁, 을은 칸트이다. 갈퉁은 '폭력의 삼각형' 개념을 바탕으로 하나의 폭력이 다른 폭력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경유하여 직접적 폭력을 낳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한다.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국가 간의 연맹인 '평화 연맹'이 필요하며, 평화 연맹은 소속 국가의 자유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선|택|지|풀|이|
③ 정답 : 칸트는 평화 연맹은 모든 전쟁의 영원한 종식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전쟁의 영원한 종식이란 단순한 휴전(休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간의 신뢰를 방해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모든 요소가 사라져야 영원한 종식이라고 주장한다.
④ 오답 : 칸트에 따르면 국가 간 평화 조약 체결은 휴전을 위한 것이므로 영원한 평화 조건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예비 조항과 확정 조항까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3 볼노브의 주거관 정답 ② 정답률 95%

보기
ㄱ. 집의 소유는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다.
ㄴ. 인간 내면의 건강은 휴식과 노동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ㄷ. 참된 거주를 위해 외부 공간과 단절하고 집에 머물러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자|료|해|설|
제시된 자료의 사상가는 볼노브이다. 볼노브는 인간이 공간에서 참된 거주를 실현함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실현한다고 주장하며, 주거 공간의 중요성을 실존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특히 주거 공간은 거주자에게 안정성을 주는 내부 공간으로, 거주자를 세계라는 외부 공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 준다.

|보|기|풀|이|
ㄱ. 오답 : 볼노브는 집의 소유만으로는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그는 거주자가 집과 내적인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ㄴ. 정답 : 볼노브는 인간의 내적 건강은 집이라는 내부 공간에서의 휴식과 외부 공간에서의 노동이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ㄷ. 오답 : 볼노브는 집이라는 내부 공간이 인간에게 안정성을 주는 공간이며, 세계라는 외부 공간에 대해 열릴 수 있는 닫힘의 공간이라고 주장한다.

4 아도르노의 문화 산업론 정답 ① 정답률 80%

① 문화 산업은 대중이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방해한다.
② 문화 산업의 구조에서 자본가는 표준화된 생산 방식을 거부한다.
③ 문화 산업에서의 궁극적인 생산 주체는 자본가가 아닌 대중이다.
④ 문화 산업에서 문화의 가치를 평가할 때 경제적 관점은 배제된다.
⑤ 문화 산업에서 생산된 상품에는 대중의 진정한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

|자|료|해|설|
제시된 자료의 사상가는 아도르노이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자본가는 문화 산업을 통해 대중을 통제한다. 대중은 자본가의 의도대로 생산된 문화 상품을 소비하게 되며, 문화 산업 속 대중문화는 자본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것이다. 또한 그는 대중문화가 규격화되고 획일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선|택|지|풀|이|
① 정답 : 아도르노에 따르면 문화 산업은 대중이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 자리에 사회 지배계급의 이념이 침투하도록 한다.
② 오답 : 아도르노에 따르면 대중문화는 문화 산업의 구조 속에서 생산되는 표준화된 상품이다. 따라서 자본가는 표준화, 규격화된 생산 방식을 채택한다.
③ 오답 : 아도르노에 따르면 문화 산업에서의 궁극적인 생산 주체는 대중이 아닌 자본가이다. 그는 대중이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궁극적 주체로 착각할 수 있지만, 문화 산업을 주도하는 궁극적 생산 주체는 자본가라고 본다.
④ 오답 : 아도르노에 따르면 문화 산업에서의 대중문화의 주된 가치는 교환 가치이다. 따라서 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적 관점이 배제되지 않는다.
⑤ 오답 : 아도르노에 따르면 대중의 진정한 욕구 반영은 허상일 뿐이다. 왜냐하면 대중의 욕구 역시 문화 산업 속 문화 상품의 속성에 길들여진 것이며, 자본가의 사전 기획에 따라 통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5 사형 제도에 대한 윤리적 쟁점 정답 ① 정답률 68%

보기 (갑 / 을)
ㄱ. A : 사형은 사회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형벌이다. (○ / ×)
ㄴ. B : 국가의 형벌 집행권은 시민의 동의에 근거하여 성립된다. (○ / ○)
ㄷ. B : 형벌의 경중은 범죄를 저지른 의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 사회적 해악
ㄹ. C : 살인자는 공공의 적이 아닌 도덕적 인격으로서 처벌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자|료|해|설|
갑은 베카리아, 을은 루소이다. 베카리아는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낮으므로 지속적 인상 측면에서 범죄 예방 효과가 뛰어난 종신 노역형을 옹호한다. 루소는 살인자는 공공의 적이며, 주권자의 결정에 의해 국가에서 추방당하거나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기|풀|이|
ㄱ. 정답 : 베카리아는 긍정, 루소는 부정할 내용이다.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의 목적을 공공의 자유와 복지라고 본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양도할 자는 없을 것이므로 사형은 사회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형벌이라고 본다. 루소는 시민의 생명 보존이 사회 계약의 목적이며, 타인의 생명권을 빼앗은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것은 사회 계약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본다.
ㄴ. 정답 : 베카리아와 루소 모두 긍정할 내용이다. 베카리아는 시민의 동의에 의해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이를 공탁하여 형벌권을 구성한다고 본다. 루소는 형벌 집행권이 주권자인 시민의 동의에 근거하여 성립된다고 본다.
ㄷ. 오답 : 베카리아가 부정할 내용이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경중은 범죄가 사회에 미친 나쁜 영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ㄹ. 오답 : 루소가 부정할 내용이다. 루소는 살인자가 공공의 적으로서 처벌되어야 한다고 본다.

6 과학 기술자의 책임 | 정답 ⑤ | 정답률 96%

○○신문 ○○○○년 ○○월 ○○일

칼 럼

과학 기술자의 책임 문제는 고객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고객이란 노동자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노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을 직접 고용한 사람만이 고객이 되지만, 과학 기술자는 고용주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도 고객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먼저 상당수의 연구가 세금에 의해 직 · 간접적으로 추진되므로 일반 대중이 과학 기술자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 기술자의 연구는 공공성이 지대하여 고용주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학 기술자에게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고용주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미칠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검토해야 할 책임이 있다. → 과학 기술자의 사회적 책임

① 과학 기술자는 공익보다 자신의 사적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② 과학 기술자의 연구 결과는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③ 과학 기술자는 연구 결과가 고용주에게 미칠 영향을 배제해야 한다.
④ 과학 기술자는 자신을 직접 고용한 사람만을 고객으로 여겨야 한다.
⑤ 과학 기술자는 연구 결과로 인한 사회적 파급 효과를 숙고해야 한다.

| 자 | 료 | 해 | 설 |
칼럼에서는 과학 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 선 | 택 | 지 | 풀 | 이 |
⑤ 정답 : 칼럼에 따르면 과학 기술자는 연구 결과로 인한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해 숙고하고 검토해야 할 책임이 있다.

7 유교 윤리적 접근, 도가 윤리적 접근 | 정답 ③ | 정답률 76%

① 갑 : 예법[禮]이 아닌 형벌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② 갑 : 이로운 것[利]이 곧 의로운 것[義]임을 알아야 한다. → 의 > 리
③ 을 : 도(道)에 따라 매사에 겸허(謙虛)하게 행동해야 한다. → 노자
④ 을 : 시비선악(是非善惡)을 엄격히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노자
⑤ 갑과 을 : 이상적 인간은 인륜(人倫)의 규범에서 벗어나야 한다.

| 자 | 료 | 해 | 설 |
갑은 유교의 맹자, 을은 도가의 노자이다. 맹자는 인의(仁義)를 따르는 것이 이목지욕[耳目之慾, 온갖 종류의 물질적, 감각적 욕망]에 빠지지 않고 선한 본성의 마음을 잘 발휘한 도덕적 인격자인 대인(大人)의 모습이라고 주장한다. 노자는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공(功)을 내세우지 않고 무위의 이치를 따르는 성인(聖人)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 선 | 택 | 지 | 풀 | 이 |
① 오답 : 맹자는 형벌이 아닌 덕을 통치의 근거로 삼아 백성을 다스리라고 주장하였다. 단, 유교 사상가들은 형벌이 예법에 근거하여 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② 오답 : 이로운 것이 곧 의로움이라고 주장한 사상가는 묵자이다. 유교 사상가들은 의로움을 이로운 것보다 우선한다.
③ 정답 : 노자는 참된 삶이란 도를 따르는 것이며, 물[水]과 같이 겸허하게 행동해야 함을 강조한다.
④ 오답 : 노자는 시비선악의 분별에서 벗어나 무위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한다.
⑤ 오답 : 맹자는 부정, 노자는 긍정할 내용이다. 맹자는 이상적인 인간은 인륜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인간 배아를 활용한 치료 | 정답 ② | 정답률 96%

인간 배아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므로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 배아를 활용하여 난치병 치료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해야 합니다.



인간 배아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만, 잠재적 인간이므로 도덕적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인간 배아를 활용한 난치병 치료 연구가 사회적 행복을 증진하더라도, 인간 배아 복제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① 갑 : 인간 배아는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② 갑 : 인간 배아는 잠재적 인간이므로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 을
③ 을 : 인간 배아를 단순한 세포 덩어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④ 을 : 사회적 유용성을 근거로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⑤ 갑과 을 : 인간 배아 복제는 난치병 치료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 자 | 료 | 해 | 설 |
갑은 인간 배아를 활용한 난치병 치료 연구를 찬성하는 입장, 을은 인간 배아를 활용한 난치병 치료 연구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 선 | 택 | 지 | 풀 | 이 |
② 정답 : 인간 배아는 잠재적 인간이며,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은 을의 입장이다.

9 분배적 정의관 | 정답 ④ | 정답률 55%

유용성 ·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

① 갑 : 차등의 원칙에 따른 분배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② 갑 :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자신과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하다.
③ 을 : 역사적이고 정형적인 원리에 따른 분배의 결과는 정의롭다.
④ 을 : 과거의 상황은 사물에 대한 응분의 자격을 만드는 요인이다.
⑤ 갑과 을 : 무지의 베일을 통해서만 정의로운 분배 원리가 산출된다.

| 자 | 료 | 해 | 설 |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는 무지의 베일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 무지의 베일 하에서도 일반적 사실(경제학 · 심리학적 일반적 사실, 정의에 대한 인식)은 차단되지 않는다. 노직은 취득, 이전에서의 정의에 있어 역사적 과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무지의 베일 개념은 분배 정의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 선 | 택 | 지 | 풀 | 이 |
① 오답 : 롤스는 정의의 제2원칙과 관련하여 재산 및 소득의 분배가 반드시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롤스에게 있어 이러한 분배 방식은 최소 수혜자뿐만 아니라 운을 타고나 더 많은 천부적 재능을 가진 이들에게도 이익이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더 적은 재능을 타고난 이들에게 공헌한다는 조건 하에서 천부적 재능을 사용해 더 큰 이익을 얻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④ 정답 : 노직은 최종 결과에 중점을 둔 원리와 달리 역사성을 고려한 원리에 따르면, 사람들의 과거 행위나 상황은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⑤ 오답 : 롤스는 긍정, 노직은 부정할 내용이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은 가상적 상황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얻어진다고 주장한다. 노직은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쓰고 분배 원리를 결정하는 것은 분배에 관한 종국(최종) 상태적 원리를 제한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10 인간 중심주의 윤리, 생명 중심주의 윤리, 동물 중심주의 윤리 | 정답 ④ | 정답률 43%

보기

	갑	을	병
ㄱ. A : 비이성적 개체를 해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는가?	○	○	○
ㄴ. B :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생명체도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가?	×	○	×
ㄷ. C : 목표 지향적 활동의 여부는 도덕적 고려의 유일한 기준인가?		×	
ㄹ. D : 유정적 존재의 특성에 따라 도덕적 배려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자 | 료 | 해 | 설 |
갑은 칸트, 을은 테일러, 병은 싱어이다. 칸트는 동물에 관련한 감사의 정은 직접적으로 볼 때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이며, 동물은 도덕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테일러는 기계와 달리 생명체는 독립된 존재로 고유의 선을 지니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싱어는 일부 동물도 고통에 대한 감각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며, 동물의 고통을 인간의 고통과 동등하게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 보 | 기 | 풀 | 이 |
ㄱ. 오답 : 칸트, 테일러, 싱어 모두 긍정할 질문이다. 칸트는 비이성적 개체는 도덕적 지위가 없으므로 이를 해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테일러는 비이성적 개체인 생명체에 대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해치는 경우가 가능하다고 본다. 싱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비이성적 개체인 동물이나 다른 생명체를 해치는 경우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ㄴ. 정답 : 테일러는 긍정, 칸트와 싱어는 부정할 질문이다. 칸트는 이성적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여기며, 이성적 인간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생명체이다. 따라서 포함 관계를 따져 볼 때,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생명체는 도덕적 지위가 없다. 테일러는 어떠한 생명체가 쾌고 감수 능력이 없어도 생명을 지닌 존재라면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본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의 유무가 도덕적 지위 설정의 기준이라고 본다.
ㄷ. 오답 : 테일러가 부정할 질문이다. 테일러는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기계도 목표 지향적 활동을 보이지만 고유의 선을 지니지 않으므로 내재적 가치가 없고,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목표 지향적 활동 여부는 도덕적 고려의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ㄹ. 정답 : 싱어가 긍정할 질문이다. 싱어는 유정적 존재의 특성에 따라 도덕적 배려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는 평등의 원리는 유정적 존재들의 동일한 처우가 아니라 평등한 배려를 의미한다고 본다. 이 때 평등한 배려는 그들을 서로 다르게 처우할 수 있으며, 그들이 서로 다른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문제편 26쪽

11 동양의 직업관 | 정답 ④ | 정답률 79%

보기
ㄱ. 갑 : 통치자는 백성이 선한 마음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ㄴ. 을 : 사회적 직분은 백성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ㄷ. 을 : 백성의 욕구는 예에 따라 제한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ㄹ. 갑과 을 : 통치자는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법에 따른 덕·능력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자|료|해|설|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정치는 백성에게 안정된 생업[恒産]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만약 항산이 없으면 변함없는 마음[恒心]도 없고, 백성은 편벽(偏僻)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순자는 인간이 욕망을 적절히 충족할 수 있도록 그 한계를 정해야 한다[分界]고 주장한다. 순자에게 있어 욕망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이 곧 예의법도이다.

|보|기|풀|이|
ㄱ. 정답 : 맹자는 통치자가 어진 정치를 하여 백성에게 항산을 보장해 주면 백성이 선한 마음을 유지하고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ㄴ. 오답 : 순자는 사회적 직분이 백성의 선택이 아닌, 옛 어진 임금인 선왕(先王)이 제정한 예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ㄷ. 정답 : 순자는 백성이 욕구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욕구는 예에 따라 제한적으로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ㄹ. 정답 : 맹자와 순자 모두 긍정할 내용이다. 제시문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맹자는 현명한 군주라면 민생 안정을 위해 힘쓴다고 주장하며, 순자도 현명한 군주는 민생을 위해 공평한 정치로 백성을 바로잡는다고 주장한다.

12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 정답 ③ | 정답률 81%

보기
ㄱ. (가) : 국제 분쟁의 해결 주체는 개별 국가에 한정되어야 한다.
ㄴ. (나) : 다른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소이다.
ㄷ. (가)와 (나) : 국제 분쟁을 억지하기 위한 해결 방안은 존재한다.
ㄹ. (가)와 (나) : 국제 분쟁은 제도적 결함보다 인간의 본성에서 유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자|료|해|설|
(가)는 이상주의, (나)는 현실주의이다. 이상주의는 국제 분쟁을 국제법, 국가 간의 규범을 통해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실주의는 국제 정치의 핵심을 '권력 투쟁'으로 보고, 국제 분쟁을 세력 균형, 군사 동맹 등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기|풀|이|
ㄱ. 오답 : 이상주의에 따르면 국제 분쟁의 해결 주체는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도 포함된다. 국제법이나 국제 규범을 통한 해결은 국제기구에서의 협의,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ㄴ. 정답 : 현실주의는 국제 정치의 본질을 권력 투쟁으로 본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려 하며, 그 과정에서 다른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소가 된다.
ㄷ. 정답 :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모두 긍정할 내용이다. 이상주의는 국제법과 국제 규범을 통한 제도 개선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현실주의는 군사 동맹, 군비 증강을 통한 세력 균형 정책을 통해 국제 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ㄹ. 오답 : 이상주의가 부정할 내용이다. 이상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이성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국제 분쟁의 원인은 인간 본성보다는 제도적 결함에 기인한다고 본다.

13 시민 불복종 | 정답 ③ | 정답률 63%

① 시민 불복종의 목적은 부정의한 정치 체제를 변혁하는 것이다.
②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을 위반해야 할 의무는 절대적이다.
③ 시민 불복종을 시행하는 의도가 왜곡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④ 시민 불복종은 심각한 부정의가 있는 민주 사회에서 발생할 수 없다.
⑤ 시민 불복종은 다수가 믿는 종교적 교리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법 위반 가능

|자|료|해|설|
제시된 자료의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이 침해되어 극심한 무질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따라서 시민 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음을 가정하고, 시민 불복종 형태의 항의를 처리할 공의회의 능력에도 상한선이 있다고 주장한다.

|선|택|지|풀|이|
① 오답 :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의 목적은 부정의한 일부 법과 정책의 변혁이다. 부정의한 정치 체제 자체의 변혁은 시민 불복종의 영역이 아닌 혁명의 영역이다.
② 오답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고, 대신 다른 법을 위반하여 항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는 아니다.
③ 정답 : 롤스는 시민 불복종 행위의 효율성에 있어 그 한계와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시민 불복종을 하는 집단들의 호소가 왜곡될 수 있고,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려는 의도를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오답 : 롤스는 민주 사회에서도 심각한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시민 불복종의 주체는 민주 사회 체제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시민이라고 본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심각한 부정의가 있는 민주 사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⑤ 오답 : 롤스는 사회의 다수가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적 교리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4 칸트의 의무론,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 | 정답 ② | 정답률 77%

① 갑 : 쾌락 총량의 극대화 원칙을 토대로 기부 여부를 결정하세요. → 공리주의
② 갑 : 이재민을 도와야 한다는 순수한 도덕적 동기에 따라 행동하세요. (의무 의식)
③ 을 : 공동체의 어려운 상황과 관계없이 보편적 도덕 원리를 따르세요.
④ 을 : 기부 행위가 자신의 유덕한 품성 형성과 무관함을 명심하세요.
⑤ 갑과 을 : 이성적 판단을 위해 이재민에 대한 동정심을 배제하세요.

|자|료|해|설|
갑은 칸트, 을은 매킨타이어이다. 칸트는 행복주의 윤리관을 비판하며 도덕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진정한 도덕적 가치는 경향성 없이, 오로지 의무로부터 비롯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매킨타이어는 합리적 이성 위에 도덕의 기초를 세우려고 한 근대적 기획은 실패했다고 비판한다. 그는 목적론적 전통에 따라 도덕적 행위를 위해 인간은 덕을 발휘해야 하며, 덕은 삶의 서사적 통일성과 사회적 전통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선|택|지|풀|이|
② 정답 : 칸트는 경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선행(善行)을 해야 한다는 도덕적 동기에 따라 행동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③ 오답 : 매킨타이어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비판하였으며, 도덕적 행위에 있어 상황·맥락을 고려한다.
⑤ 오답 : 칸트는 긍정, 매킨타이어는 부정할 내용이다. 칸트는 동정심에 따른 행위가 악한 행위의 정당화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동정심을 행위 동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본다. 매킨타이어와 같은 덕 윤리에서는 도덕적 행위나 판단에 있어 동정심과 같은 감정의 역할도 인정한다.

15 국가의 권위와 그 정당성 | 정답 ② | 정답률 45%

① A : 자연 상태에서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② A : 자연 상태에서 개인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③ A : 시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국가 권력이 분립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④ B : 사회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는 주권을 가질 수 없음을 간과한다.
⑤ B : 개인이 가진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는 것이 아님을 간과한다.

|자|료|해|설|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없으므로 내 것과 네 것의 구별이 없다고 강조한다. 로크는 자연 상태는 공통된 재판관이 없고, 자연법의 집행권이 각 개인에게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종국에는 전쟁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의 재산을 잘 보존하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는다고 주장한다.

|선|택|지|풀|이|
① 오답 :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공통의 권력, 즉 '공통의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② 정답 :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내 것과 네 것의 구분, 즉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로크는 자연 상태의 인간도 소유권을 지닌다고 본다. 따라서 로크에 대한 홉스의 비판으로 적절하다.
③ 오답 : 로크는 국가 권력이 분립되지 않으면 국가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이용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권과 집행권이 분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오답 : 홉스는 국가의 주권자가 시민이 아닌 통치자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는 주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⑤ 오답 : 개인이 가진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홉스와 로크의 공통점이다. 홉스는 권리 양도 과정에서 개인의 생명권은 제외된다고 본다. 로크는 개인이 국가에 자유, 평등, 자연법의 집행권을 양도한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는 것은 아니다.

16 짐멜의 유행에 대한 관점 | 정답 ⑤ | 정답률 90%

보기
ㄱ. 어떤 계층이든 새로운 유행을 직접 창출할 수 있다.
ㄴ. 상류층에서 시작된 유행은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없다.
ㄷ. 인간은 모방하려는 성향과 변화를 찾으려는 성향을 함께 지닌다.
ㄹ. 상류층은 유행을 통해 다른 계층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려고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자|료|해|설|
강연자는 짐멜이다. 짐멜은 유행이 상류층에서 발생해 다른 계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또한 하나의 유행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면 상류층은 일반 대중과 자신들을 구분하기 위한 또 다른 유행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짐멜에 따르면 이 같은 유행은 인간의 모방 성향과 변화 추구 성향에 근거한 것이다.

|보|기|풀|이|
ㄷ. 정답 : 짐멜에 따르면 유행은 일종의 모방이며, 이는 사회에 대한 인간의 의존 욕구와 관계있다. 한편 유행은 차별화 측면도 지니는데 이는 다른 존재, 계층과 차별화되려는 인간의 차별화 욕구와 관계있다고 주장한다.
ㄹ. 정답 : 짐멜에 따르면 상류층은 유행을 통해 다른 계층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만약 해당 유행이 사회 전체에 퍼진다면, 상류층은 기존의 유행을 버리고 새로운 유행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17 해외 원조의 윤리적 근거 | 정답 ① | 정답률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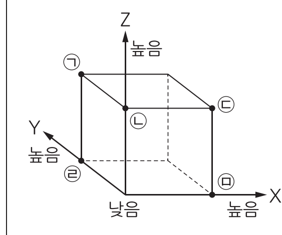
① 갑 : 원조 주체는 원조 대상국에게 인권의 존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갑 :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모든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③ 을 : 원조 여부를 결정할 때 원조 주체의 이익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④ 을 : 원조의 우선순위는 원조 주체와의 인종적 친화성에 달려 있다.
⑤ 갑과 을 : 고통받는 사람들의 복지 향상이 원조의 직접적 목표이다.

|자|료|해|설|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선|택|지|풀|이|
① 정답 : 롤스는 인권에 대한 강조가 무능한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국민의 복지에 대해 무감각한 통치자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② 오답 : 롤스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 중 타 국가에 공격적인 무법 국가는 원조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③ 오답 : 싱어는 절대 빈곤을 막는 과정에서 원조 주체가 그에 상당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즉, 무조건적인 원조 찬성 입장이 아니다. 그러므로 싱어 입장에서, 원조 여부를 결정할 때 원조 주체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④ 오답 : 싱어는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에서 원조를 결정할 때는 지리적 근접성, 인종적 친화성 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⑤ 오답 : 롤스는 부정하고 싱어는 긍정할 입장이다. 롤스는 원조의 직접적 목표는 개개인의 복지 향상이 아닌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싱어는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직접적 목표라고 본다.

18 사랑과 성의 관계 | 정답 ④ | 정답률 79%

자유주의 ← (가) 쾌락 그 자체를 위한 성(性)은 부도덕하지 않다. 성의 주된 목적은 쾌락 추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쾌락 추구를 위한 성을 결혼과 출산으로 제약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수주의 ← (나) 쾌락 그 자체를 위한 성은 부도덕하다. 성의 주된 목적은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은 결혼과 출산이 전제될 때에만 정당하다.



• X : 성의 쾌락적 가치를 강조하는 정도↓
• Y : 종족 보존이 성의 목적임을 강조하는 정도↑
• Z : 혼전(婚前) 성이 정당함을 강조하는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자|료|해|설|
(가)는 자유주의 성 윤리, (나)는 보수주의 성 윤리이다. (나)는 (가)에 비해 성의 쾌락적 가치를 강조하는 정도(X)가 낮고, 종족 보존이 성의 목적임을 강조하는 정도(Y)는 높으며, 결혼 전의 성적 관계(혼전 성)가 정당함을 강조하는 정도(Z)가 낮다.

|선|택|지|풀|이|
④ 정답 : X축이 낮고 Y축이 높고 Z축이 낮다.

19 죽음에 대한 동서양의 관점 | 정답 ③ | 정답률 72%

보기
ㄱ. 갑 : 삶은 좋아함으로 죽음은 싫어함으로 분별된다. (차별)
ㄴ. 을 : 죽음 이후에 소멸하는 것은 영혼이 아닌 육체이다.
ㄷ. 을 : 죽을 것을 예상하여 미리 고통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ㄹ. 갑과 을 : 죽음을 올바르게 인식하면 불멸에 대한 욕구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자|료|해|설|
갑은 장자,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장자는 성인(聖人)이란 소요(逍遙)의 경지에 이른 자라고 본다. 또한 옳고 그름, 좋음과 나쁨에 대한 인식의 분별을 초월한 존재라고 본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에 대한 공포, 불멸에 대한 헛된 믿음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과 무관하므로 즐거운 삶(쾌락적인 삶)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죽음이 인간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기|풀|이|
ㄱ. 오답 : 장자에 따르면 도(道)는 삶과 죽음을 차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자는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분별적인 태도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
ㄴ. 오답 :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 모두 원자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죽음을 원자의 흩어짐으로 보았다. 이 때 원자는 새롭게 생성되지도 완전히 소멸되지도 않는 종류의 것이다.
ㄷ. 정답 :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조한다. 특히 살아있을 때는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으므로 죽을 것을 예상하여 미리 고통스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ㄹ. 정답 : 장자와 에피쿠로스 모두 긍정할 내용이다. 두 사상가 모두 불멸하는 삶에 대해 긍정하지 않으며, 불멸에 대한 욕구는 허망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20 숏폼 콘텐츠와 관련한 논쟁 | 정답 ⑤ | 정답률 83%

자율적 규제 ← 갑 : 최근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을 일컫는 숏폼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숏폼 콘텐츠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적 규제 +법적 규제 ← 을 : 동의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해한 숏폼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벌금 부과나 영상 제작 제한 등의 법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갑 : 아닙니다. 법적 규제는 다양한 숏폼 콘텐츠 제작을 위축시키므로 시행하면 안 됩니다. 숏폼 콘텐츠의 유해성 문제는 제작자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을 : 자율적 규제만으로는 강제력이 없어서 실효성이 약합니다. 다양한 숏폼 콘텐츠 제작이 위축될 수 있겠지만,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규제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갑	을
① 유해한 숏폼 콘텐츠는 자율적 규제의 대상인가?	○	○
② 모든 숏폼 콘텐츠는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치는가?	×	×
③ 숏폼 콘텐츠의 유해성 문제에 대한 자율적 규제는 실효성이 있는가?	○	○
④ 영상 제작의 법적 제한은 숏폼 콘텐츠 제작을 위축시킬 수 있는가?	○	○
⑤ 유해한 숏폼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시행해야 하는가?	×	○

|자|료|해|설|
갑은 숏폼 콘텐츠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옹호하는 입장, 을은 숏폼 콘텐츠에 대한 자율적 규제뿐만 아니라 법적 규제도 옹호하는 입장이다. 갑과 을 모두 일부 숏폼 콘텐츠는 청소년에게 유해하여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숏폼 콘텐츠 제작에 대한 법적 제한은 제작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본다.

|선|택|지|풀|이|
⑤ 정답 : 갑은 부정, 을은 긍정할 질문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다. 갑은 숏폼 콘텐츠의 유해성 문제는 제작자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을은 자율적 규제만으로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규제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문제편 28쪽

07회 2022학년도 6월 고3 모의평가
정답과 해설 생활과 윤리

문제편 p.29

1	②	2	③	3	①	4	⑤	5	⑤
6	③	7	①	8	④	9	①	10	⑤
11	④	12	③	13	⑤	14	②	15	④
16	②	17	①	18	④	19	④	20	⑤

1 이론 규범 윤리학, 기술 윤리학 | 정답 ② | 정답률 80%

이론 규범 윤리학 ← 나는 윤리학이 행위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체계화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도덕적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주장은 윤리학이 [㉠]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기술 윤리학: 어떤 사람)

이론 규범 윤리학의 기술 윤리학 비판

① 도덕적 관습을 실증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 기술 윤리학
② 가치 판단을 위해 도덕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
③ 하나의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④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⑤ 도덕 추론의 논리적 구조를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

(③~⑤ → 메타 윤리학)

2 로크의 사회 계약론,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 | 정답 ③ | 정답률 57%

로크 ← 갑 :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법률이 없고, 무사 공평한 재판관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 을 :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종류의 좋음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국가는 그 모든 공동체들 중에서 최고의 것이면서 다른 모든 공동체들을 포괄한다. 그리고 국가는 모든 좋음들 중에서 최고의 좋음을 목표로 한다.

① 갑 : 국가는 공통된 법률에 따라 시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
② 갑 : 국가는 자국민을 침해한 외부인들을 처벌할 권력을 지닌다.
③ 을 : 국가는 정치적 동물인 인간들의 상호 동의를 통해 발생한다.
④ 을 : 인간은 국가 속에서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⑤ 갑, 을 : 시민은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해 정치적 의무를 지닌다.

→ 인간의 사회적 · 정치적 본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

| 선 | 택 | 지 | 풀 | 이 |

③ 정답 :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며,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가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본다.
⑤ 오답 : 로크와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시민은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해 정치적 의무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로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통해 정치적 복종의 의무를 지게 된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적 동물인 인간은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의무를 다할 때 행복하고 명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본다.

3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 정답 ① | 정답률 77%

화자의 의사소통의 의도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화자가 자신과 청자 사이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상호 관계가 성립하도록 규범적 맥락에 따라 올바른 의사소통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화자가 자신의 지식을 청자가 받아들이며 공유하도록 참된 진술을 하는 것이다. 셋째, 화자가 자신이 말한 것을 청자가 믿도록 생각, 의도, 감정, 소망 등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 하버마스 : 담론 윤리

보기
ㄱ. 의사소통 행위는 상호 이해를 지향해야 한다.
ㄴ.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도 담론에 부칠 수 있다.
ㄷ. 발화(發話) 내용이 참되다면 어떠한 발화 자세도 허용된다.
ㄹ. 규범의 타당성은 참여자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확보된다. (→ 규범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보 | 기 | 풀 | 이 |

ㄱ. 정답 :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의 본질은 '상호 주관성'에 있으며, 의사소통의 목적은 상호 간 이해에 있기 때문에 상대를 속이거나 현혹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진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는 소통을 할 것을 주장한다.
ㄴ. 정답 : 하버마스는 담론 참여자들이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겸허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자신의 무오류성을 강조한 나머지 타인의 주장을 배척하거나 거짓으로 간주하면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4 칸트의 의무론 | 정답 ⑤ | 정답률 77%

어떤 행위가 의무에 맞을지라도 반드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비록 그 행위가 의무가 명령한 것에 맞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의무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도덕적 가치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
칸트 : 의무론

① 꾸준한 도덕적 실천으로 얻어진 덕에 따라 행동하세요. → 덕 윤리
② 당신의 자연적 성향에 따라 손님들을 정직하게 대하세요. (→ 감정, 본능적 욕구)
③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직하게 행동하세요.
④ 당신의 정직한 행위가 도덕적 의무에 맞기만 하면 됩니다. (→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함)
⑤ 경향성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도덕적 동기에 따라 행동하세요. (→ 의무 의식, 선의지)

| 선 | 택 | 지 | 풀 | 이 |

② 오답 : 칸트에 따르면, 자연적 성향에 따른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 칸트는 오직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때문이다.
③ 오답 : 칸트의 입장에서는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도덕적이라는 것은 공리주의의 입장이다.
⑤ 정답 : 칸트는 도덕적 행위는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경향성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도덕적 동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 성 상품화와 성적 자기 결정권 | 정답 ⑤ | 정답률 84%

서술형 평가

◎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가) 자신의 성(性)적 이미지를 제품과 연결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권리 행사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에만 정당하다. →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성 상품화 찬성
(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이윤 추구 행위는 성을 도구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성을 도구화하므로 성 상품화 반대

◎ 학생 답안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가)는 ㉠ 성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반드시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성적 매력을 표현하여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나)는 ㉢ 성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성 상품화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이윤 추구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가), (나)는 모두 ㉤ 자신의 성적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나): 인격 훼손 X, (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X)

① ㉠ ② ㉡ ③ ㉢ ④ ㉣ ⑤ ㉤

| 자 | 료 | 해 | 설 |

(가)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라 성을 상품화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나)는 성 상품화는 성이 가지는 본래적 가치와 의미를 변질시킬 수 있다고 보아 성을 상품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 선 | 택 | 지 | 풀 | 이 |

⑤ 정답 : (가)와 (나) 모두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고, (나)는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문제편 29쪽

6 유교 윤리적 접근, 도가 윤리적 접근 | 정답 ③ | 정답률 67%

보기

ㄱ. 갑 : 인(仁)의 출발점인 무차별적 사랑[兼愛]을 행해야 한다.
ㄴ. 갑 :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는 도덕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ㄷ. 을 : 인위적인 통치가 없는 소박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ㄹ. 갑, 을 : 예법을 통해 본래의 자연스러운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자|료|해|설|

갑은 공자이다. 공자는 도덕적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통치 방법과 관련하여 형벌이나 무력보다는 도덕과 예의로써 백성들을 교화하며, 분배의 고름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동사회를 이상 사회로 본다. 을은 노자이다. 노자는 "도는 자연을 본받아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천지 만물의 근원인 도의 특성은 인위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무위자연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무위자연을 이상적 삶의 모습으로 제시하며, 무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소국과민을 이상 사회로 본다.

|보|기|풀|이|

ㄴ. 정답 : 공자는 대동사회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고 인륜이 구현되고 인재가 등용되며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고 사회적 약자가 보살핌을 받는 평화롭고 도덕적인 공동체라고 주장한다.
ㄷ. 정답 : 노자는 통치자의 인위적인 조작이 없으면 백성은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소박한 사회를 지향한다. 단, 노자는 인위적인 통치를 부정한 것이지, 통치 자체가 필요 없다거나 통치자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ㄹ. 오답 : 노자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도덕이나 예(禮)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 상대적인 것이며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7 롤스, 노직의 분배 정의 | 정답 ① | 정답률 46%

① 갑 :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
② 갑 : 기본적 자유가 개인들에게 불평등하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③ 을 : 개인이 노동을 통해 취득한 소유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을 : 정형적 원리에 따른 재분배는 이전(移轉)에서의 정의에 어긋난다.
⑤ 갑, 을 : 정의의 원칙은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규정해 준다.

|자|료|해|설|

갑은 롤스이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으로부터 도출된 정의의 원칙을 따를 때 공정한 분배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지위, 계층, 능력 등 우연적인 조건들을 알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갖고, 가장 불운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주는 분배 방식에 합의하게 된다. 을은 노직이다. 노직은 재화의 취득과 이전의 절차나 과정이 정당하면 그 과정을 통해 얻은 소유물에 관해서는 개인이 절대적 소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는 국가가 강압, 절도, 사기, 강제 계약의 발생을 막거나 교정하는 일 이상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되며, 재화의 분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보다 절차와 과정이 정당한 한 최대한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택|지|풀|이|

① 정답 : 롤스에 따르면,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는 기본적 자유이며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 자유는 사회적 이익 등을 위해 침해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단, 롤스는 기본적 자유들 사이의 충돌 등 예외 상황의 가능성을 인정하며, 또 다른 하나 이상의 기본적 자유를 위해서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롤스의 입장에서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8 정약용의 공직자 윤리 | 정답 ④ | 정답률 91%

> 백성은 윗사람을 섬기는 자이고, 수령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이다. 수령 노릇을 잘하려면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려면 반드시 절약해야 한다.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므로 백성을 위해 크게 탐하는[大貪] 자는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수령이 치밀하지 못하여 재물을 쓰는 방법을 몰라 실효(實效)가 없으면 안 된다. 수령이 경비를 남용하면 재정이 부족해져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게 된다.

① 수령은 공무 수행 시 재정 지출의 효과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② 수령은 공공의 복리 증진이 아니라 재정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③ 수령은 백성과 자신이 직분상 동등한 관계임을 자각해야 한다.
④ 수령은 검소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직무를 올바로 수행할 수 없다.
⑤ 수령은 공무 수행에서 인(仁)을 실현하려는 마음을 억제해야 한다.

9 대중문화와 관련된 윤리 문제 | 정답 ① | 정답률 92%

(가)	문화 산업은 획일적인 상품만을 생산할 뿐이다. 문화 산업의 기술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문화 산업은 어떠한 문화 상품을 제공하든 소비자는 그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주입시킨다. 이로 인해 문화 상품은 소비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나)	문화 산업은 '스타'를 제조한다. 대부분의 기획사는 스타를 철저한 전략에 따라 기획한 뒤 최대한 많은 매체에 출연시켜 돈을 번다. 그리고 대중이 싫증을 느끼면 유사한 새로운 스타를 내놓는다. 수많은 반짝 스타들이 소모품처럼 사라진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

① 문화 산업이 대중문화를 규격화된 상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② 문화 상품이 작품 창작자의 독창적 견해에 따라 제작되기 때문이다.
③ 문화 산업이 이윤보다는 지속적 창작 활동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④ 문화 산업의 생산자가 소비자의 고유한 체험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⑤ 문화 상품이 표준화된 양식에 맞추어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선|택|지|풀|이|

① 정답 : 아도르노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 산업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추구하여 이 과정에서 획일화된 문화 상품을 끊임없이 생산한다고 주장한다.

10 인간 중심주의 윤리, 동물 중심주의 윤리, 생태 중심주의 윤리 | 정답 ⑤ | 정답률 62%

(가)	갑 : 인간은 통상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는 갖지 않는다. 늙은 말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직접적으로 볼 때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을 : 인간만이 아니라 일부 동물도 삶의 주체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른 존재의 이익과는 독립적으로 개별적 복지를 갖는 것과 같은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다. 병 :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활동으로만 설명되어 온 많은 역사적 사건들은 실제로는 인간과 대지의 생명적 상호 작용이었다.
(나)	갑 A, 을 B, 병 C, D <범 례> A : 갑만의 입장 B : 을만의 입장 C : 병만의 입장 D :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보기

ㄱ. A :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는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는다.
ㄴ. B : 인간은 동물 종(種)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ㄷ. C : 인간은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ㄹ. D :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권리를 지닌 존재일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자|료|해|설|

갑은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 칸트이다. 을은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 레건이다. 병은 생태 중심주의 사상가 레오폴드이다.

|보|기|풀|이|

ㄱ. 오답 : 칸트는 어떤 존재가 이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존재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만 지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수단적, 도구적 가치를 부여한다.
ㄴ. 오답 : 레건은 자연의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고 욕구, 지각, 기억, 감정 등 일련의 특징을 지니고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주체만이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 종(種)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동물에게 즉,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도덕적 권리를 지닌 개체에게 직접적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ㄷ. 정답 : 레오폴드는 살아 있는 모든 존재와 무생물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존재를 도덕적 존중 대상으로 삼는다. 단, 도덕적 존중 대상이라도 대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별 유기체가 희생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ㄹ. 정답 : 레건은 일부 동물이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레오폴드는 자연의 모든 존재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따라서, 레건과 레오폴드 둘 다 동물도 권리를 지닌 존재일 수 있다고 본다.

문제편 30쪽

11 동물 실험의 의미 및 윤리적 쟁점　　정답 ④　정답률 93%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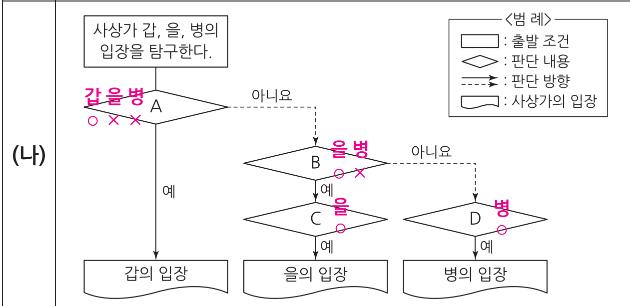
ㄱ. (가) : 동물 실험은 그 목적이 선해도 허용될 수 없다.
ㄴ. (가) : 인간의 복지가 동물들의 이익 관심보다 우선한다.
ㄷ. (나) :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대부분의 질병을 동물과 공유한다.
ㄹ. (가), (나) :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자|료|해|설|
(가)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물 실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나)는 동물 실험의 결과가 인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에게 지나친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 노직, 롤스, 싱어의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　　정답 ③　정답률 57%

(가)
노직 ← 갑 :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 국가이어야 한다. 국가는 시민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강제적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롤스 ← 을 :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사회에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이 국제 사회에 적용될 이유는 없다.
싱어 ← 병 : 자국민을 돕는 것이 원조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나라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


보기　노직 롤스 싱어

ㄱ. A : 모든 원조는 원조 주체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가? ×
ㄴ. B : 원조는 자원 분포의 우연성의 결과를 조정하려는 것인가? ×
ㄷ. C : 원조를 중단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규정해야 하는가? ○
ㄹ. D : 원조는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자|료|해|설|
갑은 노직이다. 노직은 개인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관해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며 자신의 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이므로 해외 원조나 기부를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을은 롤스이다. 롤스는 해외 원조가 정의 실현을 위한 의무임을 강조한다. 병은 싱어이다. 싱어는 누군가 고통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이므로 도움을 줄 대상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 민족, 국경 내부로 한정하지 말고 지구촌 전체로 확대하여 해외 원조와 기부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보|기|풀|이|
ㄱ. 오답 : 노직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부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은 훌륭한 일이자 윤리적 행위라고 본다.

13 잊힐 권리와 정보 자기 결정권　　정답 ⑤　정답률 94%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②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 정보의 활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③ 잊힐 권리보다 알 권리를 중시하여 공익을 증진해야 한다.
④ 모든 정보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⑤ 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자|료|해|설|
칼럼의 주제는 정보의 자기 결정권이다. 칼럼니스트는 오늘날 정보 사회에서 정보가 침해되는 경우가 증가하여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자신의 개인 정보의 공개 범위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14 뇌사의 윤리적 쟁점　　정답 ②　정답률 76%

(가) 심장 박동과 호흡이 비가역적으로 정지된 심폐사만을 죽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심폐사는 죽음에 대한 전통적인 판정 기준으로, 죽음의 시점을 확실하게 적시할 수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죽음을 판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죽음 판정 기준 : 심폐사
(나) 뇌의 모든 기능을 상실한 사람은 결국 수일 내에 심폐사에 이르게 된다. 뇌사자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억지로 지속하는 것은 뇌사자를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의료 자원을 소모하면서 장기를 기증할 기회도 잃게 하므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 죽음 판정 기준 : 뇌사

① 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한다.
② 뇌사가 죽음에 이르는 과도기적 상태라는 것을 간과한다.
③ 뇌사 인정은 뇌사자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④ 장기 이식을 위해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간과한다.
⑤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것을 간과한다.

|선|택|지|풀|이|
② 정답 : (가)는 뇌사자를 죽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죽음에 이르는 과도기적 상태라고 주장한다. (나)는 뇌사를 과도기가 아니라 죽음의 상태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므로 (가)가 (나)에게 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15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　　정답 ④　정답률 68%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 ← 기술은 단지 수단일 뿐이며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기술이 선한지 악한지는 인간이 기술로부터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은 공허한 힘일 뿐입니다.

기술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기술에 무방비 상태로 내맡겨지는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보기

ㄱ. 갑 : 기술의 활용 결과는 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ㄴ. 을 : 기술에 대해 가치 중립적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ㄷ. 을 : 기술에 대해 무관심할 때 기술로부터 자유로워진다.
ㄹ. 갑, 을 : 기술의 활용 방향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자|료|해|설|
갑은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긍정하는 입장의 야스퍼스이다. 야스퍼스는 과학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한 자연 현상의 보편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과학 기술 자체는 선악의 가치 기준을 가질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본다. 을은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의 하이데거이다. 하이데거는 과학 지식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주된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의해 해석된 것이라고 본다.

|보|기|풀|이|
ㄴ. 정답 : 하이데거는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여길 때, 인간이 기술에 붙들리고 종속되는 상태에 놓인다고 주장한다.
ㄹ. 정답 : 야스퍼스와 하이데거 모두 기술의 활용 방향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야스퍼스는 과학 기술은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만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16 롤스의 시민 불복종　　정답 ②　정답률 44%

나는 시민 불복종을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행위는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항거함으로써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고, 부정의를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당한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적 성향은 질서 정연한 사회 속에 안정을 가져다준다. → 롤스 : 시민 불복종

①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집단의 이익에 근거해야 한다.
② 시민 불복종은 사회의 기본 구조가 아주 부정의하면 성립할 수 없다.
③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④ 시민 불복종은 비민주적 체제의 변혁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시민 불복종의 근거인 다수의 정의감은 개인의 양심과 양립할 수 없다.

문제편 31~32쪽

마더텅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전용 답안지

④교시 탐 구 영 역

결시자 확인 (수험생은 표기하지 말 것.)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수험번호란과 옆란을 표기

※ 문제지 표지에 안내된 필적 확인 문구를 아래 '필적 확인란'에 정자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 적 확인란

성 명

수 험 번 호								
				—				
	0	0	0		0	0	0	0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4	4	4	4	—	4	4		4
5	5	5	5		5	5		5
6	6		6		6	6		6
7	7		7		7	7		7
8	8		8		8	8		8
9	9		9		9	9		9

※ 탐구 영역은 문형(홀수형/짝수형)구분 없음

※ 수험표에 부착된 스티커의 선택과목 순서대로 답란에 표기

감독관 확인 (수험생은 표기하지 말 것) (서 명 또는 날 인) 본인 여부, 수험번호의 표기가 정확한지 확인, 옆란에 서명 또는 날인

※ 답안지 작성(표기)은 **반드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고, 연필 또는 샤프 등의 필기구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 1 선 택

문번	답				란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 유 의 사 항 >

1. 탐구 영역 시간별(30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2. 탐구 영역 시간별(30분)로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 탐구 영역 2개 과목 선택자의 경우, 제2선택 과목 시험시간 중 종료된 제1선택 과목 답안 작성 및 수정 불가

3.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수에 관계없이 제1선택 답란부터 수험표에 표기된 순서대로 답안지에 표기해야 합니다.

※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자는 제1선택 과목 답안지에 답안 작성

제 2 선 택

문번	답				란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마더텅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전용 답안지

④교시 탐 구 영 역

결시자 확인 (수험생은 표기하지 말 것.)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수험번호란과 옆란을 표기

※ 문제지 표지에 안내된 필적 확인 문구를 아래 '필적 확인란'에 정자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 적 확인란

성 명

수 험 번 호

※ 탐구 영역은 문형(홀수형/짝수형)구분 없음

※ 수험표에 부착된 스티커의 선택과목 순서대로 답란에 표기

감독관 확인 (수험생은 표기하지 말 것) (서 명 또는 날 인) 본인 여부, 수험번호의 표기가 정확한지 확인, 옆란에 서명 또는 날인

※ 답안지 작성(표기)은 반드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고, 연필 또는 샤프 등의 필기구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 1 선 택

< 유 의 사 항 >

1. 탐구 영역 시간별(30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2. 탐구 영역 시간별(30분)로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 탐구 영역 2개 과목 선택자의 경우, 제2선택 과목 시험시간 중 종료된 제1선택 과목 답안 작성 및 수정 불가

3.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수에 관계없이 제1선택 답란부터 수험표에 표기된 순서대로 답안지에 표기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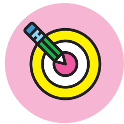
※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자는 제1선택 과목 답안지에 답안 작성

제 2 선 택

MOTHERTONGUE 마더텅출판사

마더텅 홈페이지에서 OMR 카드의 PDF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수험생분께서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① 주소창에 www.toptutor.co.kr 입력 또는 포털에서 [마더텅] 검색 ② 학습자료실 → 교재관련자료 → (고등) (빨간책) (과목) (교재) 선택 → OMR 카드 내려받기



정답표

1회 2022년 3월 고3 학력평가

1 ④	2 ②	3 ①	4 ①	5 ⑤	6 ③	7 ③	8 ①	9 ④	10 ②
11 ③	12 ①	13 ③	14 ②	15 ⑤	16 ③	17 ②	18 ⑤	19 ⑤	20 ④

2회 2023년 3월 고3 학력평가

1 ⑤	2 ④	3 ②	4 ⑤	5 ③	6 ②	7 ⑤	8 ②	9 ④	10 ①
11 ①	12 ⑤	13 ③	14 ⑤	15 ③	16 ④	17 ④	18 ②	19 ①	20 ③

3회 2024년 3월 고3 학력평가

1 ④	2 ②	3 ④	4 ③	5 ①	6 ①	7 ④	8 ⑤	9 ③	10 ①
11 ②	12 ①	13 ③	14 ②	15 ③	16 ④	17 ①	18 ⑤	19 ⑤	20 ②

4회 2022년 4월 고3 학력평가

1 ③	2 ③	3 ④	4 ①	5 ⑤	6 ⑤	7 ②	8 ②	9 ④	10 ④
11 ③	12 ④	13 ⑤	14 ③	15 ①	16 ⑤	17 ④	18 ②	19 ⑤	20 ①

5회 2023년 4월 고3 학력평가

1 ⑤	2 ④	3 ②	4 ⑤	5 ④	6 ②	7 ②	8 ①	9 ④	10 ③
11 ③	12 ③	13 ⑤	14 ①	15 ①	16 ⑤	17 ④	18 ③	19 ②	20 ④

6회 2024년 4월 고3 학력평가

1 ①	2 ③	3 ②	4 ①	5 ①	6 ⑤	7 ③	8 ②	9 ④	10 ④
11 ④	12 ③	13 ③	14 ②	15 ②	16 ⑤	17 ①	18 ④	19 ③	20 ⑤

7회 2022학년도 6월 고3 모의평가

1 ②	2 ③	3 ①	4 ⑤	5 ⑤	6 ③	7 ①	8 ④	9 ①	10 ⑤
11 ④	12 ③	13 ⑤	14 ②	15 ④	16 ②	17 ①	18 ④	19 ④	20 ⑤

8회 2023학년도 6월 고3 모의평가

1 ④	2 ③	3 ⑤	4 ④	5 ③	6 ③	7 ②	8 ②	9 ④	10 ③
11 ①	12 ④	13 ②	14 ③	15 ②	16 ⑤	17 ③	18 ⑤	19 ①	20 ④

9회 2024학년도 6월 고3 모의평가

1 ③	2 ①	3 ④	4 ⑤	5 ⑤	6 ④	7 ④	8 ④	9 ⑤	10 ③
11 ②	12 ⑤	13 ①	14 ②	15 ②	16 ⑤	17 ③	18 ①	19 ③	20 ⑤

10회 2025학년도 6월 고3 모의평가

1 ②	2 ④	3 ③	4 ①	5 ④	6 ⑤	7 ②	8 ①	9 ④	10 ④
11 ①	12 ③	13 ②	14 ③	15 ①	16 ①	17 ④	18 ③	19 ⑤	20 ④

11회 2022년 7월 고3 학력평가

1 ②	2 ③	3 ⑤	4 ⑤	5 ③	6 ②	7 ③	8 ①	9 ⑤	10 ③
11 ④	12 ⑤	13 ①	14 ③	15 ④	16 ④	17 ②	18 ①	19 ④	20 ④

12회 2023년 7월 고3 학력평가

1 ③	2 ③	3 ①	4 ⑤	5 ⑤	6 ④	7 ⑤	8 ②	9 ⑤	10 ①
11 ④	12 ②	13 ①	14 ②	15 ④	16 ③	17 ②	18 ④	19 ⑤	20 ①

13회 2024년 7월 고3 학력평가

1 ③	2 ⑤	3 ①	4 ⑤	5 ③	6 ⑤	7 ①	8 ③	9 ②	10 ④
11 ⑤	12 ①	13 ②	14 ②	15 ④	16 ④	17 ①	18 ④	19 ④	20 ③

14회 2022학년도 9월 고3 모의평가

1 ①	2 ③	3 ④	4 ②	5 ⑤	6 ③	7 ④	8 ①	9 ①	10 ②
11 ③	12 ⑤	13 ④	14 ③	15 ③	16 ②	17 ⑤	18 ②	19 ④	20 ⑤

15회 2023학년도 9월 고3 모의평가

1 ⑤	2 ⑤	3 ②	4 ①	5 ④	6 ①	7 ②	8 ④	9 ⑤	10 ③
11 ③	12 ⑤	13 ④	14 ②	15 ⑤	16 ②	17 ④	18 ①	19 ④	20 ③

16회 2024학년도 9월 고3 모의평가

1 ④	2 ④	3 ②	4 ⑤	5 ④	6 ①	7 ①	8 ③	9 ③	10 ③
11 ④	12 ⑤	13 ①	14 ⑤	15 ⑤	16 ⑤	17 ③	18 ①	19 ②	20 ①

17회 2025학년도 9월 고3 모의평가

1 ②	2 ④	3 ②	4 ①	5 ⑤	6 ②	7 ②	8 ①	9 ④	10 ④
11 ③	12 ③	13 ④	14 ①	15 ③	16 ①	17 ⑤	18 ⑤	19 ③	20 ⑤

18회 2022년 10월 고3 학력평가

1 ③	2 ①	3 ①	4 ⑤	5 ⑤	6 ③	7 ④	8 ②	9 ③	10 ④
11 ②	12 ②	13 ①	14 ④	15 ④	16 ②	17 ⑤	18 ③	19 ④	20 ⑤

19회 2023년 10월 고3 학력평가

1 ⑤	2 ④	3 ④	4 ③	5 ②	6 ④	7 ①	8 ⑤	9 ②	10 ③
11 ③	12 ②	13 ①	14 ①	15 ③	16 ⑤	17 ④	18 ④	19 ⑤	20 ①

20회 2024년 10월 고3 학력평가

1 ②	2 ④	3 ⑤	4 ⑤	5 ②	6 ①	7 ①	8 ⑤	9 ④	10 ⑤
11 ②	12 ④	13 ③	14 ③	15 ③	16 ①	17 ②	18 ⑤	19 ①	20 ④

21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 ②	2 ①	3 ④	4 ②	5 ①	6 ⑤	7 ③	8 ⑤	9 ②	10 ③
11 ③	12 ④	13 ④	14 ③	15 ③	16 ⑤	17 ④	18 ⑤	19 ②	20 ②

22회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 ③	2 ②	3 ①	4 ⑤	5 ②	6 ②	7 ①	8 ③	9 ⑤	10 ④
11 ②	12 ②	13 ③	14 ⑤	15 ③	16 ④	17 ①	18 ⑤	19 ⑤	20 ④

23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 ③	2 ①	3 ②	4 ①	5 ④	6 ④	7 ④	8 ⑤	9 ⑤	10 ⑤
11 ③	12 ①	13 ②	14 ③	15 ②	16 ②	17 ④	18 ③	19 ④	20 ⑤

24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 ①	2 ④	3 ①	4 ⑤	5 ②	6 ④	7 ③	8 ④	9 ①	10 ④
11 ④	12 ③	13 ⑤	14 ②	15 ②	16 ④	17 ②	18 ③	19 ③	20 ⑤

25회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 ④	2 ②	3 ⑤	4 ⑤	5 ⑤	6 ③	7 ③	8 ④	9 ④	10 ④
11 ①	12 ②	13 ①	14 ③	15 ①	16 ④	17 ③	18 ②	19 ⑤	20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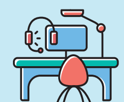
2026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누적판매 855만 부, 2024년 한 해 동안 85만 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 기출문제집
전 단원 필수 개념 동영상 강의, 체계적인 단원별 구성

선별 문항 문제 풀이, 동영상 강의 무료 제공

- 1등급에 꼭 필요한 기출문제 정복 프로젝트
-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분석하여 꼼꼼하게 준비한 강의
- 마더텅 기출문제집의 친절하고 자세한 해설에 동영상 강의를 더했습니다.







긍정의 바이브,
배준호 선생님과 함께하는 생활과 윤리!

배준호 선생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졸)
㉭홍대앞사회탐구 대표
㉭마더텅 수능사회탐구 강사
[저서] 2026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 윤리 해설 감수
[저서] 2026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사회·문화 해설 감수
[저서] 2026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해설 감수
[저서] 2025 마더텅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문제집 고1 통합사회1 해설 감수

동영상 강의 수강 방법

방법 1

교재 곳곳에 있는 QR 코드를 찍으세요!

교재에 있는 QR 코드가 인식이 안 될 경우
화면을 확대해서 찍으시면 인식이 더 잘 됩니다.

방법 2 [마더텅] [생활과 윤리] 2025학년도 수능 3번 키워드 예시

유튜브 www.youtube.com에
[마더텅] [생활과 윤리] + 문항출처로
검색하세요!

방법 3 동영상 강의 전체 한 번에 보기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 QR 코드



다음 중 하나를 찾아 QR을 찍으세요.
① 겉표지 QR
② 문제편 동영상 광고 상단 QR

[PC] 주소창에 URL 입력



다음 단계에 따라 접속하세요.
① www.toptutor.co.kr로 접속
② 학습자료실에서 무료동영상강의 클릭
③ [학년] [시리즈] [과목] [교재] 선택
④ 원하는 동영상 강의 수강

문의전화 1661-1064 07:00~22:00 www.toptutor.co.kr 포털에서 [마더텅] 검색

마더텅 기출문제집 실사용 수험생님들의 고득점 공부 방법



2023 마더텅 제7기 성적우수 대상
전과목 1등급 이지윤
서울시 숙명여자고등학교 가톨릭대학교 의예과 합격

2024 수능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1등급(표준 점수 147) 수학 영역(미적분) 1등급(표준 점수 145) 화학Ⅰ 1등급(표준 점수 67) 생명과학Ⅰ 1등급(표준 점수 69)

사용 교재 **까만책** 국어 독서, 국어 언어와 매체,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는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국어 독서를 집중해서 풀었습니다.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은 역대 평가원 지문을 주제별로 나누어 학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으로 기출을 분석하면서 약점을 찾고 평가원의 출제 포인트를 정리하며 공부했습니다.

시간을 재면서 주제별로 세 지문을 풀었고, 채점을 한 뒤, 제가 주의한 독해 포인트와 출제 부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글을 읽을 때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은 표시해 두었다가 다시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뒤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노트에 적어 쉬는 시간마다 복습하였습니다.



2023 마더텅 제7기 성적우수 금상
전과목 1등급 김준호
성남시 늘푸른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의예과 합격

2024 수능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1등급(표준 점수 138) 수학 영역(미적분) 1등급(표준 점수 144) 물리학Ⅰ 1등급(표준 점수 69) 화학Ⅰ 1등급(표준 점수 69)

사용 교재 **까만책** 국어 독서,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영어 독해, 물리학Ⅰ, 화학Ⅰ

제가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으로 미적분을 공부하게 된 이유는 수학이라는 과목 역시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평가원에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가 수능 공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은 1993년부터 2018년까지 출제된 문제들도 요즘 출제 경향과 비슷한 문제들을 선별하여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양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증된 평가원 문제를 많이 풀어 봄으로써 질적인 부분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 직전에는 기출문제와 당해 6월과 9월 모의평가 문제를 다시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1월, 2월에 풀었던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미적분을 꺼내서 어려운 문제들에서 어떤 논리가 중요했고, 결정적인 조건은 무엇이었는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백분위 100이라는 만족스러운 성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2023 마더텅 제7기 성적우수 금상
전과목 1등급 윤내영
대구시 대구과학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의예과 합격

2024 수능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1등급(표준 점수 146) 수학 영역(미적분) 1등급(표준 점수 142) 물리학Ⅰ 1등급(표준 점수 69) 지구과학Ⅰ 1등급(표준 점수 65)

사용 교재 **까만책** 국어 문학, 국어 독서, 국어 언어와 매체, 영어 독해, 물리학Ⅰ, 지구과학Ⅰ
빨간책 수학 영역, 영어 영역, 물리학Ⅰ

수능 대비를 위한 기출문제를 풀 때 무작정 문제를 풀기보다는, 평가원의 출제 방식을 파악하고 문제 유형과 난이도에 따른 자신만의 행동 영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와 매체는 모든 선지의 정오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아도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제나 예문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한 채로 애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은 모든 선지의 정오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답을 맞혔더라도 바로 넘어가지 않고 모든 문제를 꼼꼼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와 매체에서 출제되는 개념은 몇 년 간격으로 기출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수능에 출제되는 단어와 용례도 기존 기출에 나왔던 것이 반복되어 출제됩니다.

저는 개념을 1회독 한 뒤, 다른 사설 문제집을 전혀 풀지 않고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언어와 매체만을 4회독 하였습니다. 단순히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답률이 높았던 선지가 있으면 평가원이 해당 개념을 선지로 구성하는 방식을 정리하여 기억하였습니다.



ISBN 979-11-6859-781-5 53190

값: 13,900원

Published for the brilliant student like you



2023 마더텅 제7기 성적우수 은상
전과목 1등급 김한주
고양시 고양국제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합격

2024 수능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1등급(표준 점수 134) 수학 영역(확률과 통계) 1등급(표준 점수 134) 생활과 윤리 1등급(표준 점수 65) 사회·문화 1등급(표준 점수 69)

사용 교재 **까만책**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빨간책** 수학 영역, 생활과 윤리

수능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기출문제 분석은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관문입니다. 기출문제집 중에서도 깔끔한 형식과 풍부한 해설을 제공한다는 점 때문에 마더텅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문제 풀이가 끝난 뒤에는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의 장점인 해설지를 활용하여 오답 정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처음 문제 풀이를 하면서 체크해 두었던 헷갈리는 선지, 어려운 문제 등에 대한 해설을 모두 꼼꼼히 읽으며 정리했습니다.



2023 마더텅 제7기 성적우수 은상
전과목 1등급 이경각
광주시 살레시오고등학교 조선대학교 의예과 합격

2024 수능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1등급(표준 점수 142) 수학 영역(미적분) 1등급(표준 점수 136) 물리학Ⅰ 1등급(표준 점수 67) 지구과학Ⅰ 1등급(표준 점수 65)

사용 교재 **까만책** 국어 문학, 국어 언어와 매체, 물리학Ⅰ, 지구과학Ⅰ

국어 영역 선택과목을 화법과 작문에서 언어와 매체로 변경하게 되면서 기존 기출문제들을 진도에 맞춰 유형별로 학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꼼꼼한 해설을 통해 평가원의 문항 출제 원리를 독학할 수 있는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에 제시된 학습계획표에 따라 매일 아침 1시간씩 공부했습니다. 틀린 문제는 물론이고, 맞혔더라도 헷갈렸던 문제, 우연히 맞힌 문제 등은 표시를 한 후 해설지를 보고 선지 하나하나까지 분석했습니다. 또한 그 부분은 다음 날 아침 자습 시간에 반드시 다시 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오개념들은 따로 언어와 매체 개념 노트에 정리하고 학습해 나갔습니다.



2023 마더텅 제7기 성적우수 은상
전과목 1등급 정연우
성남시 분당영덕여자고등학교 아주대학교 의학과 합격

2024 수능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1등급(표준 점수 140) 수학 영역(미적분) 1등급(표준 점수 137) 생명과학Ⅰ 1등급(표준 점수 66) 지구과학Ⅰ 1등급(표준 점수 65)

사용 교재 **까만책**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파란책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독해, 영어 어법·어휘 실력

매번 모의고사 한 세트를 풀기에는 시간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생각해 기출을 재구성한 마더텅 고난도 미니모의고사 국어 영역을 애용하게 됐습니다. 마더텅 고난도 미니모의고사는 기출을 재구성하였기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기출을 한 지문씩만 풀었을 때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쏟아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과목의 하루 공부량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기출을 푼 지 너무 오래돼서 다시 기출로 감을 잡고 싶을 때, 실전 감각 유지를 위해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야 하는 문제 구성이 필요할 때, 모의고사를 전체 다 풀기엔 시간적으로 부담이 될 때 이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애매하게 남는 시간에 마더텅 고난도 미니모의고사를 활용하면 버리는 시간이 적어지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2023 마더텅 제7기 성적우수 은상
전과목 1등급 이주엽
군포시 군포중앙고등학교 가천대학교 한의예과 합격

2024 수능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1등급(표준 점수 139) 수학 영역(미적분) 1등급(표준 점수 133) 물리학Ⅰ 1등급(표준 점수 67) 지구과학Ⅰ 1등급(표준 점수 68)

사용 교재 **까만책** 국어 문학, 국어 독서,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영어 독해, 물리학Ⅰ, 지구과학Ⅰ

저는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국어 독서를 두 권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교재로 공부할 때는 기출 지문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시된 권장 풀이 시간을 강박적으로 지키기보다는 해설지의 도움을 받아 제 사고 과정을 점검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9월 모의고사 이후 같은 책을 재선택했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기출문제를 통해 얻고자 한 것은, '시간 관리'와 '배경지식'입니다. 사실상 모든 기출 지문들을 공부한 상태였기 때문에, 교재에 제시된 권장 풀이 시간보다 1분을 줄인 시간 압박 속에서 올바른 독해를 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독해 후 짧게나마 해설지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복되어 출제된 개념을 배경지식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3 마더텅 제7기 성적우수 대상
전과목 1등급 김근호
서울시 중동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의예과 합격

2024 수능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1등급(표준 점수 147) 수학 영역(미적분) 1등급(표준 점수 144) 화학Ⅰ 1등급(표준 점수 67) 지구과학Ⅰ 1등급(표준 점수 68)

사용 교재 **까만책** 국어 문학, 국어 언어와 매체, 영어 독해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은 평가원이기에 평가원 기출에서의 논리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여러 기출 강의를 들은 상태였기에,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기출문제를 갈래별로 나눈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국어 문학의 구성은 갈래별로 학습 전략을 확립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같은 갈래의 문제들을 몰아서 풀었기에 특정 갈래 문제들의 공통점, 자주 출제되는 부분, <보기>의 구성 등을 더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재를 한 번 본다는 생각이 아니라 여러 번 공부해서 풀이법을 완전히 체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평가원이 과거에 출제했던 문제를 풀어 보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능동적으로 풀이 순서나 방법, 풀면서 반드시 읽어내야 할 것들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2023 마더텅 제7기 성적우수 은상
전과목 1등급 김지민
제주시 남녕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의예과 합격

2024 수능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1등급(표준 점수 137) 수학 영역(미적분) 1등급(표준 점수 137) 화학Ⅰ 1등급(표준 점수 67) 지구과학Ⅰ 1등급(표준 점수 68)

사용 교재 **까만책** 국어 문학, 국어 독서, 화학Ⅰ, 지구과학Ⅰ

저는 수시 전형을 선택했기에,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인지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개념과 기출에 집중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매 단원의 절반만 풀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끝까지 풀고 다시 앞으로 와서 남겨 둔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풀었을 때 공부한 내용들이 기억에 더 잘 남았습니다. 그리고 풀고 난 뒤 채점하고 복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더 빨리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맞힌 문제더라도 해설지를 가볍게 훑으면서 제가 배울 만한 풀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배울 것이 있으면 꼭 따로 정리했습니다.



2023 마더텅 제7기 성적우수 금상
전과목 1등급 이현주
고양시 고양외국어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합격

2024 수능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1등급(표준 점수 138) 수학 영역(확률과 통계) 1등급(표준 점수 137) 한국지리 1등급(표준 점수 65) 사회·문화 1등급(표준 점수 70)

사용 교재 **까만책** 국어 독서, 한국 지리
빨간책 국어 영역, 수학 영역, 한국 지리, 사회·문화 **파란책** 수학 영역

독서 문제에 대한 독해력을 기르고, 시간 조절을 연습하기 위해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을 꾸준히 사용하였습니다.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국어 독서는 주제별로 지문을 수록했기 때문에 독서 문제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주제별로 지문이 수록되어 있어서 문제를 푸는 데에 필요한 주제별 기초 지식을 익힐 수 있었고, 1회독 이후 교재를 훑어보면서 많이 틀린 주제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추가 학습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국어 영역의 경우 기본기 습득, 기출 학습과 더불어 실전 감각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능 2주 전부터 매일 실제 수능 시험 시간과 같은 시간에 마더텅 교재로 공부하여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3 마더텅 제7기 성적우수 은상
전과목 1등급 송가은
고양시 저현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의예과 합격

2024 수능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1등급(표준 점수 134) 수학 영역(미적분) 1등급(표준 점수 133) 생명과학Ⅰ 1등급(표준 점수 67) 지구과학Ⅰ 1등급(표준 점수 65)

사용 교재 **까만책** 국어 문학, 국어 독서, 국어 언어와 매체,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빨간책 국어 영역,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생명과학Ⅰ 과목에서 비유전 부분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개념의 정확한 암기와 적용입니다. 우선,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을 활용해 단원별 기출문제를 풀며 개념을 정확히 정리하고 확인했습니다.

유전 공부의 핵심은 '사고 과정의 단순화'라고 생각합니다.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를 활용해 기출문제를 풀어 본 후, 제가 문제를 풀 때 떠올린 논리 구조에서 오류가 없는지 해설지를 통해 점검했습니다.